



마을공동체 의례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방식

우리 마을 산신제

京畿道北部村落共同體儀禮 - 山神祭

Northern Gyeonggi-do's communal ritual - Sansinje, religious ritual for gods of mountains





마을공동체 의례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방식

우리 마을 산신제

京畿道北部村落共同體儀禮 - 山神祭

Northern Gyeonggi-do's communal ritual - Sansinje, religious ritual for gods of mountains



일러두기

Explanatory note

이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2016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 마을공동체 의례를 기획 발굴지원한 결과를 책자로 엮은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전승마을을 발굴하고 8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된 마을공동체 의례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경기북부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의례를 사실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원천자원을 아카이빙하고 활용을 위해 일반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해당 지역 문화원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평

- ## 고양

- 구 리

- 남양주

- 동두천

- 양주

- 연 천

- 의정부

- ## 파 주

- 포 천

- # Contents

II 경기북부 마을공동체 의례

| | | |
|---------|------------------|-----|
| 1. 가 평 | жат고을 산신제 | 14 |
| 2. 고 양 | 국사봉 산신제 | 24 |
| | 마근개 도당제 | 32 |
| | 진발마을 상달고사 | 40 |
| 3. 구 리 | 갈매동 산치성 | 50 |
| 4. 남양주 | 시우리마을 산신제 | 60 |
| | 마진·조곡마을 군웅제와 산신제 | 66 |
| | 종말 산제사 | 74 |
| 5. 동두천 | 걸산리 산신제 | 84 |
| | 기촌마을 산제사 | 90 |
| | 은행나무 고사 | 98 |
| 6. 양 주 | 향동마을 산제사 | 108 |
| | 맹골마을 산제사 | 116 |
| | 상가업마을 산제사 | 124 |
| 7. 연 천 | 한발마을 산제 | 134 |
| | 노곡 2리 산단제사 | 142 |
| 8. 의정부 | 하금오리 꽃동네 산치성 | 154 |
| 9. 파 주 | 금병산 산치성 | 168 |
| | 진지동 진대고사 | 176 |
| | 학령산 산신제 | 188 |
| 10. 포 천 | 깊이울 왕방산 육산제 | 198 |
| |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 | 206 |

III 전승의 주역들



마을공동체 의례 :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 전승방식

흔히 말하는 “경기 북부”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시·군을 말한다. ‘경기도 북부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휴전선과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중심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 까지 개경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문화적으로도 중심부였다. 그러니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문화가 전개되어 왔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것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일까?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무엇이 같고 다른 것일까? 이것을 드러다 보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지역에서 지금도 전승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 한 가지를 들여 다 봤다.

마을에 따라서는 ‘산제’, ‘산치성’, ‘산고사’, ‘산제사’, ‘마을고사’, ‘동네고사’라고 말하고 ‘산신제(山神祭)’라고 쓰는 마을공동체 의례가 그것이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자연 중에서 가장 높고 큰 것은 산’이라는데, 그 산에 의지하고 정성을 드리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현명했다.

산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신에 대한 의례가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음력 10월 상달을 중심으로 제의일시가 치중되어 있다. 충청, 경상, 호남 등 남부지역에서는 정월 보름 의례가 월등히 많은 것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다.

경기북부 지역의 10월 상달 의례는

고구려와 고려의 국가제의 전통을 이었다는 것, 수렵과 밭농사를 하던 생업활동 지역의 수확의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남부지역 논농사권역의 정월 보름 의례, 농경의례, 파종의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수렵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다.

문명의 발달로 수확이 적은 밭농사보다는 논농사가 용이해 졌다. 이러한 달라짐의 양상을 경기북부 지역 마을공동체 의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전승현상은 고정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 마을공동체 의례현장에서 본 전승 방식은 다양했다.

‘3~4대 째 전해 내려오는 산신제 장부’가 있어서 혹은, ‘어른들이 하던 대로’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단절된 국가의례였다는 이유로, 마을마다, 가정마다 각각 지내오던 전통인데 단절된 것이 안타까워 이번에 의례를 복원한 마을도 있다.

단잔단배의 정갈하고 소박한 고향의 산치성과

조상제사와 같고 다름을 구분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기제사 방식, 형식과 절차가 체계화된 향사 절차를 적용한 산신제, 무당굿과 풍물이 따르는 동네고사,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례 등 다양한 전승방식을 경기북부지역 마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은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 그 기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에 대한 고수(固守), 이를 자존감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간 마을공동체 의례에 대해 이래저래 기록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외부인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는 의례의 금기 때문에 누구나 전승현장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지원 사업으로 어렵게 사진과 영상기록을 시도했다.

본문은 사진이 중심이다.

글은 현장조사를 가서 긴 시간을 보낸 경우와 영상으로만 현장을 본 것이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사진에서 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오고가는 대화와 상황을 적었다. 필자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 마을사람들도 대부분은 산신제를 지내는 현장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이 기록으로 현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전통의례를 전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다. 마을에는 이를 가능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마을사람 모두다. 그래서 이 기록이 마을을 기리고 그 주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드러냄으로써 마을과 지역의 자량으로 자긍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전통문화 전승력 강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조금인 지원금에 번거롭기만 했던 프로젝트였다. 주제 선정을 같이 고민하고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의례 전승 마을을 발굴하고 또 현장을 기록해준 경기북부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님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원장님, 향토사 관련 소장님, 담당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그저 “마을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거라 정성껏 지낸다.”고 하면서 굳건히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모든 마을 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분들이 계셔서 한민족이 한민족이고 경기도가 경기도 인 것이다.

町共同体儀礼： 京幾北部で生きてきた人々の 伝統文化の伝承方法

私たちがよく言う「京幾北部」は、現在の行政区域上は京幾道の北部地域に位置している10ヶ所の市・郡を表す言葉である。つまり「京幾道の北部地域」ということだ。地理的には漢江の北側に位置し、軍事境界線と接している。歴史的には昔から朝鮮半島の中心であり、三国時代から高麗時代まで開京(ケギョン)を首都にし、朝鮮半島の中心として座を固めた。文化的にも中心であったため、他の地域とは異なる様子で文化が展開されてきたのが確かである。

しかし、多くのことが変わった。変わっていつている。全てが画一化されているこの状況で町の歴史と伝統を守っている者たちがいたら、どのような理由だろうか。他の地域のそれとは何が同じで何が異なるのか。これを覗くことの意味は何だろうか。

この地域で今も伝承している伝統文化の1つを覗いた。町によっては「山祭」「山致誠」「山告祀」「山祭祀」「町告祀」「町祭祀」とも言い、「山神祭」と書く町共同体の儀礼がそれである。「人間が認知できる自然の中で、最も高くて大きいものは山」と言うが、その山に頼り、祈る行為は自然であり、賢明だった。

山が多い韓国の場合、全国的に山神に対する儀礼がある。京幾北部地域では、陰暦の10月上旬を中心に祭儀の日時が偏っている。京幾南部、忠清、慶尚、湖南地域では、上元の儀礼が圧倒的に多いのに比べ、そうだと言う話である。

京幾北部地域の10月上旬の儀礼は、高句麗と高麗の祭儀の伝統を継いだこと、狩猟と畑農業をしていた生業活動地域の収穫儀礼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南部地域の水田農業圏の上元の儀礼、農業儀礼、種まきの儀礼とは異なるのが当然だ。

狩猟文化は既に消えた。文明の発達によって、収穫の少ない畑農業よりは水田農業が容易になった。こ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様子を、京幾北部地域の町共同体の儀礼ではっきりと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文化の伝承現場は固定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なぜならその当時の状況により、有機的に変化し、適用されるからである。

京幾北部地域の町共同体の儀礼現場で見た伝承方法は様々だった。「3~4代目も継いできた山神祭の帳簿」があって、もしくは「上長らが行っていたままで」儀礼を伝承している町がある反面、昔断絶された国の儀礼だったという理由で各町に、各

家庭でそれぞれ継いできた伝統だが、断絶されたことを気の毒に思っている。

一杯一例の清らかで素朴な古形の山致誠と先祖の祭祀の同じで異なるところを区別したり、なかったりする忌祭方法、形式と手続きが体系化された祭祀方法を適用した山神祭、巫女の儀式や祈りと農楽も一緒である町告祭、変化の過程であると見られる儀礼など、様々な伝承方法を京幾北部地域の町で全て見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京幾北部地域は「伝統文化の宝箱」である。

表に表れる多様性の底にある伝統に対する固守、これを自尊心と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今まで町共同体の儀礼に対してあれこれと記録された事例があった。しかし、外部の人の参加を許さない儀礼のタブーのせいで、誰もが伝承現場を直接目にすることは難しい。だから、優先支援事業として難しく写真と映像記録を試みた。本文は写真中心である。


文章は現地調査をして長い時間を過ごした場合と、映像だけで現場を見る場合の違いがある。筆者の場合、写真で祭儀現場を感じられるように現場を交わる会話と現場の状況を書いた。だから、筆者の視線にならざるを得ない。町の人々のほとんどは山神祭を行う所々に参加したことがないので、この記録を通じて現場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自分が住んでいる町で伝統儀礼を伝承していることは確かに自慢すべきことである。町ではこれが

できるように影響力のある人がいるが、それはもちろん町の人全員である。それゆえこの記録が町を称え、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人々を主人公として表すことで、町と地域の自慢であり自負心を表現す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それが伝統文化を伝承する力が強化される主な要因になるに違いないからだ。

あまりにも少ない支援金で、手間がかかったプロジェクトだった。テーマの選定と一緒に悩み、該当地域の町共同体儀礼を伝承する町を発掘し、また現場を記録してくれた京幾北部の市・郡文化院の事務局長に感謝の言葉を述べる。もちろん、院長、地方史に関する所長、担当者にも感謝の言葉を述べる。何よりもただ「町の上長たちが昔から行っていたもので、私たちも真心を込めて行っている」と言い、しっかり儀礼を伝承している町の住民全員にも感謝の言葉を述べる。その方々がいるから、韓民族が韓民族であり、京幾道が京幾道である。

2016年 12月
京幾文化財団北部文化事業団



A Communal Ritual : A way that people residing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herit their own traditional culture

At present,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refers to a collective area of 10 si and guns located in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namely ‘the North area of Gyeonggi-do’. Geographically the area is located the northern part of Han River and bordered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has been a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over scores of years; From the Three States era through the Goryeo Dynasty, Gaegyeong had become a Korea’s capital city, cemented its position as a cor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ime being. In addition, it is said that this area played a cultural hub as well. Considering all these elements, the Northern Gyeonggi-do has developed its own, unique culture over the other provinces.

Now we see things have changed; almost all have been moved into standardization across the nation including culture. However some people try to conserve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own village of all these changing era. Is there any special reason for them to do? What makes a difference or not in their own village over other ones? What does it mean for them to see and recognize what they still have in the village?

Here is one of many traditional culture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in this province to date. It is a communal ritual that is called as “Sanje”, “Sanjiseong”, “Sangosa”, “Sanjesa”, “Maeulgosa”, or “Dongnegosa” depending on village, and written as “Sansinje”. There is an old saying that San(Mountain) is the largest, highest one of all part of nature that human being is able to rely on. In such a sense, it seems to be natural and sensible of the village people depending on mountain and give offerings to mountain with their utmost sincerity.

Traditionally Korea as a mountainous nation has a ritual for a guardian spirit of a mountain all over the nation. In particular,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sees most rituals coming in October(lunar calendar) while other provinces such as Southern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Gyeongsang and Honam province establish the ritual date in the 15th of January a year.

This is meaningful that the Northern Gyeonggi-do’s October ritual originates from the national ritual of the Gogurye era and the Goryeo Dynasty as a harvest ritual held in the farming and hunting areas of old agricultural societie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Daeborum Festival(the full moon of January), Agricultural Ritual and Seeding Ritual that are held in the rice farming area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hunting culture disappeared. As the civilization has been developed, the rice farming produced much more yields that the field farming did and emerged as a main industry. This change reflected in the local communal ritual of

the Northern Gyeonggi-do. A culture is just like an organism, growing depending on a situation and a place from time to time.

Therefore there are a variety of ways of succeeding communal ritual in the Northern Gyeonggi-do alone. Some villages keeps Sansinje that is handed down over three to four generations, others holds a ritual as ‘ancestors do’ or others restore a ritual in a regional government wide that was an old, disappeared national one but only has been being held in some home and village only.

More specifically, there are versatile rituals in the Northern Gyeonggi-do’s villages: Sanchiseong which is simple, nice and neat with a single drink and a single bow, a commemorative rite that is different but slight same as a memorial service for one's ancestors, Sansinje systemized with formality and procedure that employs a Hyangsa process, Dongnegosa that follows an exorcism by a Shaman and a local farming band, another ritual that is in the middle of change.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a traditional culture, you can say the Northern Gyeonggi-do is a rich treasure house.

Behind such a variety of survived traditions, there are village people who try to keep their tradition conserved with persistence. Would this be seen as a cultural pride that they have?

We can search and read around several written records regarding the communal ritual up until now. In general, such rituals are with a limited access and the public is not allowed to joint and watch the traditional ritual. This let us to attempt to take photos and moving images on the ritual spot, under the help of the project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A key message of the main texts is represented in images. Writings depend on situations that you watch a spot in person, in moving image, etc. So under the images we put it down actual talks which are communicated by all the relevant people in the spot for you to feel a living ritual experience as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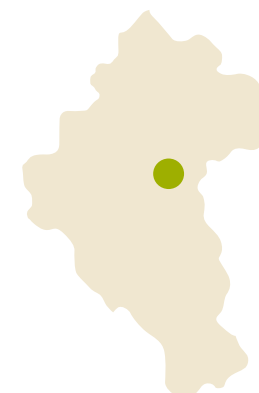
as possible. But this could be still limited by my point of view. As said, village people have barely taken part in the spot where Sansinje is held.

These records have been made to convey a sense of the traditional spot to the public.

You can be proud yourself living in a village where the traditional ritual has been handed down. To this end, some leaders are required to organize this ritual successfully in a village but in my opinion, all of village peoples are the ones who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it. These recordings will serve an opportunity that people recognize they are the leading people themselves in succeeding the tradition; feel proud of their own village and further its province. No wonder why the village people will be a momentum that drives to keep a traditional culture of a region handed down.

Maybe, this project could be a burden for us to implement due to a small amount of subsidy. Somehow we all made it and I proudly say this event has been successfully finished by all relevant people. I extend my thanks to the secretaries of each culture center of the Northern Gyeonggi-do’s si and gun who had a brainstorming for a theme selection, discovered hidden villages which have been succeeding the communal rituals of each region and handed the cultural spot down. Mo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all of village people who inherit the traditional rituals in person, saying “all we do is just to follow what our ancestors in this village do with sincerity. It is obvious that the village people themselves play the pivotal role of building a true Gyeonggi province and are ones who keep Korean race proud.

December, 2016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1 가평의 마을공동체 의례

1-1 잣고을 산신제

가평
잣고을 산신제

가평읍 승안리 연인산도립공원

가평군은 경기도 동북 산간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한강이 홍천강과 합류하여 서남방향으로 흐르는 지역이다.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 춘천시와 인접해있고 춘천시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가평군은 전체가 명지산, 연인산, 호명산, 축령산 등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추구곡, 북한강 등 천혜의 자연관광지를 자랑하고 있다. 여러 산맥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인지 자연마을이 경기북부의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군내 어느 곳에도 많이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는 가평군목이자 특산품이다. 우리나라 최대 잣나무 유림지인 축령산을 비롯하여 가평군 산림면적의 약 30%가 잣나무림이다. 전국 잣 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며, 가평군내 300여 농가가 잣산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30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잣을 가공한 것 중 가평잣 막걸리는 1997년 청와대 납품을 통해 전통주로 인정받았으며 경기 5대명주로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가평잣’을 지리적표시등록 제 25호 임산물로 등록했다.

그래서 제 1회 가평잣 산신제가 탄생되었다. 예전부터 지역과 농가별로 지내던 기원제를 가평군 전체 잣 농가가 모여서 같이 지내자는 의도였다. 잣과 관련된 산주, 생산 농가, 가공업체 등 20여 곳이 참여하였다. 이번 산신제를 기획하고 주최한 사)가평잣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잣 소득증대와 잣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제의 날짜는 본격적으로 잣 수확이 시작되는 때로 잡았다. 제의의 주목적이 잣 수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소는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뒤에 있는 오래된 잣나무 앞으로 정하고 관계되는 곳에 초대장을 보냈다.

가평군 전체 잣 관련 의례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라 초헌은 김성기 가평군수, 아헌은 고장익 가평군의회 의장, 종헌은 이수근 가평작합회 회장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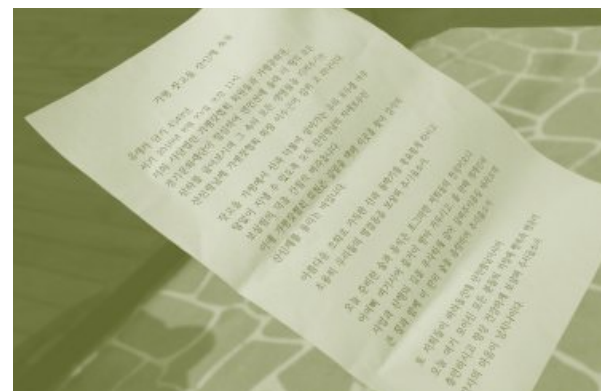
그리고 축문은 가평갯협회 이광운 감사가 읽었다.
갯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의회 부의장,
가평문화원장, 협회 회원들이 헌작하였다.

제의절차는 사무국장이 준비한 산신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산신제 식순은 다음과 같다.

산신제 식순

1. 국민의례
2. 개회사(이수근 회장)
3. 내빈 인사말씀(김성기 군수 외)
4. 산신제 절차
강신(降神) → 참신(參神) → 초헌(初獻) →
독축(讀祝) → 아헌(亞獻) → 종헌(終獻) →
사신(辭神) → 철상(撤床) → 음복(飮福)
5. 폐회사
6. 종식



2016년 제 1회 시작되는 산신제다.

가평жат 산신제의 목적은 축문에 잘 드러나 있다.

가평 잣고을 산신제 축문

유세차 단기 4349년

서기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저희 사단법인 가평갯협회 회원들과 가평문화원,
경기문화재단이 합심하여 연인산에 올라 이 땅의
모든 산하를 굽어보시며 그 속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께 가평갯협회 회장 이수근이
감히 고하나이다.

잣고을 가평에서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오직 산신령님
 의 자애로우신 보살핌의 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가평잣협회 회원은 길일을 택해 이곳을
 찾아 감사의 산신제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로 가득한 산과 골짜기를 풍요롭게
하시고 조용히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술과 음식은 조그마한 저희들의
정성이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즐거이 받아 거두시고,
올 한 해 개개인의 사업과 산행의 길을 무사하게
굽어 살피주시옵길 바라오며 큰 절과 함께 이 잔의
술을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바라옵건데 산신령님이시여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
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나이다.



사진으로 보는 의례 현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갯협회 사무국장 임연
옥입니다.

· 지금부터 사단법인 가평갯협회
갯고을 산신제를 거행하겠습니다.

·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
습니다.

· 다음은 협회장이신 이수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다음은 참석하신 김성기 군수,
고장익 의장, 장기명 가평군
산림조합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인사말이 끝나면 사회는... 다음
은 강신과 참신입니다.
강신은 산신이 내려와 음식을 들게
청하는 것이고, 참신은 신을 뵈는 것
이다.

회장은 제상 아래에 마련한 돛자
리에 올라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은
잔을 올리고 삼배를 한다. 사람
의 제사에는 재배를 하지만 산신
제에는 삼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
라는 설명이 따랐다.



강신과 참신이 끝나면

· 다음은 초헌입니다.

초헌은 산신에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보통 단체의 회장
이나 원로회원이 제상 아래에 마
련한 돛자리에 올라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은 잔을 올리고 삼배를
한다. 초헌 후에 일동이 무릎을
꿇고 앉는다.

축관이 엄숙한 목청으로 축문
을 천천히 크게 읽는다.





- 다음은 아헌입니다.
아헌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내빈이나 단체의 두 번째 대표가 술을 올리고 삼배한다.
- 다음은 종헌입니다.
종헌은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그 다음 임원이 술을 올리고 삼배한다.
- 다음은 헌작입니다.
회원 및 참석하신 모두가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삼배한다.
- 다음은 사신입니다.
사신은 산신과 작별하는 의식으로 참가자 모두 삼배한다.
대표는 축문을 불사른다.
- 다음은 이수근 회장님의 폐회사
사가 있겠습니다.

사신이 끝나면 철상을 하고 음복을 한다. 음식은 참석자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으면 연중 탈이 없다고 한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내빈의 인사말은 생략되었다. 산신제 절차 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군수의 의견이었다. 폐회사 후 모두 박수를 치고 끝났다. 제사상에 모여들어 간단히 음복하고 시내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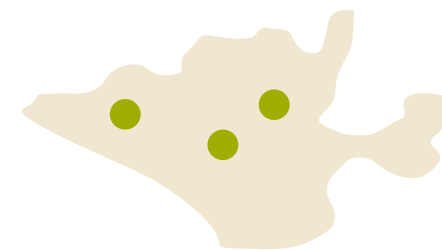
식당에서 음복을 겸한 점심을 했다. 이번 산신제의 중요한 목적으로 가평 잣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 문화축제가 의도였기 때문이다.



전승의 주인공들

예전부터 마을과 농가별로 지내던 기원제가 점차 사라진 상황이 안타까웠다. 잣을 수확할 때의 위험에 대해 안전을 기원할 데가 사라진 것이다. 더불어 잣 수확의 풍년도 기원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가평군 전체 잣 농가가 모여서 같이 지내자는 의도로 제 1회 가평잣 산신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니 당연히 가평군의 수장인 군수가 초헌관이 되어야 했다. 세상사 모든 일에 수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알고 있을 터이다. 정면은 초헌관 김성기 가평군수, 오른쪽이 아헌관 고장익 가평군의회 의장, 왼쪽이 이번 산신제를 기획하고 주관한 종헌관 이수근 가평잣협회 회장이다. 초헌관의 움직임에서 정성이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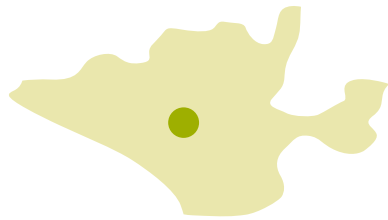
2 고양의 마을공동체 의례

2-1 국사봉 산신제

2-2 마근개 도당제

2-3 진발마을 상달고사

고양 국사봉 산신제



고양 화정동 국사봉 산신
(옛 골머리, 꽃물리)

24

“나라의 안녕과 마을의 단합을 기원하는 산신제”

국사봉은 화수촌 마을에서 북동쪽에 자리 잡은 산봉우리인데 고양군의 고봉산, 견달산, 정발산, 덕양산, 건지산 등과 함께 주봉을 이루는 명산이다. 현재 국사봉은 원당읍의 성사리와 지도읍의 화정리가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본래 이 산 이름은 별아산인데 국사봉으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 중기 효종이후라고 한다.

‘조선조 효종이 승하하자 명당자리를 물색하였다. 이곳에서 성사리 배라산 마을 건지산 기슭에서 그런 자리를 발견하고 왕릉 축조 작업을 하기로 했단다. 그러던 중 지관이 산 정상에서 큰 정기를 가진 바위를 발견하였다. 왕릉보다 더 큰 정기를 가진 바위였던 것이다.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좋겠다, 하여 도끼로 내려치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바위에서 검은 피가 솟았다. 산신이 노한 것이다. 바로 효종의 능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산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매년 나라에서 직접 제를 지냈단다. 그래서 국사봉이라고 했단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제례가 이어져 왔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마을이 없어지고 따라서 산신제도 맥이 끊겼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산신제를 계속 지내려고 애를 많이 썼단다. 나라에서 지냈던 산신제고 또 마을에서 계속 이어서 지내던 산신제였기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국사봉 풍물보존회 조봉익 회장과 고양문화원이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

국사봉풍물보존회가 중심이 되고 고양문화원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국사봉 산신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현재 국사봉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원래 제사터인 국사봉 정상에서의 제례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사봉 중턱에 반으로 갈라진 바위가 있어 그곳에 산신제 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국사봉 산신바위터’라고 부른다.

국사봉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중 택일하여 제를 올렸다. 금년에는 음력 10월 초하루, 양력 10월 31일 월요일 11시 30분에 지냈다.

마을에서 선정한 제관은 제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일체 부정을 삼가고 비린 음식을 금하며 청정한 몸가짐을 실행한다. 제사 삼일 전 산신바위에 금줄을 두르고 주위를 정갈하게 하여 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국사봉 산신 바위터에 잘 차린 산신제상’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제장을 꾸미고 제상을 진설해 둔 장면이 깔끔하다.

산신바위에는 한지를 곱은 금줄을 걸었다. 그 중간운데에 ‘국사봉 산신(國祀奉 山神)’이라고 쓴 한지 한 장을 금줄에 곱아 위패를 대신했다. 바위의 깨진 부분 아래에 상을 차렸다. 초를 상 앞으로 양쪽에 두고 과일을 높이 쌓았다. 대추, 밤은 큰

대접에 고봉으로 올렸다. 감, 배, 토마토, 사과, 귤은 낫 제기에 높이 쌓아 올렸다. 상 가운데로 5단으로 쌓은 구운 두부 한 접시를 올렸다. 시금치, 무나물, 고사리 무침도 제기에 고봉으로 담고, 전도 크게 가득 한 접시 담았다. 국과 밥도 올렸다. 술잔은 두 벌을 올려 두었다.

상 앞에 축문을 펴두고 향로와 주전자 그리고 빈 제기 위에 수저 한 벌을 올려 두었다. 그 오른쪽으로 넓게 한지를 깔고 방앗간에서 찌운 백설기를 시루 채 놓고 손잡이에 북어를 한 마리씩 곱았다. 그 오른쪽 옆에 식혜를 담아 향아리에 묻은 후 덮어둔 짚주저리가 있다.

향로 왼쪽으로는 작은 돌 위에 별도의 상을 차렸다. 산신을 따라온 잡귀 잡신들의 뭇인가 보다. 제상에 올린 나물, 전을 조금씩 곱고루 접시에 담고 또 사과, 토마토, 귤도 하나씩 얹었다. 그리고 빈 사발 그릇 위에 작은 짚단을 올려 두었다. 이것은 초부정에 쓰이는 것으로 마른 고추와 쑥을 싹 벗겨놓이란다. 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이 이 벗겨놓은 불을 붙이고 제장 주변을 돌면서 연기를 피운다. 제장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25



“오랜만에 복원해서 지내는 제사라...”

- 제관은 준비해둔 짚단으로 제장을 정화하고 제상 앞에 앉는다.
- 제관이 양쪽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산신에 제를 고한다.

라이터로 향에 불을 붙이자 잘 안 붙는다.
제상위의 촛불로 붙여야 한다고 옆에서 훈수를 둔다. 제관이 애써 불을 붙이고 절을 하자

“절하는 거 아닌데~”

“안 하는거야?”

“먼저, 식혜를 떠주세요, 바가지로
혼자 하셔도 되요~
항아리 뚜껑에 주전자 올리구요~”

제관이 다시 일어나 짚주저리를 벗기고
항아리에서 식혜를 떠 주전자에 담는다.
긴 박 바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

“국사봉 산신은 여신이라 술을 안올리고
식혜를 올린다.”고 뒤에서 설명 중이다.



“다음은 헌관들 세 분 나와 주세요.”

“초헌관은 절하시고, 산신은 세 번 절하세요.”

“잔 올려 주세요.”

- 초헌관이 식혜를 잔에 받은 다음 상 앞에 세 번에 나눠서 버린다. 두 잔을 모두 받아서 버린다.

“세 분이 같이 절 하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땅에 손 짚고 계세요. 축 하세요.”

“아니, 잔 안올렸는데?”

- 초헌관이 다시 잔을 받고 식혜 두 잔을 올린다.

“잔 올리세요, 수저도 꺾으시고”

“수저(숟가락과 젓가락) 딱딱 쳐서,
소리 내고 올리세요, 크게.”

“이거 원래 좀 있다가 하는 건데?”

“부복~, 모두 엎드리세요.”

- 축관이 세 사람의 헌관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독축한다.

“유세차 병신 시월 경술삭 초 일일 병술
유학 조봉익 감 소고우~
국사봉 산령이신 천지지간... 상향”

한문으로 잘 쓴 축문이다.
독축 소리에서도 경륜이 묻어난다.

“절해요.”

- 다 같이 세 번 절하고 일어선다.
- 아헌관이 상 앞으로 나가 잔을 받아서 올리고
집사는 시접을 세 번 소리 내 친 다음 전 위에 올려 둔다.

- 아헌관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000야 종헌해. 석 잔은 올리는 거야.”
 “시계 반대방향으로 잔을 돌려서 올려.”
 “다음에 절하시라고.”
 집사가 수저를 세 번 치고 전 위에 올린다.

28

· 종헌관이 세 번 절하고 물러난다.

“석잔 다 올렸네 머. 인제...”

헌관들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참석한 사람들의 첨잔이 이어진다. 먼저 상 앞에 나와 잔을 올리고 초와 향을 다시 피운다. 향을 여러 개 붙여서 향로에 꽂고 향로 옆에 둔 제기 위에 돈도 놓았다. 절을 세 번 하고 물러난다.



이어서 젊은 남자 둘이 같이 나와 절을 한다. 두 번 하고 일어났다가 “세 번?” 하고는 다시 한 번 더 절을 하고 돈을 놓고 물러난다. 여자들도 둘, 셋씩 같이 절을 한다. 누구는 큰절하는 자세로, 누구는 기도하는 자세로... 그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다음 사람들도 손에 봉투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참석자들의 헌작이 끝났다.

· 제관이 수저를 세 번 치고 제기 위에 올려둔 돈 위에 수저를 올리면서 “가져가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다.



· 제관과 축관 네 사람이 다 같이 세 번 절한다.

“무릎 꿇고 앉으세요.”
 “소지발원 하세요~”

소지발원 하는 동안 풍물이 이어진다.

· 제관이 큰 소리로 입 축언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국사봉 산신님께...
 오늘 도와주신 모든 분들 잘 되 계 도와 주시고...”

소지는 세 번을 올린다.
 세 번 하라고 제관 곁에 와서 알려준다.

제관은 소지가 잘 타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애쓴다. 맨손이 뜨거울 때 까지. 입 축언도 계속 한다.
 제의 시간은 20분 남짓 걸린다.

29



소지가 끝나고 제관과 회장이 인사하고 박수 치고 마무리 한다. 한바탕 풍물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마친다.

30

이런저런 이야기들

국사봉 산신은 여신이란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정성을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신이라서 제물 중에 비린 것을 금하고 술 대신 식혜를 올린단다.

제삿날 전에 터에 올라가 조라 술 대신 식혜를 빚어 놓았다가 식혜에 떠오른 밥알을 건져내고 맑은 단술을 올린다. 떡도 팔시루 떡이 아니라 흰 백설기를 올린다.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는 “원래 위하던 국사봉 산신바위”에는 핏자국처럼 검붉은 자국이 있다는

이야기도 국사봉 산신제에 호기심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고양시는 급격하게 신도시로 변한 지역으로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례는 그 뿌리가 깊고 굳건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양시 성석동 진밭마을 산신제, 풍동 산치성, 불미지 서낭제, 관산동 마근개 삼방산 당고사 등이 그러하다. 이번에 복원한 국사봉 산신제는 고양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깊게 해줄게 분명하다.



국사봉풍물보존회 조봉익 회장과 제관들이다.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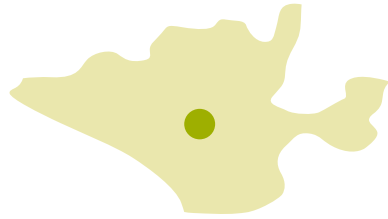
금년에 제관은 조봉익 국사봉풍물패 회장을 중심으로 조동민, 조동호 씨가 맡았고 축관은 이영수 씨가 맡았다.

31



국사봉풍물보존회 회원과 마을 노인회 회원들이다.

고양 마근개 도당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두포
(마근개)

‘맑은 개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마근개 마을’

관산동은 고양시의 동북쪽에 자리한 행정동이다. 관산동 내에는 대자동 일부와 내유동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에 통일로가 지나고 남서쪽으로 곡릉천이 흐른다. 서울에서 파주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문산을 지나 두포마을이 있다. 더 가면 구파발이다.

‘자연마을로는 안쪽에 있어 안팔, 산 너머에 있어서 넘팔, 청주 한 씨 한의 선생이 어머니 묘를 시묘했다는 시묘골, 시장이 있는 마을이라 시장부락, 하천제방을 막은 두포동, 벌판에 있어서 벌판마을, 주막이 있던 곳이라 주막거리, 군청이 있던 옛 골짜기라는 고골이 있다.’ 고양시지에 적힌 얘기다. 마근개 당고사 보존회장 안만선 씨에 의하면 ‘마근개’는 ‘맑은 개울’이라는 뜻인데 언제부턴가 ‘마근’을 ‘독을 막은 곳’이라고 두자를 쓰고 개포 자를 써서 두포동이라고 쓰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근개’라는 이름을 꼭 이어오고 있어요. 마을이 언제 형성이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입향한 성 씨가 진주 정 씨하고 청풍 김 씨가 처음 입향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마을에 안녕을 위하는 고사를 지냈다고 해요. 우리 대로부터 13대를 살았으니 300년은 더 넘은 것 같고...”

“옛날에는 당주를 정하고 무조건 정갈하게 했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는 당주, 그런 걸 못 정하고 경로당이나 새마을부녀회, 마을 총회가 다하고,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해요. 옛날에는 당주 집에서 다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따지지 못하고 우리 임원들이 다 지내고 있는 거예요.”



관산 14통 두포마을(마근개) 마을회관에서 제물준비와 음복을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진행은 노인회, 부녀회, 마을 총회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제당에 올라가 고사를 지낸다.

“첫날 첫새벽에 지내는 마근개 삼방선 당고사”

마근개 당고사는 매년 음력 10월 31일 양력 11월 1일 03시에 지낸다. 제당은 “삼방선 바위 터”에 세 곳이 마련되어 있다. 터 가운데 부분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좌우로 작은 바위가 있다. 이곳을 일방선, 이방선, 삼방선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가운데 도당인 일방선에 제일 먼저 제를 올리고 이어서 왼쪽에 있는 이방선, 오른쪽에 있는 삼방선에 제를 지낸다. 제물은 일방선이 본당이라 상석도 크고 제물도 가장 많이 올린다.

예전에는 바위에 그대로 제물을 차리고 지냈는데 지금은 대리석으로 상석을 잘 만들어 두었다. 고사이기 때문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독지가가 상석을 희사한 거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제물을 실은 차가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다.

제물의 종류는 일반적인데 제상 차림이 푸짐하다.

조라 술은 전날 미리 올라와서 항아리에 담아 짚주저리를 덮어두었다. 제를 지내러 올라와서 여자 회원들이 바로 채에 걸러 술을 내린다. 커다란 밥사발에 가득씩 부어 세 곳의 제상에 올렸다.

가운데 있는 일방선이 제일 도당이라 제물도 제일 많이 차린다. 삶은 소머리를 상석 가운데 놓고 붉은 팔시루 떡도 시루 째 올렸다. 커다란 배와, 감, 밤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된 큰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고기 적은 넓적하게 부쳐서 쟁반에 담았다.

일, 이, 삼방선에 각각 제물을 차리다보니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씩 하자고, 작년에 스님도 그러고 지냈잖아. 여기 다하고 저쪽에 가고, 그렇게 했어.”

이, 삼방선 제물은 간단하다. 제상 크기부터 작다. 중간 크기 바구니에 배와 감과 밤을 한꺼번에 푸짐하게 담았다. 고기 적은 쟁반에 담아 한쪽에 두고 팔시루 떡은 시루 채로 올렸다. 그리고 조라 술 한 잔이다.

초는 바위 위에 직접 켜었다. 바위에 초를 켜 수 있는 쇠못을 박아 두었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고사 지내는 거라
그렇게 인해요.”

진설이 끝나자 제관이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리고
제의 시작을 고한다. 남자 임원 여섯 사람이 앞쪽으로
서고 여자 임원 세 사람은 뒤쪽에 섰다.

“시집, 제사 지내는 것처럼 땡땡 치는 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거기다 올려 두세요.
제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고사니까 그냥 놔요.”
소머리 위에 수저를 미리 올렸다.

“고사지낼 때는 절을 많이 하는 게 좋대요.”

보존회 회장이 제복을 입고 사회자처럼 진행을 한다.

“지금부터 2016년도 마근개 당고사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우리 도당신님께 절을 하실 분은 절을
하시고 합장을 하고 비실 분들은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절은 한 4배 정도 하세요.”

“고사지낼 때는 절을 많이 하는 게 좋대요.”



모두 다 같이 절을 한다.

“우리 새마을 회장님께서 조라 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어둔 조라 한 대접을 받아 한 번 돌리고
떡시루 위에 올린다.

“조라 술을 올렸으니까 우리가 도당신님께
우리의 기원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복들 하시고 합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당신님께 소개하는 우리의 소원”

항상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마근개 도당신이지여
금년 한해도 아무 탈 없이 마을이 평안하였습니다.
모두가 도당신님께서 돌봐주신 덕으로 압니다.

내년에도 우리 마을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태평하게
해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은 모두 합격하도록 좀 해주시고 사회에
입문하는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남선녀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에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모든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번창해서
돈 많이 벌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힘들지 않게 풍년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마을
전체가 모두 평안하고 각 가정마다 우환이 없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정성들여 제물을 올리면서 대표자 몇 명이 와서 지금 제를 올리고 있으니 흠향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6

“됐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비시면 되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다 같이 부복했다가 절하고 일어난다.

“우리 마을에 도당신은 일방선, 이방선, 삼방선이 있기 때문에 도당 중앙에 했고, 저쪽에도 가서 마을회장님이 가서 조라 술 한 잔 올리고 절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이방선에서 올리는 고사다. 마을회장이 조라 술을 받아 한 번 돌리고 떡시루 위에 얹었다.

“우리 이방선 신위께서도 우리 일방선 신을 보좌해서 우리 마을이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 같이 절하고 제관은 조라 술을 제상아래, 바위에 좀 따르고 일방선에도 다시 가서 술을 바위에 좀 따른다.

“저쪽에도 바위에다 좀 부으시고 시루 위에 다시 얹어 두시고…”

끝으로 삼방선에 모두 가서 고사를 지낸다. “우리 우측을 돌봐주시는 우청룡 신주께서도 우리 마을이 편안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하시던지 합장을 하시던지…”

모두 두 번 절한다. 제관은 조라 술을 뒤쪽 바위에 따르고



다시 떡 시루 위에 올려 둔다.

조라 술을 바위에 붓는 것을 보고 누가 소리친다. “우리 동네 부~자 되게 해주십사 하고 빌어야지~”

이로서 삼방선 모두 고사는 끝났다.

“우리 아주머니들은 떡하고 좀 잘라주세요.”

여자 임원 한 분이 일방선 제상에서 소머리와 배, 감을 반쪽씩 잘라 바위 쪽으로 던져버린다.

조라 술도 부으면서 입 축언을 한다. 한손에 식칼 들고…

“많이 잡수시고 동네 편안하고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루떡도 아주 크게 썰어 바위위에 얹어두고 목례를 한다. 고기 적도 뭉텅 잘라 버리고.

“동네 편안하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타동으로 안 나가고 마을에서 잡아주세요.”

이방선에 가셔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도당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잡아주셔야지 그제 많이 드시고 동네 번창하게 해주시고 타동으로 안 나가게 해주시고 마을에서 잡아주세요.”

조라 술을 모두 다 부어버리고 배, 감, 적… 큼직하니 반씩 톱 잘라 바위 쪽으로 던지면서 내도록 같은 소원을 소리 내고 있다.

삼방선에서도 같은 소원이다.

제물을 골고루 다 잘라 버리면서 반절을 여러번 한다.



37



세 곳에서 푸짐한 고시례를 마치자 보존회장이 소지를 올리자고 부른다. 다 같이 모여서 소지를 올린다.

“도당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받들어 주시고
동네 주민들 타동으로 못나가게 다 잡아주세요.”

소지가 금방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자
“오우, 잘 올라간다.~” 며 좋아한다.

“원래 소지가 끝가지 잘 타서 잘 올라가야
잘 잡췄다고 하는 건데...”

소지를 모두 올린다음 짚 주저리와 바닥에 깔았던
한지를 불태운다.

제물을 치우고 챙기는 건 여자 임원 세분이 담당하고 있다. 짚불을 태우면서 이런저런 뒷얘기가 들린다. 사발에 조라 술 조금씩 따라 한 모금씩 음복하면서.

“여기다 소주 좀 타야겠다. 소주 조금 타.”

“야단 맞아. 저들만 소주 타먹고...”

“조라 술 조금만 해. 감준데 머.”

“이거 끓이면 감준데 머”

“내려가서 끓일 거예요.”

“떡 좀 주세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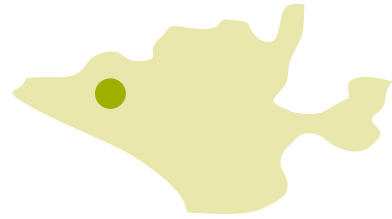
떡과 조라 술로 간단히 음복하고 마을회관으로 내려온다.
내일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본격적인 음복을 할 참이다.



전승의 주인공들

2016년 금년에는 당고사 보존회장 안만선 씨가 사회자 같은 집사를 맡고 경로당 총무 김유빈, 김유백, 정운식, 김창수, 김상철, 정운준 씨 등 남자 임원 다섯 명과 박명옥 부녀회장 등 여자 임원 세 명이 올라가 진행하였다.

고양 진발마을 상달고사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고봉 7통

“연중 전통 세시풍속이 살아있는 진발마을”

진발마을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에 속해있는 자연마을이다. 성석동은 일산구의 행정동인 고봉동에 속한 5개의 법정동 중 한 곳이다. 고봉동은 일산구 지역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가장 자연과 전통문화가 잘 남아있는 마을이다. 독산 봉수대, 홍이상의 묘역, 이천우, 계원군 묘역 등도 이곳에 자리해 있다. 또한 문봉서원, 용강서원도 고봉동에 있다.

그 중 성석동은 이 일대의 최고봉인 고봉산과 황룡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산이 많고 군부대 등으로 아파트와 대형 상가는 없으나 전원주택과 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고봉 7통으로 구분되는 진발마을 일대에는 기름진 들판과 유명한 가문의 선산과 세거지가 남아있다.

520여 년 전 전주 이 씨가 최초로 입향한 오랫골(오얏리골, 오리골), 그 후 500여 년 전에 순천 김 씨가 입향한 사당골, 함중 어 씨가 입향한 하무씨(함중 어 씨 세거지) 등 3개 마을에서 각각 씨족들이 정착했던 우물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지금은 타성받이와 외국인들이 유입해 있지만 여전히 산제사를 지내고 있는 전통마을이다. 특히, 민속놀이와 농요가 잘 보존된 ‘성석농악 진발두레보존회’가 있는 마을이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달맞이 축제를 열어 마을 운영자금을 조성한다. 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봄 산제사, 여름 북놀이(호미씻이), 가을 산제사, 추수 체험 행사 등 연중 전통 세시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예사마을은 아니지 싶다. 현재 고봉 7통에는 7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중 150명 정도가 원주민이고 그 외 250~300여 명의 군인가족과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고사와 집고사를 합쳐서 지내자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월 상달고사를 이어 가자고...”

이 마을의 경우 지금도 잘 전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의례인 산제사에 비해 예전부터 마을과 각 가정에서 지내던 10월 상달고사는 점차 소멸된 의례가 되었다. 금년에 유일하게 한 집에서만 상달 집고사를 지냈단다.

예전부터 마을에서는 정월에 동네 지신밟기를 하기 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마을고사를 먼저 지냈다. 마을고사를 지낼 때는 두레패를 초청하여 고사덕담을 하며 풍물을 울리고 축원을 하였다. 각 가정에서는 집고사를 지냈다. 먼저 우물에 떡을 가져다 놓고 축원을 하고 집안의 거실, 방, 부엌, 장독대 그리고 변소에도 떡을 조금씩 떼어놓고 축원 고사를 지냈던 것이다.

언젠가부터 이 고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상달 마을고사와 집고사를 한꺼번에 같이 지내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의 안녕과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라도 지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는

속내를 드러내었다. 조상 대대로 지내오던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마음 한쪽에 허전함이 있었던 모양이다.

통장의 마을 방송에서 전후사정을 알 수 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6시부터 마을회관에서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으로 10월 상달고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회관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 후 식사를 제공하오니, 식사를 하시고 떡을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진밭마을 상달고사 날짜는 음력 10월 초 토요일인 양력 11월 5일 저녁에 진행하였다. 장소는 고봉 7통 마을회관에서 지냈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시루떡, 북어, 배, 감, 사과 등의 과일이다. 돼지머리와 떡은 주문해서 배달로 받았다.

돼지머리를 상 가운데 올리고 양 옆으로 팔시루떡 두 시루를 두었다. 다섯 마리의 북어를 실타래로 묶어 시루 위에 얹었다. 사과와 감, 배를 홀수로 꾸밈하게 올리고 술은 막걸리를 썼다. 마을고사는 산제사와 달리 특별한 금기가 없다.

마을운영회에서는 며칠 전에 동네 입구 큰길과 회관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 부녀회에서는 당일 일찍부터 회관에서 제물과 음복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성석농악 진밭두레보존회’ 이계희(74세, 전주 이 씨 토박이) 회장이 마을 운영회, 청년회 대표들과 같이 고사상을 진설하고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동네 편하게 해주시고
집집이 다 편하게 도와주시고...”

고사는 마을회관 앞에 제상을 차리고 고사 덕담으로 문을 열었다. 고사소리는 ‘성석농악 진밭두레보존회’ 전 회장이자 고문인 김병철 씨가 맡았다.



먼저 제상에 술을 두 잔 올리고 절을 한 후 술잔의 술을 회관 건물에 나누어 버렸다.



제관의 절은 제일 먼저 마을 대표인 김수정 통장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어서 농악회 고문 신유희 씨가 절을 올린다. 그는 상여소리를 잘한다. 술잔을 올리면서 “동네 편안하게 해주시라고” 큰 소리로 덕담을 하고 술 한 잔 마시고 물러난다.

다음으로 현 농악회장인 이계희 씨가 술을 올리고 절한다. 이어서 마을운영회원, 단체장, 주민들이 각자 절을 올린다.



다들 돼지머리에 복채를 꼽고 바로 술 한 잔 받아 마시고 물러난다.

절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성스럽다. 고사덕담은 중간 중간 이어진다. “돈 붙일 사람 많아~ 더 해요, 고사덕담~” 돼지 입에 복채가 수북하다. 두래패들의 몫이다.



고사가 끝나면 참여한 주민들이 모여서 음복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때 음식을 만들어 파는 솜씨를 뽑내 부녀회원이 만든 식사가 푸짐하고 맛나다. 남은 음식은 고루 나누어 간다.

46

“일 년에 봄, 가을로 두 번, 한 번에 상화주, 중화주, 하화주 몫을 따로 지내는 산제사”

이 마을 산제사는 매년 봄, 가을에 두 번 지낸다. 고봉 산신령을 위하는 제사다. 봄에는 음력 4월 3일 해뜨기 전에 지내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가을 산제사는 음력 10월 3일로 고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마을에 쌍초상이 나서 달을 미루어 음력 11월 1일에 지냈다.

전주 이 씨, 순천 김 씨, 함종 어 씨가 입향한 세거지라 3개 마을에서 각각 화주를 내고 각각의 산제사가 같은 날 같이 지내면서 하나의 산제사가 된 듯싶다. 지금도 3개 마을에서 상, 중, 하화주를 선정하는데 타성이어도 해당 마을에서 뽑고 순서는 그 중 제일 연장자가 있는 마을 순으로 상, 중, 하화주를 맡는다.

상화주가 새벽에 제를 올리고 나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중화주가 제를 올린다. 제일 마지막에 지내는 하화주 때 마을사람들이 올라와 같이 참여하고 음복도 그 자리에서 한다. 축문도 화주마다 각각 올린다. 조라 술도 산제터에 담아 두고, 화주집 앞에는 향토를 뿌리는 등 금기 사항이 아주 많았단다. 지금도 조라는 산제단 옆에 담아둔다.



전승의 주인공들



진발마을은 전통마을이 갖추어야할 역사,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 비록 지금은 전원주택이나 공장들이 들어서서 도로변으로는 전통마을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있으나 연중 세시풍속과 마을공동체 의례, 전통예술 등 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승의 주역인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이 계신다.

위 사진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42호 성석농악 진발 두레보존회를 이끌어 온 주인공들이다. 왼쪽이 농악회 전 회장이자 고문 신유희(77세) 씨다. 그는 고사덕담 뿐 아니라 지경다지기소리도 잘한다. 그 옆이 현 회장인 이계희(74세) 씨. 그는 전주 이 씨 토박이로

고봉 7통 통장 김수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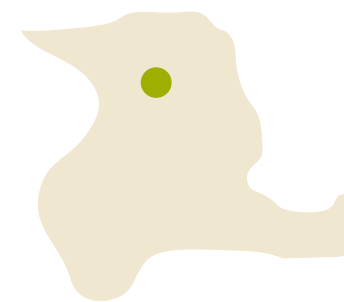


농사소리를 잘한다. 이분들이 고봉산 산제사의 전승에도 한몫함은 물론이다.

고봉 7통 통장이자 마을운영회 회장 김수정(62세) 씨. 순천 김 씨 토박이로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 토지공사를 정년퇴직하고 고향마을에 돌아와 마을과 종종 일에 바쁘다. 통장이 된지는 2년이 되었다. 마을 단합 활동을 조직화 하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사업으로 연중 마을 세시풍속 전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 운영자금도 확보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발마을 시월 상달고사에 참여한 주인공들이다. 노인회, 진발두레보존회, 마을운영회, 청년회, 반장들, 그리고 부녀회원들이다.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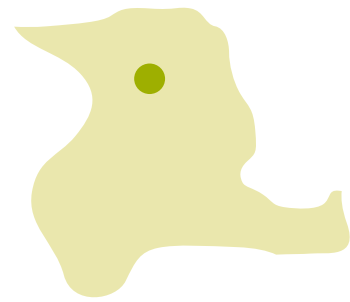


3 구리의 마을공동체 의례

3-1 갈매동 산치성

구리 갈매동 산치성

구리시 갈매동(경춘북로)



“기와집이 많기로 소문났던 마을”

구리시 갈매동은 경춘북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신내동, 남쪽으로는 검암산과 구릉산을 배경으로 동구릉과 인접한 지역이다. 광복 전까지는 순흥 안 씨와 벽진 이 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살았으며, 마을의 경제 수준이 높아서 인근에는 기와집이 많은 마을로 소문이 나있었다.

500년이 넘는 도당굿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이 곳은 갈매 마을과 마을 사람들 집집의 무탈함과 복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례(儀禮)다. 1995년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15호로 ‘갈매동도당굿보존회’가 기능보유자로 지정 되어있다.

1996년에만 해도 200여 가구가 갈매동도당굿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전형적인 농촌이었다는 것이 전승에 도움이 되었지 싶다.

그러나 2009년에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마을 토박이들은 타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들에게 구리시 전통의례를 보여주고자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은 새로 날을 잡아 마을 축제로 제를 지냈다.

“산치성이 제일 중요한 절차야!”

원래 갈매동도당굿은 ‘갈매동산치성도당굿’으로 주민들이 제관이 되어 유교식으로 엄숙하게 모시는 산치성이 제일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경기도무형문화재로 강신무인 무당이 진행하는 ‘갈매동도당굿’이 중심이 되어 지정되었다. 이후 무녀당주(巫女堂主)와 짬이당주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고, 당집도 추가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주민들은 늘, 아쉬움이 있었던 터였다.



갈매동도당굿의 전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삼화주 결정 → 마을회의 → 굿 비용 각출 → 산치성터와 당집 청소 → 도당터에 굿청 설치 → 굿날 택일 결정 → 역할 분담 → 당집에 날밤이 종이 부착 → 우물 청소 → 조라 술 빚기 → 안반고사 → 조포(두부) 올림 → 산치성 → 서낭맞이 → 유가(遊街 / 길놀이 / 가정 축원 / 집안고사) → 사거리 고사(거리굿) → 본굿(초부정, 가망청배, 조상거리, 신할머니, 별상, 대감놀이, 제석거리, 호구거리, 바라, 계면떡, 군웅거리, 걸립, 당굿, 뒷전)

갈매동산치성을 모시는 제당은 마을 뒷편 도당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당집 상량문 기록으로 보아 1935년 당집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산치성은 2009년 7월에 완공된 갈매동도당굿전수관 뒷마당에서 도당산을 바라보면서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갈매동도당굿도 이 전수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5일씩 하던 큰 굿이라 해마다는 못했지.”

갈매동도당굿은 2년에 한 번씩 봄에 지낸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난 10월 상달을 전후해서 도당굿을 하는 경기북부의 특징과는 달리, 농사일이 시작되는 봄에 굿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짝수해인 금년 봄에 이틀간 굿을 했다.

“옛말에 갈매동은 도당할아버지라 격년으로 지내는 데, 옆 마을인 담터는 도당할머니라 샘이 많아서 매년 지낸다.”는 말이 전한다.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제의를 주관할 삼화주를 뽑는다. 음력 3월 초하루에 제의 날을 정하는데 주로 음력 3월 3일로 고정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날인 음력 3월 2일 밤에 산치성을 지낸다. 그리고 도당굿은 3월 3일에 진행한다.

이번 갈매동산치성은 양력 8월 19일 금요일 밤 9시에 진행하였다. 안창덕 보존회장과 함께 새로 날을 잡고 여기저기 이주해 살고 있는 갈매동도당굿보존회 회원들과 오래도록 도당굿에 참여해온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단다. 현재 보존회 회원은 200명 정도다.

축문을 쓰고 있는 장면(이우희 씨)





“산제 잡을 때는
아무 고기도 안써. 통북어도
산 곳할 때나 놓지.”

이 마을에서도 역시나 제물을 구입할 때는 절대로 에누리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청량리 시장까지 가서 제수를 구입한 후, 지게에 지고 마을까지 걸어왔단다. 꽤 먼 거리인데도 정성으로 할 수 있었다.

갈매동산치성에 올리는 제물은 전해 내려오는 그림이 있다. 그대로 차리면 된다. 특징은 제물을 모두 생으로 쓴다는 것이다. 산신이 잡숫는 거라 고기는 전혀 쓰지 않는다. 다른 마을에서는 ‘산제사는 돼지’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돼지고기도 닭도 쓰지 않는다.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두부를 조포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자르지 않고 통으로 크게 올린다. 떡은 산시루라고 하여 흰 백설기를 작은 시루에 찌서 통째로 올린다. 꿀과 통후추 메밀 풀은 두 개씩 종지에 담았다. 제물은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뒹으로 두 개씩 올린다.

제물을 모두 제기에 담고 이것을 제상에 올리기 전까지 한지로 감싼다. 촛대와 초 등 모든 것을 포장하는 이 작업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한지를 잘라 제물을 담은 제기를 통째로 고깔모양으로 씌우는 것이다.



이 역시 정성의 표현 방식이지 싶다. 종이를 붙이는데는 메밀로 쓴 풀을 사용한다. 잘 붙지 않는데도 이 풀을 쓰는 이유가 있다. 메밀이 부정한 것을 예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제 지내기 전에 메밀 풀을 썰서 따로 떠두면 할머니들이 각자 한 숟가락씩 잡수셨다. 부정을 푸는 것이라고 했단다.



“입에 한지를 물고
입부정을 막으면서 엄숙하게 하는 데,
정성이지...”

제의에는 신부나 어린이가 있는 여성이나 달거리 중인 여성은 참여할 수 없다. 남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은 역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제물을 옮기는 사람이나 불을 밝히는 사람 등 산치성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을 막기 위해 입에 한지를 물고 참여해야만 한다. 산치성 과정은 제관이 세 번 절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한 후 다시 세 번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산치성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역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금년에 지낸 산치성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제관들은 제복을 갈아입고 제장을 준비한다. 불을 밝힐 횃대도 예전 방식 그대로 만들어 두었다. 이미 다들 입에 작은 한지를 물고 있다. 입 부정을 막는 것이며 모든 행동은 묵언의 눈짓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함봉’이라고 한다.



제장은 벽에 기대어 병풍을 치고 다리가 긴 제상을 놓고 그 앞에 돛자리를 깐다. 부인들은 제물을 옮기기 위해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방 안에 있는 숙수에게 드밀면 그가 제물을 담아준다. 입에 한지를 물고 줄을 지어 제상으로 가지고 간다. 제상 앞에서 다리를 구부려 몸을 낮추면 집사가 하나씩 상 위에 올리고 포장해둔 한지를 벗기고 진설한다. 이 과정이 총 20분 제사 시간 중 7분을 차지한다. 제물을 모두 차린 후 촛불을 켜고 진설을 마무리 한다.



제관이 제상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잔을 들면 왼쪽 집사가 먼저 술을 따른다. 헌관은 술잔을 세 번 돌린 후 집사에게 줘서 제상에 올린다. 이어서 오른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을 올린다.

갈매동산신당은 할아버지 도당이 기는 하지만 도당할머니 잔도 같이 올린다. 그래서 제물도 모두 두 그릇씩 올린다.



왼쪽 집사가 젓가락을 세 번 소리 내어 친다. 제관이 절을 하고 엎드려 있으면 왼쪽 집사가 독축을 한다. 시간이 2분 조금 더 걸린다. 제관도 절을 하고 일어선다. 집사들이 각각 술잔의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버린다.



제관은 다시 앉아서 왼쪽, 오른쪽 순서로 술을 올린다. 집사가 젓가락을 세 번 친 후 제관이 삼배한다. 다시 집사들이 술잔의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버린다. 제관은 다시 앉아서 반복한다.

56

축관이 축문을 소지한다. 젓가락으로 집어 끝까지 태우려고 애쓴다. 소지 후, 집사의 손짓으로 옆에 줄서있던 부인들이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옮긴다. 철상이 끝나고서야 입에

물엿던 한지를 버리고 말을 시작한다. 모두 입에 한지를 물로 진행한터라 아주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갈매동산치성은 제물준비부터 제례까지 ‘함봉’이라는 형식의 조용한 침묵이 정성의 표현인 것 같다. 제물준비도 정성스럽기 그지없다.

산치성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남은 제물은 땅에 묻고 돌아온다. 예전에는 떡과 제물을 골고루 집집마다 싸주었다. 이를 ‘반기’라고 했다.



숙수 안부식 씨

전승의 주인공들

57

이번 산치성은 15년째 갈매동도당굿보존회 회장이자 당주를 맡고 있는 안창덕 씨(순흥 안 씨 27대손)와 이우희 씨(65세, 50대부터 축문을 쓰고 축관을 맡아왔다.), 윤종각 씨(현관)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는 숙수는 오래도록 안부식 씨가 맡고 있다.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노인네들 하는 건지 알았지. 계승이 되더라구요.”

숙수 안부식 씨(77세)는 순흥 안 씨 26대조로 57세 때부터 숙수 일을 봐왔다. 5년 전에 퇴계원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부인이 먼저 부엌에서 제물을 손질해서 제기에 담아주면 한지로 고깔 포장을 한다. 금년에 처음으로 숙수 옆에서 일을 거든다는 윤종갑 씨(65세)가 같이 있다.





4 남양주의 마을공동체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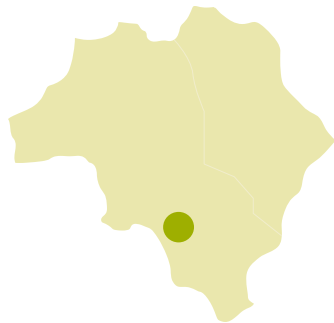
4-1 시우리마을 산신제

4-2 마진·조곡마을 군웅제와 산신제

4-3 중말 산제사

남양주 시우리마을 산신제

남양주시 조안면 외부읍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장수마을 등 마을의 특징을 말해주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다.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시우리 생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의 둘레길인 다산길 제 5코스가 지나가는 마을이니 주변 경관도 좋다. 마을초입에 교회가 있고 안쪽으로 마을회관이 있다. 전 씨, 한 씨, 박 씨, 이 씨 등 각성마을이다.

마을이 자리 잡은 뒷산 중턱 위쪽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산신당이 있다. 처음에는 초가지붕이었던 것을 1980년대 초에 다시 지었다. 두 칸 정도의 규모로 제관 네 명이 들어가면 딱 찬다. 전날 청년회원들이 마을에서부터 당에 올라오는 산길의 풀을 베고 제당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다.

제의는 매년 음력 8월 초하루 전날 밤에 지낸다. 초하루를 맞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2016년에는 음력 7월 29일, 양력 8월 31일 밤 7시경에 지냈다. 몇 해 전에만 해도 밤 11시가 넘어서 지냈다. 이 마을 산신은 ‘할머니 산신’ 이란다. 예전에는 광명부락과 반대쪽으로 동관부락이 있어서 양쪽에서 올라와 같이 만나서 지냈던 것을 지금은 광명부락에서만 주도하여 지내고 있다.

시우리 다섯 개반(윗말, 아랫말, 셋말 등)을 모두 합하면 15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중 토박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은 대부분 마을 산신제에 제의비용을 내고 있다. 마을 음복은 다음날 점심에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젊은 토박이 이근우 이장은 며칠째 마을 방송을 했다. 마을주변에 식당이 몇 집 있어서 제의 당일만이라도 닭 같은 생물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직접 나가서 장을 봐왔다. 제의경비는 ‘동네 돈’으로 하는데 대략 120~130만원 정도 든다.

사진으로 보는 의례 현장





마을에서 제당까지 제물을 지고 갈 때, 산 아래까지는 경운기로 가서 지게에 옮겨 싣고 올라갔다.

살짝 가파른 길에서 멈추며 꼭 한 번은 쉬어 가야 한다면서 담배를 한 모금 피운다.



제상차림에서 제일 중요한 제물은 황소머리다. 머리와 같이 네 족을 삶아 올리고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친다고 말한다. 할머니 산신 한 분이랴 흰쌀밥과 잡곡밥을 한 그릇씩 같이 올리는 것도 특색이다. 파인애플을 올린 것을 두고 누가 한마디 한다.



“제물은 지내는 사람들의 정성으로 올리는 것”이라면서 웃는다.

떡은 기지떡과 시루떡을 구입했다. 크게 세 켤씩 담고 과일도 한 개, 세 개씩 담았다. 홀수로 담아야 한다.





제관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이 맡았다. 마을을 대표하는 당연직이지 싶다. 이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제관복을 갖추어 입었다.

제의절차는 축관 안명복 씨가 알려 주는 대로 강신 → 참신 → 초헌(리장)(정저) → 독축 → 아헌(정저) → 종헌(정저) → 삼시정저 → 송농(헌다) → 철시복반 → 사신 → 소지올리기 → 철상 → 음복 순으로 진행되었다.

철상을 하면서 제물을 조금씩 한지에 담아 제당 앞에 두는 절차가 유교식에는 없다. 산신을 따라온 잡귀, 잡신, 동물들을 위한 배려로 긴 소지올림과 함께 마을 산치성의 정성인 것이다.



제례가 끝난 후 축관이 산제당 밖에서 소지를 올린다.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과 타지에 나가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제관들과 모든 참석자 개인들을 위해 기원하였다.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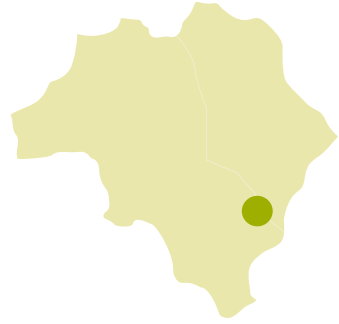
시우리 이근우(51세)이장은 할아버지께서 6년간, 아버지께서 6년간 그리고 형님이 한 번,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부터 이어서 이장 직을 맡고 있는 '대대로 이장 집안'이다. 할아버지가 이장을 하실 때부터 산치성을 따라다녔단다.

마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을 산치성이라는 전통문화를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굳다. 화물차 운영이 주업이다.

"군에 간 자손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동소지를 올리는 모습이 진지하다. 시우리 산치성에서 여러 해 축관을 맡고 있는 안명복 씨다. 그는 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마을 토박이로, 종친회 시제 등에서도 늘 축관을 도맡아한다. 산치성 절차도 안 씨가 알려주면서 진행하니 전형적인 유교식 기제사 절차를 따른다. 직접 축문과 제의절차를 적어왔다.

남양주 마진·조곡마을 군웅제와 산신제



남양주 조안면 진중 1리

조안면은 남양주시의 동남방에 위치하며 교통의 요충지인 것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유기농 주산단지다. 조안면의 법정동 중 한 곳인 진중 1리의 마진(마뜰, 진말), 조곡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례를 현장 기록하였다.

진중리의 지명유래를 보면 진말로 불리다가 일제초기 광주군 초부면에 속하고 양주군 와부면이 되면서 진중리(鎭中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조선중기 오랑캐를 막기 위해우리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란다. 진중 2리와는 같은 마을이었다가 분리되었다. 지금은 이 마을이 예봉산 할머니 산신을 위하고 진중 2리가 운길산 할아버지 산신을 위하는 제사를 따로 지내고 있다.

진중 1리에서는 매년 마을 산신제와 함께 변웅성 장군을 기리는 군웅제를 지내고 있다. 변 장군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천부사가 되어서 여주목사 원호와 협력하여 남한강에서 크게 적을 무찌른 장군이다. 당시 이 마을을 지켜준 까닭에 마을에서는 제를 지내 기리고 있단다. 진중 2리에 묘역이 있다. 마을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군웅제를 먼저 지낸다. 제물과 제관은 같은데 군웅제는 단잔단배로 끝낸다.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밤에 제를 올린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8시경에 제를 지냈다. 제를 올리는 장소는 예봉산 줄기인 마을 뒷산에 산제사 터가 마련되어 있다. 군웅제는 산 아래서 바로 상을 차리고 지내고 산제사는 좀더 위쪽에 터를 손질해둔 곳에 천막을 치고 제상을 차렸다.

제의를 제관과 마을이장 신승환 씨,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고 청년회와 노인회, 부녀회 등 주민이 모두 참여한다. 물론 제장에는 남자들이 올라가고 부녀회원들은 마을회관에서 음복 준비를 한다.

이 마을은 열한 살 때부터 시작하여 쉰 넷이 된 지금까지 허운길 씨가 제관과 축관을 맡고 있다.



제물 준비는 마을회관에서 부녀회가 맡아서 한다. 제사 후에 모두 다 같이하는 음복 음식도 같이 준비한다.

제일 큰 제물은 통돼지 한 마리다. 군웅제와 산제사를 따로 지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반으로 갈라서 미리 삶아 두었다. 조라 술은 화주가 직접 담아서 올린다. 제물도 각각 두 벌씩 장만하여 큰 그릇에 담아 두었다. 제상 진설에서 이 마을 제사 제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추 한 접시, 유과 한 접시, 감 세 개, 밤 한 접시, 두부 한 모, 물김치 한 그릇, 무채 볶음 한 접시, 간장, 육적(소고기 생것) 한 토막, 양념 북어 세 마리, 북어포 두 마리, 백설기 한 시루, 그리고 돼지 반 마리 삶은 것을 큰 그릇에 담아 제상 옆에 차렸다. 그 위에 식칼을 찔러 두었다. 빈 대접 위에 나무젓가락도 올려 둔다.

시간이 되면 제관과 남자 회원 10여명이 산제 터로 올라간다. 제관은 돗자리와 호롱불 모양의 손전등

불을 직접 들고 미리 앞서 가고 제물은 경운기에 싣고 간다. 큰 그릇에 담은 두 몫의 제물이 무거워 보인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포장길과 비포장 구간이 반반쯤 되는 것 같다. 경사진 길을 조금 올라가니 불빛이 보인다. 앞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침부터 제당을 정리하고 준비해둔 나무로 화톳불을 피우고 있다.

물건들을 내려서 바닥에 바로 상을 펴고 진설 한다. 촛불을 켜고 제물을 풀어 올리고, 접시에 담고, 돗자리를 깔고... 손발이 잘 맞아서인지 금방 마친다.

군웅제를 먼저 지낸다.

진설을 마친 제상 앞에 제관만 제복을 입고 집사 두 사람은 평상복 차림으로 선다.

제관이 주도적으로 제를 진행한다. 끝마치는 절을 할 때는 세 사람이 같이 한다. 술잔이 없어서 좀 기다렸다. 종지에 접시를 잔대 삼아 제를 시작한다.





- 제관은 무릎을 꿇고 술을 한 잔 따라 상에 올리고 잠시 상태를 멈춘다.
집사 두 사람은 제관 뒤쪽 양 옆에 서 있다.
- 제관은 술잔의 술을 세 번에 나누어 상 아래로 버리고 그 빈 잔을 상에 올린다.
- “시점!”이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자 왼쪽 사람이 나무 젓가락을 세 번 친다.
- 제관 혼자 재배 한다.
- 다시 술잔을 받아 술 한 잔을 올린다.
술잔을 향 위에 세 번 돌리고 상에 올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 시점 세 번 치고 세 사람이 다 같이 절을 두 번 한다.
단잔 단배로 간단히 끝난다.
- 제관이 집사들에게 작은 소리로 알려준다.

“뚝 네 군데 떼고, 떡도 네 군데 떼고…”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단잔으로 해요, 군웅제는…”



양쪽 집사들은 각각 돼지 귀는 칼로, 백설기는 손으로 조금씩 떼어서 네 방향으로 던졌다. 철상은 처음 담겼던 그 상태로 다시 담는다. 간장도 다시 플라스틱 병에 붓고… 초도 끄고…
“그대로 경운기에 실으면 되.”
셋이 금방 정리한다.

군웅제상을 정리하고 산제사 터로 옮겨 왔다.

산신제를 지낼 차례다.

화톳불 가에는 열댓 명이 모여 있다. 천막 안쪽으로 상을 펴고 진설한다. 제물은 군웅제상과 같다. 제관과 집사들도 같다.

· 제관은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켜고 재배한다.

· 술을 한 잔 따라 상에 올리고 잠시 상태를 멈춘다. 집사 두 사람은 제관 뒤쪽 양 옆에 서 있다.

· 제관은 술잔의 술을 내여 세 번에 나누어 상 아래로 버리고 상태를 잠시 멈춘다.

· 다시 술잔에 술을 따르고 향 위에 세 번 돌린 다음 상 위에 올린다.



- 제관은 향을 더 올리고 집사는 젓가락을 세 번 두드려 시접한다.
- 세 사람이 같이 재배한다.
- 집사가 내려주는 술잔을 받아 퇴주그릇에 붓고 다시 술을 한 잔 더 올린다.
- 향을 한 번 더 피우고 집사가 시접을 하고 다시 셋이 재배한다.
- 술잔을 내려 퇴주 그릇에 붓고 다시 술을 한 잔 더 올린다.
- 향을 피우고 잠시 멈춘다.



- 술잔을 내려 술을 퇴주그릇에 붓고 빈 잔을 올리고 잠시 멈춘다.
- 다시 술잔을 채우고 제관이 한문으로 된 축문을 독축한다.
- “유세차 병신 시월 병술 초 일일 병술삭. 중말 부락 대소민이 감소고우...”
- 이어서 축문을 접어 바로 소지한다.
- 축문을 소지하면서 입 축원을 소리 내어 한다.
- “진중리 마진 조곡부락 소지올시다.
마을주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는 일 마다 모두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계하시는 분들은 번창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모두 번창하시고 군대 간 아들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종이가 꽤 오래 잘 탄다. 끝부분에서는 일어나서 하늘로 날렸다.
저쪽에서 누군가 소리친다.

“천막 친 막을 제실로 지어 달라고
소원 좀 하세요~~”

다들 속으로 소지가 잘 타오르기를 기원하는 느낌이다.

- 제관은 다시 제상 앞에 앉았다. 집사가 시접을 한다.
- 세 사람이 재배하고 일어난다.
- 집사 두 사람은 칼로 돼지 귀를 자르고 손으로 떼어 네 방향으로 던진다.



“자 소지 올리러 오세요. 오신 분들은
꺄두 이리 오세요.
개인 소지부터 올리세요.”

72

집사들이 소지 종이를 나눠주고 각자 개인 소지부터 올린다. 촛불을 천막 밖에 내 놓았다. 이름을 먼저 호명하고 소원을 빈다.

“000입니다. 내년에는 편안하고 건강하고...”

“우리 아버지 소지부터 올리고...”

“000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누구야?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 욕심을 적게 해야지 무슨 그런 걸...”

“000 소지 올라갑니다. 성질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게 해 주세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다른 사람 소지도 많이 올려줘야 잘 되는거야.”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기원하면서 소지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이 장관이다.

가지고 내려갈 것은 담아두고 술과 안주 거리만 가
지고 불 옆으로 상을 옮겼다. 열댓명 정도가 모여들어
한잔씩 한다. 시끌벅적하다.



전승의 주인공들

간단히 음복하고 마을회관으로 내려오니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다.
노인회원 보다 청년회원들이 더 많아 보인다. 모두 40여명은 될 것 같다.

젊은 이장 신승환(47세, 오른쪽 가운데) 씨는 8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 토박이다. 새마을지도자 송낙철(49세) 씨와 당연직으로 산제사 일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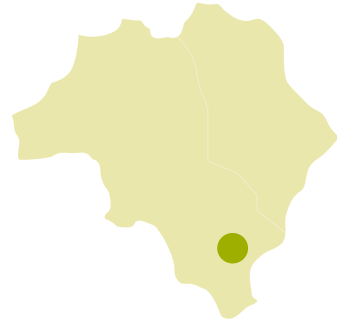
그는 오늘의 공을 제관 허운길(왼쪽 두 번째) 씨에게 돌렸다. 허운길
(54세) 씨는 11살 때부터 제관이자 축관을 맡고 있다. 어린 시절에 생
기 복덕을 보고 어르신들이 정했단다. “잘 타고 나서”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다.

73

남양주 중말 산제사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2리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2리 중말마을은 같은 날 군웅제와 산신제를 지내는 진중 1리 진말마을과 북한강을 접해 이웃해 있는 마을이다. 진중 1리가 예봉산 할머니 산신을 위하여 좀 더 이른 밤에 제를 지내고 진중 2리 중말마을은 운길산 할아버지 산신을 위한 산신제로 조금 더 늦게 지냈다.

진중 2리 마을공동체의례는 ‘산제사’라고 적고 ‘산제사’라고 부른다. 운길산 6부 능선쪽에 제사를 지내는 상석을 마련해 두었는데, ‘진중 2리 산제사 상석’이라고 적고 한문으로 된 축문에는 ‘운길산 축문’이라고만 썼다.

산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밤 11시에 지낸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30일 일요일 밤 11시에 지냈다. 제의 장소는 금년에 잘 정비하였는데, 포크 레인으로 길을 닦고 큰 대리석 상석을 가지고 올라왔다. 위하는 나무 아래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을 지고 와서 제물을 차렸던 자리였다. 향로석과 안내석까지 만들었다.

2016년 9월 13일 준공이라 새겼다.

까만 대리석에 새긴 안내문 내용이다.

안 내 문

이곳은 진중2리 마을 산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곳 주위에서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중 2 리 장

평소에는 상석 위에 올려 두었다가 제를 지낼 때는 옮길 수 있게 만들었다.



“제상을 세 뚝을 차리는 이유?”

진중 2리 산제사 제물은 세 뚝을 준비해야 한다. 돼지머리와 백설기, 시루떡은 크게 하나씩 준비하고 소간은 통으로 하나, 돼지고기는 생육 덩어리로 세 덩어리, 둥글게 만든 흰 절편 각 세 개씩 세 접시분으로 아홉 개, 밤, 대추, 감 한되씩, 통북어 세 마리를 준비한다. 막걸리는 구입해서 쓴다. 축문, 향, 초, 소지 종이, 제기 외에도 도마, 석쇠 등 산제사를 지낼때 필요한 물품이 많다. 마을회관 앞에서 봉고차에 준비물들을 실으면서 서로들 챙기고 확인하느라 부산하다.

잘 정비된 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제장 초입에서 멈췄다. 모두들 차에서 한 가지씩 들고 제장까지 옮긴다.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들어간다. 완전 어둡숙이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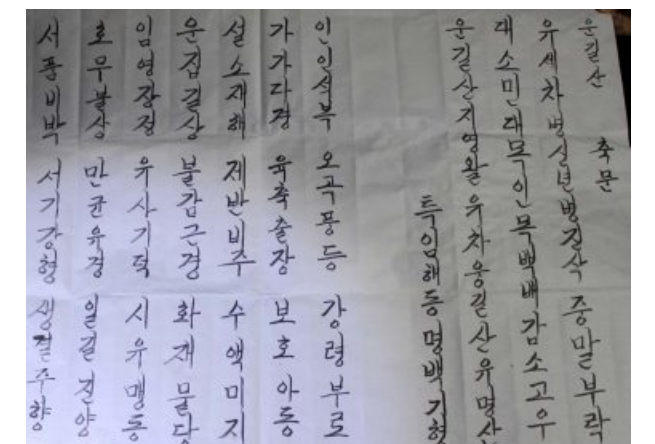
대리석 상석 바닥을 닦아내고 그 위에 한지를 깐다. 금년에 만들고 처음 제를 올린다는 얘기를 몇 번 한다. 상석 양쪽에 내어둔 구멍에 초부터 켜었다.

준비해온 제기와 제수를 꺼내서 바로 차린다. 통북어, 사과 등 비닐에 담긴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다.

감 다섯 개씩 세 접시. 통북어도 한 마리씩 세 접시, 모두 세 개씩 차려야 한다고 훈수들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선 듯 답이 없다.

100년도 더 전부터 어르신들이 해오시던 대로 하는 거란다.

축문은 한문을 한글로 큼직하게 썼다.





머리에 쓰는 렌턴을 제상에 비추면서 신중하게 진설하는 모습이 새롭다. 상석 위에 자리가 모자라는 것 같아 한참을 이리저리 옮겨본다.

도마 위에서 소간을 3등분해서 제기에 담는다. 밤, 대추도 세 접시, 둥근 절편도 세 개씩 세 접시 고기는 비닐만 벗겨서 덩어리 채 제기 접시에 올린다.

네모난 떡은 쟁반에 담아 오른쪽 안쪽으로 놓고 돼지머리도 비닐 벗겨 왼쪽 안쪽으로 놓았다. 먼저 상보다는 상석이 크단다.

“이게 어떻게 줄이 안 맞아?”

떡과 돼지머리도 다시 자리를 잡고 모든 진설이 끝나자 다들 만족한다.

제상차림에 모두 다 같이 모여들어 의견이 분분했기에 전 이장인 변석균(62세) 씨가 모두들에게 상차림을 잘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막걸리 한 잔 따르고, 다 잘됐지?”

“향은 몇 개 펴요?”

“다 펴 한 번에.”

“이걸 해야지 동네 좋은 일만 생기능거여~”

“돼지 입에 식칼 물려야 잦아?”

“다 땀으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저거, 소주는 갖고 내려와.”



이렇게 진설을 완성하고는 술 한 잔 올리고, 향과 촛불까지 켜두고 모두 아래에 피워둔 화톳불가로 내려간다. 밤 11시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와 제를 지낸다는 것이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열 명 정도, 불가에 둘러섰다. 청년회원들이 많다.





시간이 되자 다시 올라왔다.

제관이 제상 앞에 앉았다.
우집사에게 술을 한 잔 받아서 좌집사에
게 주자 제상 위에 올린다.

“절 몇 번 하는 거지?”

“세 번”

맨바닥에서 그냥 절한다.

제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축관은 마을 쪽을 보고서서 독축한다.

“축문을 읽겠습니다.”

“유세차 병신년 병진삭 중말 부락
제소민 대목인 목백배 감소고우
운길산 지영왈~”

축문이 끝나자 술잔을 내려 제관에게 주고
상 아래로 세군데 나누어 버리라고 한다.

“됐어. 내려가. 다 지냈어, 이게. 산제
지내는거는 한잔 올려.”

“이제 다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소지
올리는거야.”

그대로 두고 다시 또 모두 아래 화투불가
로 내려간다.

모두 다 다시 올라왔다.

제관이 축문을 소지하면서 큰소리로 입
축언을 한다.

“우리 마을 모두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아픈 사람 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우리 운길산 산신령님이 보우하사
다들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오신 분들 다 부자 되시고...”



“여기 오신 분들 먼저 하고 집안들 동네 사람 다
소지 올리세요~”

제상을 뒤로 하고 산 아래쪽을 향해 각자 소지를 올
린다.

“진중 2리 000 소지 올립니다.
우리 딸래미 딸, 아들 잘 낳게 해주십시오.”

“000 소지 올립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딸래미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진흥 2리 000 소지입니다. 000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소지가 60장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먼저 하고...”
“고시례 부터 해, 고시례 부터. 간도 좀 자르고...
다 조금씩 잘라, 조금씩만 떼서 던져.”

돼지 입에 물려두었던 칼로 돼지머리를 조금 잘라
제상 뒤로 던지고 떡도 손으로 조금 떼어 던진다.



“우리 큰집이 000소지 올립니다.”

“말을 해야 해, 그래야 알지”

“진중 2리 000소지 올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다른 집, 옆집거도 집집마다 다 해줘, 잘되게”

“진중 2리, 우리 큰집이 불천지 소지 올립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진중 2리 이장 표원석이 소지 올립니다. 그냥 동네
일이나 잘 보게 하여 주시옵고, 동네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들 그냥 건강하게 잘 하여
주시옵고, 돈이나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 로또가 진중리에서 누가 맞아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열 명 남짓 한 남자들이 각자 소지를 올리면서 본인
과 이웃 사람에 대한 기원을 한다. 건강, 화목, 돈, 손주,
자식에 대한 기원 소리가 많이 들린다.

진지함에 잠시 조용해 졌다가 다시 누군가의 우스개
소리에 다시 웃음바다가 된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준비해온 60장을 다 태우도록 짧고도 긴
시간이 흘렀다.



모두 철상하고 내려와 아래쪽 화톳불에
모였다. 불 한쪽에 석쇠를 얹고 돼지고기를
구워 술 한 잔씩 하는 것으로 음복을 하고
산제사를 마무리 한다. 얼추 하루가 다 넘어
간다.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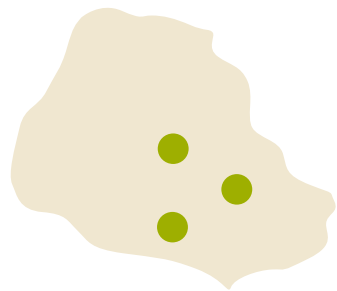
산제사에는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그리고 마을주
민들이 모두 참석한다. 제관은 늘 마을이장 표원석 씨가 했
는데 금년에는 장모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새마
을지도자 안선규 씨가 제관을 맡았다. 축관은 이제곤(60세,
전 와부읍 부면장) 씨가 맡았다. 전전 이장 변석균(62세) 씨
도 아주 예전부터 산제사 일을 해 오신 터라 제상차림이며
절차며 산신제 진행을 주도했다.

행단 제 제주 이 성내 백 초하루

두 손 모아 기원하옵노다.
니 백배를 다투십시어.
귀 고귀한 수 수 노릇 영수님 제서 기를 불의 주시
의 고쳐를 열심마 하부리니 이십니다. 푸른 꿈이
의 신만 시미의 노릇 부양인 한 삼림 위해 희망
의 지암, 박 영도, 야고보, 나의 노릇의 원시 원시
이행나루 영수님 시의 어 채창신장민 장영미시
오귀신장인의 행차를 성대하게 재현합니다.
해 자각이 되고 노릇을 세워 병조판서와 유교와
귀소자각을 기리니 자 우리시 시민의 행사로
오귀신장인의 행차를 성대하게 재현합니다.
의 상영입니다. 어복팔십년 전 영수님의 기
를 반나래와 사영수님의 품에서 무술의 연마
해 자각이 되고 노릇을 세워 병조판서와 유교와
귀소자각을 기리니 자 우리시 시민의 행사로
오귀신장인의 행차를 성대하게 재현합니다.
이행나루 영수님 시의 어 채창신장민 장영미시
의 지암, 박 영도, 야고보, 나의 노릇의 원시 원시
의 신만 시미의 노릇 부양인 한 삼림 위해 희망
의 고쳐를 열심마 하부리니 이십니다. 푸른 꿈이
의 고귀한 수 수 노릇 영수님 제서 기를 불의 주시
니 백배를 다투십시어.
두 손 모아 기원하옵노다.

지나간 나날의 화전영 광대모 볼수가 있습니다
다. 이행나루 영수님 대대로 전승해온 사당
광대모의 표상이니 노릇의 신만 시민의 화합
의 상영입니다. 어복팔십년 전 영수님의 기
를 반나래와 사영수님의 품에서 무술의 연마
해 자각이 되고 노릇을 세워 병조판서와 유교와
귀소자각을 기리니 자 우리시 시민의 행사로
오귀신장인의 행차를 성대하게 재현합니다.
이행나루 영수님 시의 어 채창신장민 장영미시
의 지암, 박 영도, 야고보, 나의 노릇의 원시 원시
의 신만 시미의 노릇 부양인 한 삼림 위해 희망
의 고쳐를 열심마 하부리니 이십니다. 푸른 꿈이
의 고귀한 수 수 노릇 영수님 제서 기를 불의 주시
니 백배를 다투십시어.
두 손 모아 기원하옵노다.

행단 제 제주 이 성내 백 초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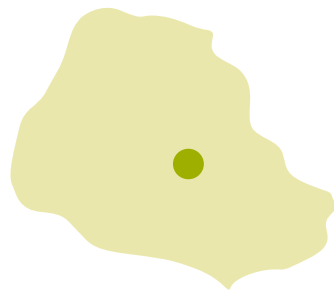


5 동두천의 마을공동체 의례

- 5-1 결산리 산신제
- 5-2 기촌마을 산제사
- 5-3 은행나무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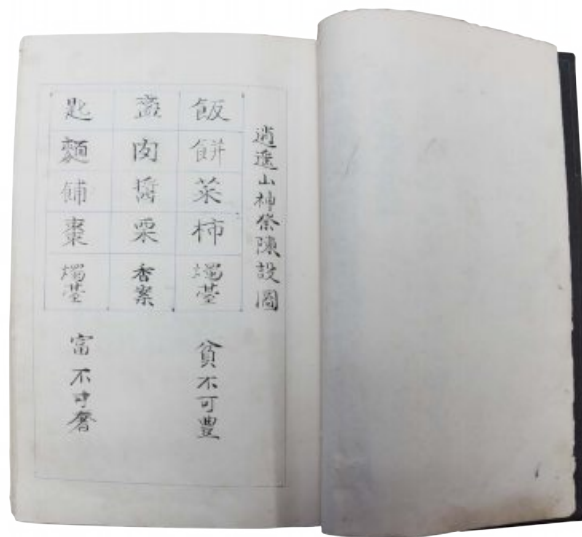
동두천 결산리 산신제

동두천시 결산동 결산리



“가난해도 풍성하게 차리고 부자여도 검소하게 지내라~”

동두천시 결산리 산제사를 기록한 장부 중 ‘소요산신제진설도’에 적혀있는 말이다. 제물을 준비하는 지침으로 삼으라고 써두었던다. 마을사람들은 ‘결산리 산제사’라고 말하고 기록에는 ‘소요산신제’라고 적혀있다. 같은 마을 의례다.



미군부대를 통해서 마을로 왕래했던
‘육지의 섬’ 결산리.

동두천시 결산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보산동에 속하고 법정동으로 보산동과 결산동이 속해있다. 한국전쟁 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조성된 보안리와 기존 유산마을의 이름을 따서 보산동이라 하였다. 동두천시청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포천시와 경계를 이루

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6.25이후에 자리 잡은 미군부대를 통과해야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육지의 섬’으로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왕방산 국제 MTB코스에 연결되는 결산동 임도가 나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지는 않다. 그 길 왼쪽으로 빠져서 계곡 끝부분까지 돌아가면 결산마을행복학습관이라고 간판을 붙인 마을회관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마을에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원 분원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지 싶다. 이 분원에서는 매년 5월 11일 김승록 선생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김승록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김좌진 장군 휘하에서 포병으로 활동했으며,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해 역사적 승리에 기여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은 전국 각지를 전전하다 6·25 이후 동두천시 결산동에 정착했고 이 마을에 묘역이 있다.

“제사지내는 데도 편하게 옮겼어.
개인 산인데...”

결산리 산신제는 마을이 자리 잡은 계곡 끝부분 산 초입에 산제사 터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바위절벽아래 작은 터를 손질하고 상을 들고 와서 펴고 상차림을 한다. 더 높은 산속에 있던 자리를 이곳으로 옮겼단다.

“이제는 저녁 5시면 지내고 내려와서
동네사람 다 모여서 음복하고 친목도모하면
그게 중요하지 뭐!”

결산리 산신제는 매년 음력 9월 9일로 고정되어 있다. 다만 밤 12시에 지내던 시간은 오후 5시로 앞당겼다. 10여년쯤 된 일이다. 산신제를 지내고 다 같이 마을회관에서 음복하기가 편해졌다. 제의준비는 결산마을 행복학습관인 마을회관에서 마을부인들과 산제사를 주관하는 남자 어르신들이 이른 시간부터 모여 진행한다. 회관 게시판에는 ‘산제 모실 분

명단’이 붙어 있어 그 내막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산제 모실 분과 금년에 모실 분, 내년 예상 명단까지 적었다. 각각 5~6명씩으로 몇 해 전부터 윗동네(1반)부터 시작해서 아랫동네(2반)까지 순서대로 지정하고 있다.

2016년인 금년에는 노수일, 윤상춘, 고유성, 권순식, 최영호, 전묘순 등 6명이 산제 모실 분이다. 제원의 역할 분정은 하지 않았으나 제물과 음복 준비를 하고 제를 지낼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여자들은 산제당에 올라가지 않고 회관에서 제물, 음복음식을 장만한다. 화주역인 샘이다. 정민호 씨는 산신제 참사록을 보면서 제의절차를 알려주고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다. 축관이 없을 때는 독축도 하였다.

『소요산신제참사록(逍遙山神祭參祀錄)』에는 유사임원을 제관 1인, 대축 1인, 화주 1인, 화덕 2인으로 적고 있다. 이후 기록에 보면 화덕은 1~3인으로 변화가 있다가 2000년 기록에는 화주, 헌관, 대축만 각 1인씩 적고 있다. 화덕이 하는 일은 밤 12시에 제를 지낼 때 산제당에 미리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피우는 역할인데, 이후 일찍 지내고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치가 않게 되었다.



『소요산신제참사록』에 있는
호기대로 지내는 ‘단잔 단배’

산제사는 정민호 씨가 가지고 올라온 『소요산신제참사록』의 흠글을 보면서 적혀있는 대로 지낸다. 먼저 큰소리로 한문으로 적힌 흠글을 읽고 나서 작은 소리로 제관들에게 방법을 설명한다.

- 형님, 재배 하세요.
- 향불 켜고 재배하세요.
- 잔 올리고 재배하세요.
- 잔 올리고 다 같이 재배하세요.
- 순가락 세 번 치고 밥뚜껑 여세요.
- 축문 읽으세요.
- 일어나세요.
- 형님, 절 두 번 하세요.
- 순가락 물리시고 밥뚜껑 덮으세요.
- 모두 다 같이 재배하세요.
- 예, 끝났어요.

"산신은 호식이라 야채는 많이 안올려.
호랑이는 돼지고기를 좋아해."

이 마을 산제사는 지금도 예전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1965년 9월 9일부터 산제사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소요산신제참사록(逍遙山神祭參祀錄)』이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지 싶다. 이 기록에 있는 「소요산신제진설도」에 적어둔 상차림이다.

국수, 떡, 나물, 포, 찢대, 잔,
고기, 간장, 밤, 향안, 숟가락,
국수, 밥, 대추, 찢대

그리고 여기에 적어두었다.
가난해도 풍성하게 차리고 부유해도 검소하게 차리
라고.

기록에 있는 진설도에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돼지머리와 함께 돼지 족 네 개를 올렸다. 돼지 한 마리인 셈이다. 배, 감, 사과를 각각 한 개씩 통째로 올렸다. 떡은 백설기로 시루째 올렸다. 쌀 두 되 반을 사서 한 되는 백설기를 찌고 한 되 반은 조라 술을 담는데 쓴다. 조라는 10여 년 전부터 담지 않았는데 음력 9월 9일이면 이미 추워서 술이 잘 익지 않았다.



실제 제를 지내는 시간은 10분이 채 안됐다. 산짐승 먹으라고 한지를 묶은 북어는 절벽에 걸어두었다.

축문소지와 함께 참석자들도 모두 소지를 올린다.
 “총각들은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어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올 해 우리 어머니 구십이신데 10년 더 살아서 백세 살라고 빕니다~.”

곳곳에서 소원을 말하면서 소지를 올리는 소리로 분주하다.

음복은 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모두 정리하고 내려왔다. 회관에는 이미 음복상이 차려져 있었다.

“북어 매달아 놔야 산짐승들이 먹지, 그게 산신제지 뭐~.”

“산제사 다 끝났어, 얼릉와~.”

마을사람들이 자리 잡으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한다. 오늘 통장(보산동 7통)은 산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부정한 것을 봐서 못 왔단다. 모두들 이해하는 상황이다. 마을에 50대 남자는 한 명밖에 없어서 청년회가 없는 마을인 것도 인상적이다.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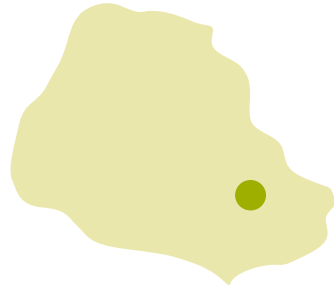
정민호 씨(65세)는 고조부 대에 이 마을로 들어와 정착한 토박이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장 등 마을 일을 많이 보냈다. 2006년 부친이신 정용학 씨가 83세에 돌아가신 후 『소요산신제참사록(逍遙山神祭參祀錄)』을 물려받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해마다 산신제를 거를 수가 없다.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 핵심 회원으로 매년 5월 11일 김승록선생 추모제에서도 축문과 진행을 맡고 있다.

2016년 제장에는 노수일(75세, 현 노인회장, 현관), 윤상춘(70세, 축관) 그리고 정민호(65세, 집례)와 박영석(56세, 주민) 등 네 사람이 올라가 산제사를 지냈다.



동두천 기촌마을 산제사

동두천 불현동 29통



“내 동네 잘되라고 하는 거지~.”

기촌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 동두천시 불현동 29통에 속한다. 불현동에는 법정동으로 생연동, 지행동, 광암동, 탑동이 속해 있다. 3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동두천시의 관문으로 광암동, 탑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과 생연동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자연녹지 등 개발제한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불현동에는 9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그 중 지행동 행단제와 광암동 기촌마을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왕방, 조산, 동점, 장림, 재골 등 자연마을마다 산신제를 지냈던 곳이었다. 특히, 장림마을은 장 씨네가 느티나무에서, 최 씨네는 돌부처에서 씨족끼리 따로 제사를 지냈던 마을이다.

불현동 29통은 8개 반이 있어 반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제를 지내고 있다. “왜정시대에 이런 거 다 없앨 때도 우리 동네는 유지해 내려왔다.”는 것과 예전 방식 그대로 제를 지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산제사 준비와 음복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할머니방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광암동노인회는 할아버지 노인회원 40명, 할머니 노인회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 “산제사”는 매년 양력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6시로 고정되었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29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3년 전, 이영민 씨가 통장이 되면서 바꾼 것이다. 저녁 무렵에 해가 지면 바로 제를 드리는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음복 저녁에 시간을 맞춘 것이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네 개의 돼지 족을 올리고 돼지고기 네 근으로는 적을 굽는다. 이렇게 하면 돼지 한 마리를 제물로 쓰는 것과 같단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돼지머리와 족 네 개, 정육 네 근, 콩팥만 제사에 올리고 나머지는 집집마다 구입해 갔다. 떡은 백설기를 시루 썰 올리고 삼색 과일과 밤, 대추, 판두부, 무나물, 탕, 밥을 올린다.





예전에는 제사를 다 지내고 제당 앞에 무쇠 솥을 걸고 돼지 뼈와 선지, 배추 등을 넣고 국을 끓여서 다 같이 먹고 떡도 나누어 싸가지고 내려왔다. 지금은 제사지내러 올라가면 다목적회관에 상을 차린다. 남자 어르신들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으로 제를 지내고 내려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음복을 한다.

마을 어르신들과 제사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제상에 올렸던 돼지와 떡, 과일 등을 싸서 보낸다.

산제비용은 각 호당 성의껏 거두어서 한다. 3천원을 내던 때부터 5천원을 내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1만원씩을 각 반장들에게 낸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특별히 뭇을 따로 내서 이름을 적는다. 제비를 낸 사람은 큰 한지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한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기촌마을 산제당은 마을이 자리 잡은 뒷산 중턱쯤에 돌담과 슬레이트 지붕을 인 두 칸 정도 되는 산제당이 다. 바로 옆에 큰 향나무가 있어 제의 후에 나무 아래에 밥과 탕, 무채를 묻는다. 오래전부터 “위하는 나무”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산제사를 주관해 왔던 홍종길 씨는 1930년대부터 산신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제실이 없어서 큰 향나무아래에서 밤 12시에 지냈다. 6.25사변 후 제실을 짓자는 의견을 모아 초가로 지었던 것을 기와지붕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있다. 얇은 구들장 돌로 쌓은 벽체가 인상적이다. 현재 마을에서는 사유지에 있는 제당을 계곡 안쪽으로 옮기고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부터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기촌마을 산제사에는 제관과 축관, 시주, 화주를 선정한다. 제관은 산제사지내는 날 최고 어른이 맡는데 금년에는 오영식 전 노인회장이 맡았다. 축관은 현 노인회장인 목영하 씨가, 제장에 불을 피우고 전깃줄을 연결하는 등의 일을 맡는 화부, 화주는 새마을지도자인 정지원 씨가 맡았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차리는 역할인 시주는 통장의 남편인 한주만 씨가 몇 해 째 일을 하고 있다. 통장 이영민 씨는 여자라 산제당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마을 중장년 몇이 중심이 되어 제물을 옮기고 제당 안에 병풍을 치고 상을 놓고 불을 밝힌다. 시주가 중심이 되어 제물을 진설하는 동안, 새마을지도자는 전, 현직 노인회장과 함께 미리 적어온 축문과 소지 대상자인 시주자 명단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진설이 끝나면 향을 피우고 제주가 술을 한 잔 올리고 모두 같이 절한다. 수저를 세 번 소리 내어 친 다음 제물 위에 올려두고 제주가 술을 올리고 절한다. 그리고 독축. 축문을 세 번 소리 높여 읽은 후 침착하고 물러난다.

이 마을 산제사의 특징은 제관의 단잔 단배이후 독축이 세 번이라는 점이다. 축관은 축문을 세 번 반복하는데 약 5분이 소요되었다.

이웃동네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자 젊은 지도자는 마을 어르신이 하라고 한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조용히 웃는다. 간절한 소원을 산신에 정성껏 고하는 이 마을만의 방식인 듯하다.

소지는 제비를 낸 사람들 모두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럿이 둘러 앉아 자리를 잡는다. 축관이 시주자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받아서 호명한 뒤 소지를 올린다.

소지 순서는 통장, 지관, 축관, 화부를 맡은 새마을 지도자, 시주를 맡은 통장의 남편 그리고 기부 업체 이름 몇 건을 순서대로 올린다. 다음으로는 군대에 간 이 들의 이름이 먼저 호명된다. 이어서 주민 개개인의 소지를 올리는데 금년에는 모두 58명이었다.



재배가 끝나면 한편에서는 소지를 올리기 위해 소지 종이를 한 장씩 접기 시작하고 한편에서는 철상과 함께 고시례를 진행한다. 시주가 네 장의 한지를 바닥에 펴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 네모나게 접어

서 한지에 싣는다. 이것을 뿔이 나누어 제당 앞뒤, 양 옆 등 네 방향에 땅을 조금파고 묻는다.





96



제상에 올렸던 북어는 한지를 감아 제당
상량에 묶어둔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
게 없어진다. 밥과 탕도 향나무 아래에
묻는다.



새마을지도자는 제당 뒤쪽 지붕과 벽 사
이 틈새공간에 지난해 끼워둔 축문을
불태우고 금년에 기원 드린 축문을 끼워
두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물음에 “옛
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까...”라고 답한다. 뒷마무리 등 이 마을
에서 예전방식의 산제사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전승의 주인공들

홍종길 씨(70세)는 여러 해 동안 산제사를 주도하며
축관을 맡았던 터라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축문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여자 이장인
이영민 씨가 일을 맡고부터는 축문에 토를 달아서
젊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넘겨줬다. 60년이 넘게
이 곳에서 새마을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부터 8년간 통장을 하고 노인회장도 지내면서
산제사를 주도했다. 그의 부인 김호영 씨(67세)는
58세부터 할머니노인회 총무 일을 보고 있으며 산
제사 제물준비가 익숙하다.

2~3년 전부터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중심이
되어 산제사의 전승에 애쓰고 있다. 여성 통장 이영민 씨
는 금년이 이장직을 맡은 지 3년째다. 23세 때부터
새마을부녀회장을 시작으로 27년째 계속 일을 맡
고 있는 이 마을 토박이다. 18세 때부터 마을 반장을
맡아 했다는 남편 한주만 씨와는 ‘이웃 혼인’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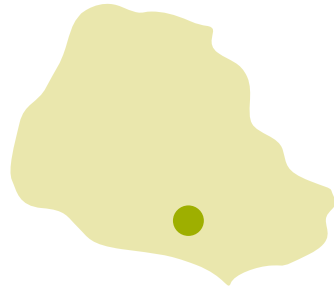
사이다. 이번 산제사에서 부인은 제물을 준비하고
남편은 산제당에서 제물 진설을 하고 철상을 하고
고시레 등을 진행했다.

축문을 적고 소지 명단을 미리 작성하고 또 현장에
서 수정하는 일 등은 새마을지도자인 정지원 씨가
진행한다. 마을 어르신들이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의논
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97

동두천 은행나무 고사

동두천 불현동 23통
(지행동) 사당골



“마을을 지켜 주었다는 천년의 전설이 있는 사당골 은행나무”

지행동에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다. 나무를 둘러서 보호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었다. 옆에는 이 나무가 보호수라는 안내판과 ‘사당골 수호비’를 든든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세워두었다. ‘마을 산천은 변해도 마을 미풍이 계승되고 화목한 이웃과 평안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당골 주민 합배. 임진년 시월 초하루’라고 새겼다. 그리고 그 뒷면에 ‘사당골의 유래’를 적어두었다.

사당골 마을 은행나무는 마을을 지켜 주었다는 천년의 전설이 있어 현재도 마을 수호목으로 숭상하고 있으나 문헌상 세거 기록은 1150년대에 온양 방씨가 거주하였으며 고려 의종시 상서령 벼슬을 한 방휘진이 1177년에 이 마을에 묻히고 이후에 사당이 건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당골이라 한 것은 1420년대에는 평해 황 씨, 1430년대에는 충주 어 씨가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사당이 있는 마을이라 사당골이라 하였다 한다. ...

2012년 11월 14일
사당골마을회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비문이다. 현재 은행나무와 바로 접해서 새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나무 앞에는 또 다른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장군목의 눈물(은행나무)’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내용은 조선 초기 북벌의 명장으로 알려진 어유소 장군이 어렸을 적 이곳에서 무예를 익혔던 곳인데, 장군이 죽자 한 달 동안 나무가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단다. 고종 인산일 바로 직전에는 맑은 날 갑자기 벼락이 쳐 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전설을 적어두었다. 천년이 되었다는 나무 아래서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는 것이 낫설지 않다.



지행동 마을공동체의례인 사당골 은행나무고사, 행단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11시로 고정되어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일요일에 행했다. 현재 제의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여 년 전에 동네 청년들이 마을을 단합할 만한 구실을 찾던 중에 느티나무에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시작된 제의가 어유소 장군과 관련이 있는 마을 제이라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제의절차에 식순이 생겼나보다. 이 역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단다.

금년에는 제의준비가 좀 더 유난하고 화려하다. 해마다 식전 후 분위기를 맡아주고 있는 ‘동두네 옛소리보존회’에서 사용하는 오방기를 제단 주위에 꽂았다. 헌관들이 손을 씻을 관세대도 준비해 두었다.

제물차림에 특별한 금기사향은 없어 보인다. 팔시루 떡은 방앗간에 주문하였고 술은 구입하였다. 제장을 정비하고 제상을 진설하고 나면 제관들이 제복을 갈아입고 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그 사이 식전행사로 ‘동두천 옛소리보존회’의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서 제가 시작된다.

100 사회 인사

23통 사당골마을 통장 인사

개회

지금으로부터 병신년도 행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단제는 사당골 마을에 예로부터 전래되어 온 마을 제천의식의 큰 행사로서 은행나무 영수님께 우리시와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소원을 기원하는 고사제입니다.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함이 마땅한 도리이나 몇 분만 소개해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당골 부락 노인회장 이경훈 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노인회장 박은희 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행단제 고문이신 박양희 고문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시정을 맡아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동두천시의회 000를 소개합니다. 경기도의회 박병수 도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시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두천문화원 정경철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순서 없이 몇 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에 의거 소개)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나오시어 식전행사를 해주신 동두내 옛소리보존회 김순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일괄 소개해 드리니 큰 박수부탁드립니다.

식순에 의거 비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나리는 기우제가 아니라 우리 시와 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비나리입니다. 그럼 비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후)

그럼 오늘의 주제인 행단제 은행나무고사를 초헌관에는 우리마을 노인회장인신 이경훈 님 아헌관에는 우리 시 시장이신 오세창 님 종헌관에는 동두천문화원장이신 정경철 님 첨헌관에는 000님 축관에는 우리 마을 이창수 님 좌집사에는 우리 마을 이일재 님 우집사에는 우리 마을 이상재 님 집례관에는 우리 마을 박찬희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분향과 강신이 있겠습니다.

분향은 천신에 대한 예이고 강신은 지신에 대한 예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초헌관의 강신이 있으신 후 모두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영수님께 분~향~

은행나무 영수님께 강~신~ (모두 재배)

이어서 초헌관의 전작이 있겠습니다.





초헌관 전~ 작~

축관의 독축이 있겠습니다. 모두 부복하여 주십시오.

독~ 축~ (초헌관만 재배하십시오)

이어서 아헌관의 전작이 있겠습니다.

아헌관 전~ 작~

이어서 종헌관의 전작이 있겠습니다.

종헌관 전~ 작~

마지막으로 참헌관의 전작이 있겠습니다.

참헌관 전~ 작~

지금까지 은행나무 영수님께 복을 빌고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예를 마치고 다음은 망요와 가요가 있겠습니다. 망요는 초헌관이 축문을 내우며 영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망~ 요~

가요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소지를 태우는 의식입니다. 소지를 태우는 것은 개인의 복을 영수님께 빌며 또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우리 영험하신 은행나무 영수님께서는 한 가지 소원만은 꼭 들어주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요~



104



끝으로 음복이 있겠습니다.
음복을 하시면 가정과 직장 위에 만복을 주신다니 단
으로 나오셔서 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어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병신년 행단제 은행나무고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
하였습니다. 소찬이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한 잔”

은행나무 아래 제단에서 제관들의 절차가 끝나자
마을 어르신들만 별도로 ‘사당골 수호비’ 앞에서
북어와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온전히 마을만
을 위한 주민들의 절차다. 짧지만 정성이 가득 묻어
나는 순간이었다. 이 후에 제관들이 모두 물러나고
나서야 은행나무 제상으로 올라가 절을 한다.



‘동구네 옛소리보존회’의 뒷풀이로 한바탕 놀고
모두 다 음복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전승의 주인공들

지행동 사당골 노인회장 이경훈 님이다. 임진년
(2012년)에 사당골 마을회에서 세운 ‘사당골 수호
비’에 부회장으로 적혀있다. 행단제의 진행부터
절차 시나리오, 축문인 ‘행단제 치성문’까지 직접
작성했다. 치성문의 문장에서 간절함이 느껴진다.
내용에서도 옛것과 현재의 상황이 잘 어우러져 있
다. 마을 주민과, 마을과 시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성
스러운 마음의 결과지 싶다.

105





6 양주의 마을공동체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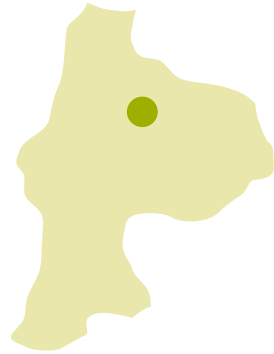
6-1 향동마을 산신제

6-2 땡골마을 산제사

6-3 상가엮마을 산제사

양주 항동마을 산제사

양주 은현면 도하 1리



항동마을은 양주 은현면 도하 1리에 속한다. 은현면은 양주시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현재 12개리로 편성되어 있다. 도하리는 도락산 아래 마을이라 도하동이라고 한다. 도락산(441m)은 서울 북한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의 줄기에 있으며 불국산과 바로 이웃하고 있다. 코스가 다양하고 난이도도 다채로우며 경치도 아름답다. 항동마을에서는 이 산을 바라고 산신제를 지낸다.

항동 마을 주민은 80가구 정도로 원주민이 대략 50가구, 전원주택 등 이주민이 30가구 정도 된다. 항동마을 노인회원은 여성 40명, 남성 25~30명 정도란다. 회관이 따로 있어서 각각 모인다. 60세까지가 청년회원인데 30명 정도 된다. 부녀회원도 30~40명 정도란다. 2004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고, 마을회관 옆에는 수령 200년이 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산신제 제기함과 상여를 보관하고 있다.

“산신제는 제가끔 제정성이니까,
자기 정성이야!”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몇 백 년 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곳인데 지난해에는 사유지로 변경되어 땅 소유주와 분쟁이 있었다. 그 해 산신제를 지내지 못했다. 조금 아래 터를 공원부지로 확보하고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6.25때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위하는 나무였던 큰 나무는 못 건드렸는데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나무를 없앴다. 제단을 만든 상들은 예전 것을 옮겨둔 것이다.



산신제는 매년 음력 9월 1일로 고정되어 있다. 2016년에는 10월 1일 오후 4시에 지냈다. 산신제는 이천만(66세, 노인회 총무, 지관) 씨, 조운용(72세, 현 노인회장) 씨, 이복열(78세, 전 노인회장) 씨가 진행하였다. 원래는 마을에 한문과 서예를 잘 하는 구순이 되신 분이 계셔서 해당되는 해의 띠를 가려 제관을 정해 주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집안이 무탈한 사람으로 세 명을 정하고 있다. 축문은 원본을 현 이장이 전수 받아 매년 일자만 달리 적어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산신제는 내 정성”이라고 하여 동네 돈이 있어도 집집마다 제비를 냈다. 화주 집 대문 위에는 인줄을 걸고 문 옆에 황토를 두 무더기두면 동네가 다 알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했단다. 날을 잡아두었다가도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만큼 정성껏 제를 올렸단다. 제의비용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며 이장과 지역개발위원회의 주관으로 집행한다.

주요제물은 소머리, 사과, 배, 밤, 통북어 포, 백설기, 조라 술을 올린다. 소머리는 당연히 황소로 미리 주문하여 배달 받았다. 생으로 받아 이장덕 식당에서 피만 없앨 정도로 살짝 데쳤다. 백설기는 마을회관

에서 할머니 노인회장이 직접 쪄다. 밤, 대추 등의 제수는 이장이 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하여 미리 씻어 두었다.





산신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당일 새벽 4시경에 목욕재계를 하고 산제 터에 올라가 주변을 청소한다. 그 자리에서 밥을 지어 조라 술을 담아두고 내려온다. 금년에는 세 사람이 같이 했다.

마을로 돌아와서는 제수를 구입하고 떡을 찌는 등 제물 준비를 한 후 오후 4시경에 이장과 제관 세 사람만 차에 제물을 싣고 제당으로 올라왔다.

예전에는 샘물 나오는 곳이 있어 목욕 재개 후 산신제 준비를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위치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물은 소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정면을 향하게 진설하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오른쪽을 향하게 올렸다. 북어 대가리도 오른쪽을 향하게 했는데, 이는 동쪽을 바라보게 진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일은 다섯 개씩, 홀수로 올렸다.



“천만이 형님이 지관하시고...”

제관으로 임무를 맡은 세 사람이 제관복으로 갈아입고 제상 앞에 서고 이장은 옆에서 거든다.

먼저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다.

지관이 제상 앞에 나와 술을 받은 후 향 위로 세 번 돌리더니 제상 아래로 세 번에 나누어 술을 붓고 빈 잔을 놓고 절을 한다. 한잔 더 받아서 반복한다.



다시 지관이 제상 앞에 앉아서 술잔을 받아 상 위에 올린다.

한잔 더 반복하고 세 사람이 같이 절을 세 번한다.

축관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 후 술을 침잔한다.

세 사람이 같이 절을 하고 술잔의 술을 버린다.

“이제 소지 올려야 되는데..., 소지종이를 백장을 사왔어요. 백장. 도하 향동마을 사람들 몸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해주십시오~, 축원을 해. 향동마을 그저 사고 없이 해달라고...”

축문을 태우고 소지를 하면서 소원을 기원한다.



그 자리에서 조라 술로 간단히 음복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산신제에 쓰이는 제기들을 나무함에 정리해 담고 이장네 식당으로 내려왔다. 제의 시간은 25분 정도가 걸렸다. 남은 조라 술은 그 자리에서 버렸다.

“술이 너무 시큼해. 날이 더워서 잘 안 익었어.”

소머리는 아직 생이라 당일은 먹기 어렵다. 폭 고아서 그 다음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에 반씩 나누어 드리면 각각 해 드신다. 그렇게 음복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산제사 후에 내려오니 이장네 식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음복 자리가 이어졌다.





제상에 올렸던 북어는 원래 산제 터에 있었던 나무에
걸어두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없어 제당 울타리에
묶었다. 누구든지 와서 먼저 떼어 가는 사람이 임자
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노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향동마을 산제사는 몇 백 년이 되었다. 도락산 산신에게 지내는 마을공동체 의례다. 산신제 제물은 소머리와 소고기만 쓰고 비린 것은 올리지 않는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출타했던 사람들은 제가 끝나야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전에 마을에 들어왔던 사람도 제가 끝나야 나갈 수 있었다. 마을에 출산이나 초상이 생기면 그 해 산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지난 번 이장은 기독교인이었다. 제 지낼 준비를 다 하고도 제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산제사를 전승한 마을이라는 얘기가.

이장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이 의례를 주관해 왔는데, 내년 부터는 노인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넘기려고 한단다. 이 산제사를 이제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승의 주인공들

금년에 산제사를 진행한 제관과 이장이다. 왼쪽부터 이천만(66세) 씨, 이복열(78세) 씨, 조운용(72세) 씨 그리고 김남현(55세) 씨다.

도하 1리 향동마을 김남현 이장은 이제 이장 직을 맡은지 2년이 되었다. 7대 조부 때부터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막내라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단다. 도로가에서 16년째 국밥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마을을 지키는 이장”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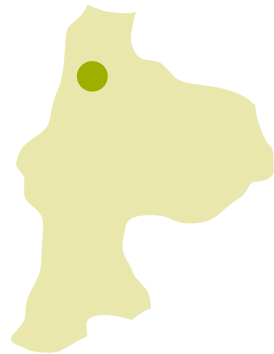
산신제에 올리는 밤은 껍질째 통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장이 기제사에 쓰는 밤처럼 미리 잘 쳐두었다. 노인회장이 보시고 아니라고 하자 다시 구입하러가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예쁘게 잘 친 밤은 우리끼리 먼저 먹었다.

지관을 맡은 이천만 씨는 노인회 총무다. 지금도 댁에서는 10월 상달 집 고사를 지내신단다. 이복열 씨는 전 노인회장이다. 전주 이 씨 임영 대군과 21대 손이란다. 제상을 진설하고 제를 진행하는 데 익숙함이 느껴진다.

조운용 씨는 현 노인회장이다. 이 마을에서는 산제사 제관은 타지 사람 에게는 맡기지 않는다. 조운용 씨는 현재 노인회장이라 이번에 처음으로 제관을 맡았단다. 이 마을로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다.

양주 맹골마을 산제사

양주 남면 매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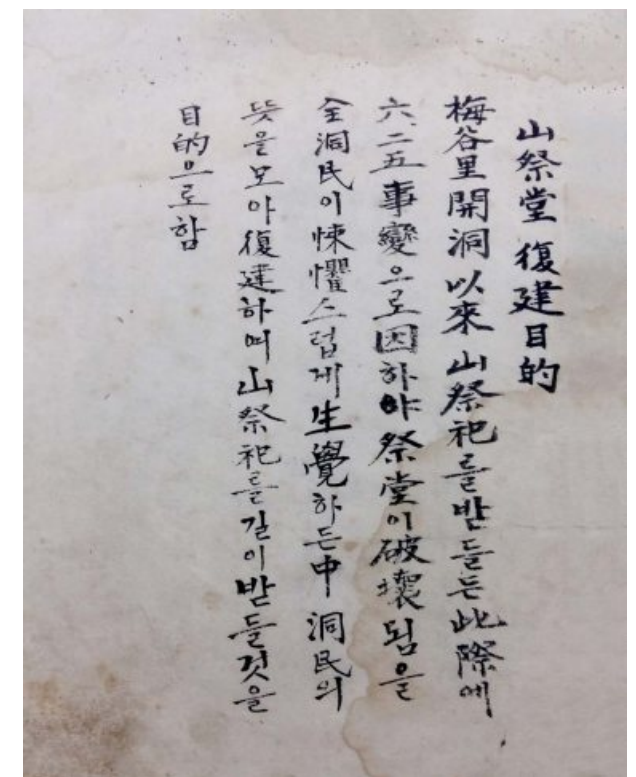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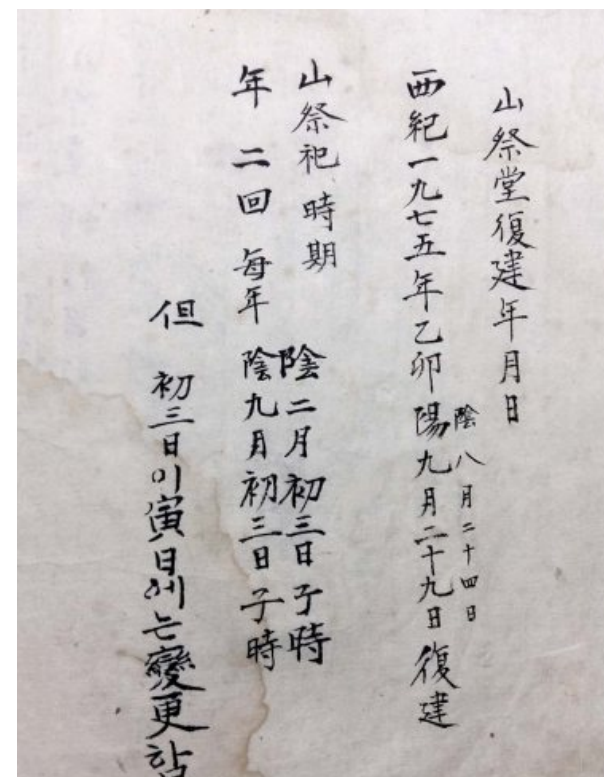
양주시 남면 매곡리 맹골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맹골마을은 주민의 반 이상이 수원 백 씨 성을 가진 씨족마을이다. 중요민속자료 제 128호인 백수현 가옥과 조선 중기의 문신인 백인걸, 이준선생 묘와 사당이 있다. 주변으로 감악산과 신암 저수지, 효촌 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 인문환경이 남다른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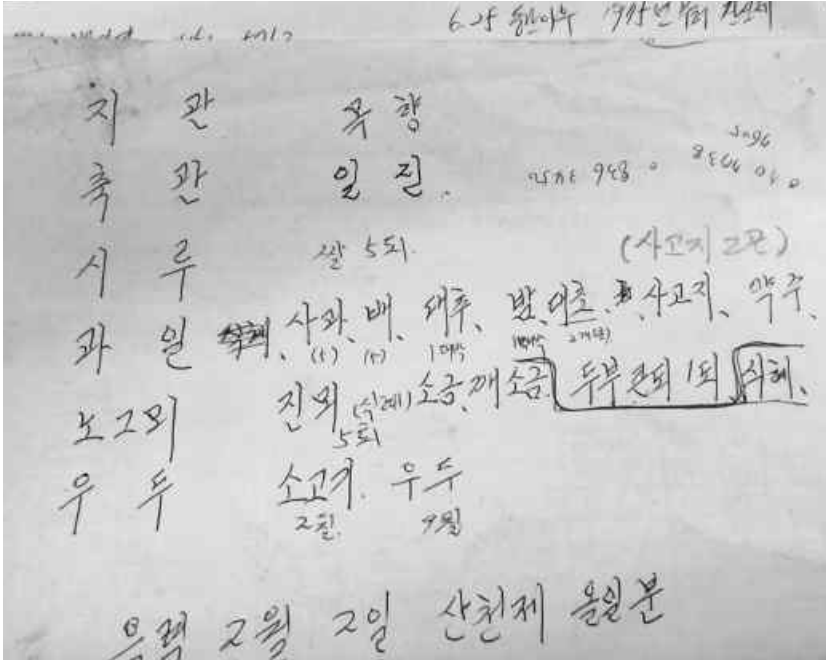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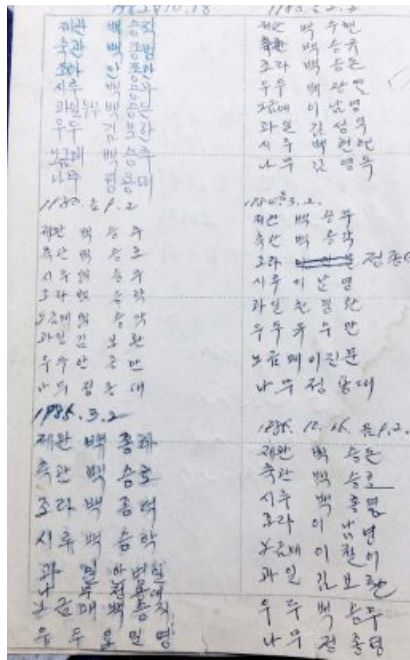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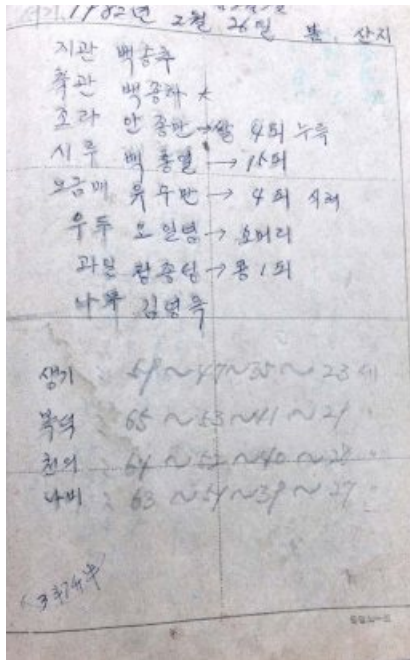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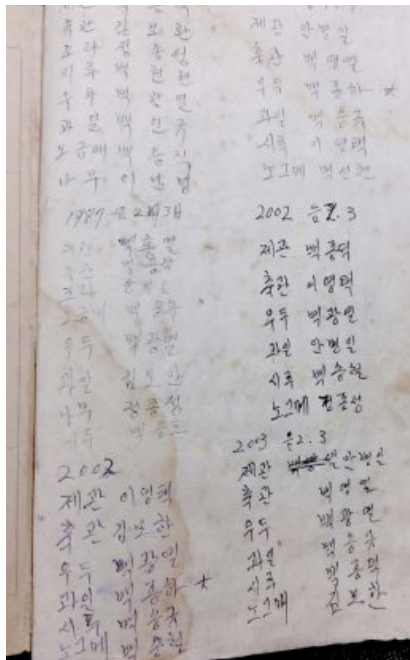
2004년 접경지역 특화마을, 2007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에는 인삼, 된장공장, 화훼단지, 목장, 유기농채소 재배지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다. 영농회(50명), 부녀회(50명), 노인회(60명), 매사모(25명), 개발위원회(11명) 등의 단체가 있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맹골마을 산제사는 매년 음력 2월과 9월 초삼일 자시 경에 지낸다. 봄, 가을에 두 번 지낸다. 금년 가을 산제사는 음력 9월 2일, 양력 10월 2일인 일요일 밤에 지냈다.

마을 뒷산에 꽤 너른 당집이 있어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산제당은 6.25사변 때 파괴된 것을 1975년 9월 29일에 복건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산제사 시기도 연 2회로 매년 음력 2월 초삼일 자시, 음력 9월 초삼일 자시라고 적어두었다. 단 초삼일이 인일(寅日)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다.





산제사에는 여덟 사람이 참여하였다. 지관(제관), 축관, 조라, 시루, 노금매(노구매, 밥), 우두, 과일, 나무로 역할을 미리 분장하여 선정하였다.

118

마을에 전하는 장부를 보면 1993년과 2001년부터 그 이후로는 여섯 사람을 정하고 있다. 제주를 담는 역할인 조라와 추운 산제당터에 불을 피우는 역할인 나무가 사라졌는데 조라 술로 마을 전통주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선정된 여섯 사람 중 제관은 제일 어르신이 맡고 축관은 이장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물 준비에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한다. 시루, 노구매, 과일, 우두를 각자 한 가지씩 맡아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제사에 모두 참석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해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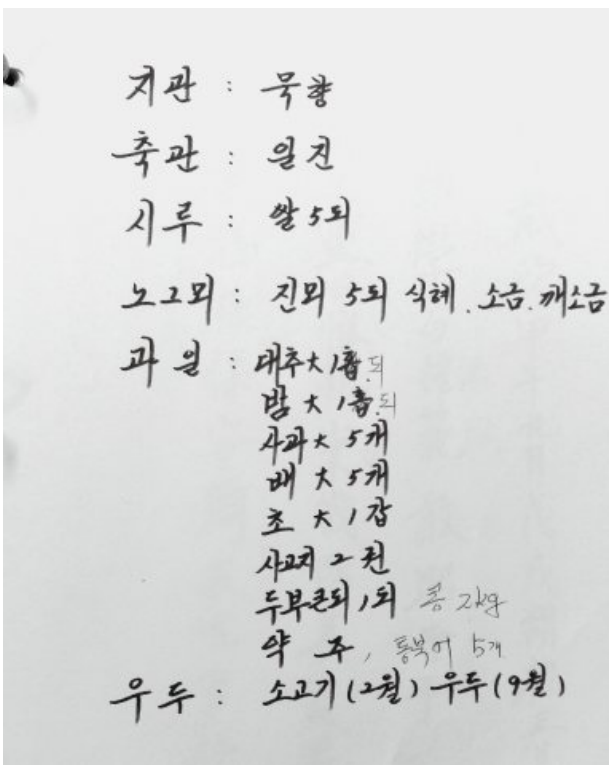
2016년 9월 산제사 제관은 마을 연장자인 백영열 씨가, 축관은 이장 백종하 씨가 맡았다. 시루를 담당한 윤창중 씨, 노구매를 담당한 정종성 씨, 과일을 준비한 백익열 씨, 소머리를 준비한 백종안 씨가 제물준비 분장을 하였다. 2월과 9월 “산제사 일보는 사람”

은 별도로 선정한다. 제의비용은 마을 이장만 제외하고 1년에 2만원씩 호당 각출하였다.

이 마을 산제사 제물은 특별히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모두 크고 푸짐하게 올린다. 유난히 큰 소머리, 시루 위로 고봉으로 넘치는 백설기, 한 술 가득지는 노구매 밥, 직접 둥그렇게 모양내 만든 두부, 식혜, 살 두툼한 통북어, 크고 색깔 좋은 사과, 배, 생밤, 대추...

산제사 일보는 사람의 분장에 따라 제수 종류와 분량을 기록해둔 물목이 전해져 내려온다.

지관(제관)은 향나무를 깎아 목향을 준비하고 축관은 일진을 본다. 시루를 찌는 데는 쌀 다섯 되가 필요하다. 과일은 사과 다섯 개, 배 다섯 개, 대추 한 되박, 밤 한 되박, 큰 초 두 개, 사고지 두 권, 양주, 두부콩 큰 되로 한 되를 준비해야 한다. 노그되(노구매, 밥)를 맡은 사람은 진되, 식혜 5되, 소금, 깨소금을 준비한다. 우두는 2월 산제사에는 소고기를, 9월 산제사에는 소머리를 맡는다.



제물준비는 산제사 터에서 한다. 당일 오후 5시 30분경 해가 지기 전에 이번 산제사를 맡은 제관, 축관 등 여섯 명이 제당으로 올라갔다. 제당 앞으로 너른 공간이 있어서 이 곳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금년에는 폭우가 내려 당집 안에서 준비했다. 원래는 터에 우물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없어진 상태다. 조라 술은 예전에는 제의 전날 산제당 터에 미리 담아두었는데, 요즘은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맹골 전통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올린다.

백설기를 찌고 노구매 밥을 하고, 과일을 손질하고 소머리를 실어 오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대로 진행한다. 이 네가지 주요 제물 준비 외에도 향나무를 깎아 향로를 준비하고 미리 담아가지고 온 제주와 술그릇, 둥근 모양으로 직접 만들어진 두부, 통북어, 초, 제기를 준비하는 등 산제사를 지내기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이들이 준비하는 사이에 제관과 축관을 맡은 두 사람은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119



한 술 가득 채워 노구매 밥이 완성되면 밤 11시경에 진설을 시작한다. 먼저, 꺾아둔 향나무를 향로에 넣고 향냄새를 피운다. 제기 접시에 밤, 대추는 수북하게 담고 사과와 배는 다섯 개씩 홀수로 얹었다. 백설기도 시루 위로 고봉으로 가득 올라가 있다.



떡과 노구매는 시루와 술 쟁 올린다. 끝으로 넓은 사고지(한지)를 깔고 소머리를 생으로 올렸다. 무거워서 다 같이 힘을 써야 했다. 주요제물을 진설할 때는 한지를 상 위에 깔고 그 위에 제기에 담은 제물을 두었다. 제상 차림이 끝나면 제관과 축관이 확인하고 바로 제의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제관이 제상 앞에 앉아 술을 받아 올리고 절을 한다.

누군가 “강신하는 거야”라고 설명해 준다. 이어서 향불을 피운다.

제관이 축관과 같이 두 번 절한다. 다시 제관이 술을 받아 올린다. 잔은 세 잔을 올린다. 잔은 예전의 밥주발을 사용하며 가득 채운다.



제관은 축관과 같이 부복한다. 축관의 독축이 이어진다. 독축이 끝나면 제상의 술을 내려 제관과 축관만 음복을 한다.

제관들의 절차는 끝났다.

사고지를 태우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과 화목을 빌며 제를 마쳤다. 제당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남은 제물은 모두 마을회관으로 가지고 가서 나눈다. 다음날 동네 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다 같이 음복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 마을 산제사의 금기사향으로는 마을에 내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는게 우선이었나 보다. 제관의 집에도 금줄을 치고 대문 앞에 황토를 깔아 조심시켰단다. 생선, 새우젓 등 비린음식도 금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산제사 일을 맡지 못하였는데 아무래도 금기사향에 위배되는 일들이 많아서였단다. 그래서 노인들 위주로 진행했다. 이 마을 역시 남자들만 산제사에 참여하고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한다. 젊은이와 같은 이유에서란다. 이번 산제사 날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부정 타서 비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마을공동체 의례 현장을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참석한 ‘외부인’들이 마을을 즐겼다고 한참을 하소연했다.

다른 화주들이 철상을 하기 전에 참으로 정성스런 고시레 뭇을 준비한다.

밤, 대추 각 한 개씩, 배와 사과 각 네 등분하여 한쪽씩, 떡 한줌, 두부 한 조각, 북어 대가리만 한 개씩, 소머리에서 귀부분만 조금 잘라 한 조각씩 모두 네 개를 만들었다. 각각 싸서 제당 밖, 제당 터 사방 끝으로 하나씩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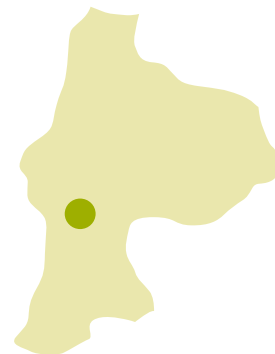
전승의 주인공들

이번 2016년 9월 산제사에는 제관 백영열 씨, 축관 백종하 씨, 시루 윤창중 씨, 노구메 정종성 씨, 과일 백의열 씨, 소머리 백종안 씨가 일보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마을의 제일 연장자 어르신을 제관으로 모시고, 마을일을 총괄하는 이장이 축관이 되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각각 제물을 분장하고 일을 맡아 산제사를 지낸 것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청년과 노인세대가 같이 동참한 모습이다.

마을 산제사를 기록한 장부에 보면, 매년 두 차례씩 이렇게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산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왔다. 이분들이 모두 맹골마을 산제사 전승의 주인공이지 싶다. 제당 문 앞에 열심히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양주문화원 박재홍 사무국장도 보인다. 그도 한몫했다.

양주 상가업마을 산제사

양주 백석읍 가업 1리



상가업 마을은 양주시 백석읍에 속하는 법정리 중 한 곳인 가업리에 속한다. 백석읍 중앙에 위치하는 가업리의 남쪽에 있는 한강봉과 은봉산 자락에 상가업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가업리는 가업 1리부터 가업 5리까지 5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너말 · 골말 · 뒷말 · 아랫가래비[하가업] · 윗가래비[상가업] · 응달말 등 19개리의 자연 마을이 있다. 그 중 가업 1리에 속하는 상가업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이 ‘응달말’(음깃말), 2반이 ‘양깃말’, 3반이 ‘넘말’이다.

2002년에 양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양주의 산간신앙』에 보면 이 마을은 물론 하가업 ‘아랫말’에서도 산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가업은 1, 2반이 같이 산제사를 지내고 3반은 별도로 지낸다. 이번에는 상가업 1, 2반인 응깃말과 양깃말의 산제사를 기록한다.

3반인 ‘넘말’의 경우 은봉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화주집에서 음복하고 끝난다. 모두 10가구가 참여하며 산제사 날짜는 1, 2반과 같다.



“제관을 안한다 그랬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긴 적도 있어요.”

상가업 산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1일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산으로 올라가 한강이 보이는 한강봉을 향해 제를 지낸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31일 오후 6시 경에 지냈다. 제의장소는 은봉산 중간에 산제사 터를 마련해 두었다. 지금은 50여 년 된 참나무를 위하는 나무로 삼고 있다.

제관은 원래 생기복덕을 가려서 선정하였다. 제관에 선정된 사람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비린 음식도 먹지 못하고 험한 데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관에 선정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이를 거절했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도 있어 소홀히 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다. 1, 2반에 속한 가구 호주를 3개조로 편성하고 제관 한 명, 하주 한 명, 축관 한 명을 각각 1개조에서 한 사람씩 뽑는 방식이다. 순서대로 제관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깃말(2반), 음깃말(1반)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이다. 금년에는 음깃말이 준비를 해서 지냈다. 제의비용도 1반, 2반에서 다 같이 각출 하였던 것인데, 근래에는 마을 이세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비용만 가구당 1만원씩 각출한다.

이 마을의 경우 특이한 것은 마을에 초상이 나도 초상집만 제외하고 산제사를 지낸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빠짐없이 지낼 수 있었단다.

금년 산제사 축관은 노인회장이자 10여 년 간 산제사 일을 보고 있는 조태준 씨가 맡았다. 제관은 김정환 씨가 선정되었고 그 외, 권영희 씨, 김기만 씨, 최태만 씨 등 모두 여섯 명이 참여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고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가업 1리 노인회는 할아버지 20명 정도, 할머니 47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다.



“돼지머리가 제일 큰 제물이지...
산치성 지내고 저녁 다 같이 먹고...”

126

이 마을의 경우 돼지머리가 가장 중요한 제물이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주문해 온 백설기인데 이 두 제물을 제상 안쪽으로 같은 선에 진설한다. 그 외에는 통복어 한 마리, 배 한 개, 밤과 대추 각 한 접시씩을 일화용 접시에 올렸다. 메는 없이 국그릇 위에 쇠 젓가락 한 벌을 올려두고 절을 하기 전에 세 번 소리 내어 치는 용도로 사용한다.

돼지머리는 전날 사서 당일 날 삶았다. 2년 전까지 만해도 새벽 4시에 제관 한 명이 산제사 터에 올라가 조라 술을 만들어 놓고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약주를 구입해 올리고 있다.



오후 시간은 대략 5시 반에서 6시 사이, 해가 질 무렵에 제관과 축관 등 모두 6명이 준비한 제수를 가지고 산제사 터로 올라간다. 예전에는 지계에 제사 음식을 지고 올라갔는데 요즘은 트럭을 타고 간다.

127





“유세차 병신년 시월 경술삭 일일...”

128 상차림이 끝나면 참석자 모두 제상 앞에 선다.

- 향을 피운다.
- 제관 김경환 씨가 제상 앞에 나와 술 한 잔을 받아 향 위에 세 번 돌리고 제상 아래 세 번에 나누어 술을 붓는다.
- 다시 한 잔을 받아 향 위에 세 번 돌리고 상 위에 올린다.
- 참석자가 모두 다 같이 부복하고 축관이 독축한다.

“유세차 병신년 시월 경술삭 일일 병술 양주시 백 석읍 상가업 1, 2반 고유 유학 김경환 감소우~”

- 독축 후 젓가락을 세 번 소리 내어 치고 다 같이 재배한다.

- 소지를 올리기 전에 누군가의 권유로 두 사람이 더 헌작하였다.

“영희 형님도 한 잔 올려~”



- 헌관이 제상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먼저, 젓가락을 소리 내어 치고 술을 한 잔 올린 후 네 사람이 같이 재배하였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통복어를 소지 종지로 묶는다.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소지종지에 싸더니 두 가지를 같이 손에 들고 제상 위로 올라가 위하는 나무에 두고 내려온다. 먼저 보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는단다.

이어서 다 같이 달려들어 소지를 올린다.

“다 동네 무고하고 병도 없고
풍년 되게 해 주십 시오~.”
“마을 주민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게 해 주십사~”

129

소지종이가 많이 남았다며 계속 소지를 올리면서 여기저기서 기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각자 자신과 가족 개개인의 소지를 올리느라 진지하다. 소지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내려온다.

산에서 내려오면 마을회관에 양짓말, 음짓말 주민들이 와있다. 다같이 음복 한다. 돼지머리는 썰어서 술안주로 하고 소내포(소내장)로는 국을 끓였다.

130

누군가 백설기를 칼로 잘라달라고 하자 제물은 칼로 자르는게 아니라고 하여 손으로 떼어 먹었다.

이 날 음복 뒷풀이에는 30명 정도가 모였다.



전승의 주인공들

위 사진 가운데서 설명하고 계신분이 조태준(78세) 씨다. 상가읍 마을 노인회장이다. 10여 년 전부터 산제사를 주도하여 지내고 있다. 축문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늘 축관을 맡는다.

그는 “산치성”을 지내야 마을에 돌림병이 없고, 풍년이 되고, 가족도 잘 자라고 동네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축문 내용도 이런 내용을 적는다. 축문도 예전에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노인회장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직접 한문으로 작성하여 읽는다. 그래서 “산치성”이라 말하고 ‘산제사(山祭祀)’라고 쓰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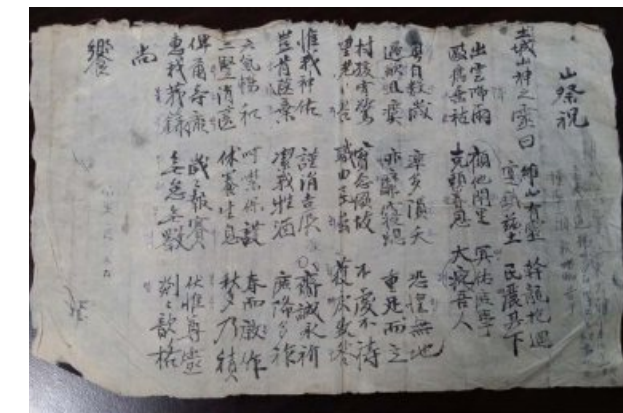
“예전에는 산치성 지낼 때… 작은 시루는 가지고 올라가고 큰 시루는 여기 두고,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복놀이도 크게 했어요. 징, 팽가리 치고 놀았는데… 양주시 농악대회에서 1등도 했어요. 2년에 한 번 율놀이, 척사대회도 하고, 여기 경로당 마당에서 해요.”

131

“예전에는…”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회장님은 내년엔 마을 주변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뿔뿔이 헤어질까봐 걱정이다.

산치성 축문을 이어오고, 제상 차림부터 절차까지 이런저런 챙기는 모습에서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노인회장의 의지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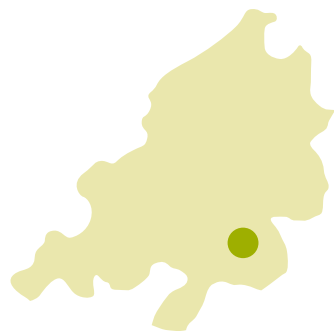
7 연천의 마을공동체 의례

7-1 한밭마을 산제

7-2 노곡 2리 산단제사

연천 한밭마을 산제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대전 1리는 대전리 산성 아래 자리 잡고 있는 “한밭” 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은 대전리 산성을 “성재”, “성재산”이라고 부른다. 그 정상에 산 제단이 있다. 마을은 지방도로 갈라져 있고 30~40년 전에 논이었던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큰 농사는 없이 주로 오이, 가지, 고추 농사를 짓는다.

1965년에 물난리가 나서 미군이 마을길과 집을 정비해준 곳이라 마을 분위기가 남다르다. 물난리가 난 밭을 모두 밀고 규격화된 길과 집이 자리 잡게 되었던다. 사변 전에는 120호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8.15 해방 후에 많이 떠나고부대가 집터 자리에 들어왔다. 지금은 입주해온 외지인 세대까지 합쳐서 모두 22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이번 산제에는 79세대가 소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게이름으로 한 10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주민들이다.

“12시 땡 하면 시작해서 새날에 지내는 대전리 산제”

매년 음력 8월 초 자정에 지낸다. 2016년에는 음력 8월 2일, 양력 9월 2일 금요일 밤에 지냈다. 저녁 7시 경에 제장으로 올라가 그 자리에서 조라 술을 거르고 백설기를 직접 찌는 등 제물을 준비하고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제를 올린다. 이는 부정을 타기전인 새날에 제를 올린다는 의미란다.

제의 날짜는 매년 7월 말에 이장하고 몇 사람이 청산면에 있는 수불사에 가서 좋은 날을 잡는다. 금년에는 지난 26일날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전 이장이 같이 가서 좋은 날과 띠를 잡아왔다. 날짜는 주로 음력 8월 초하루에서 닷 세 사이로 잡는다. 요즘에 주말에 맞추기도 한다.



제장은 마을에서 “성재”라고 부르는 대전리 산성 정상에 있다. 정상 그 울타리 안에 1998년에 만든 제단이 있다. 대리석으로 ‘산신석 - 대전리 주민 일동 건립’이라고 새겼다. 단층 상석아래 향로석도 마련하였다.

절에 가서 날을 받고 온 날, 바로 제당에 가서 풀을 베고 조라 술을 담아두고 내려 왔다.

당일 날 오후에도 미리 제장에 올라가 비닐 천막을 치고 바닥을 펴고 제 지낼 준비를 해두고 내려갔다. 한 밤이라 날씨가 춥고 비가 올지 몰라 미리 대비한 것이다.

“옛날에는 날을 가려잡고 상화주, 중화주도 깨끗한 사람으로 가려서 선정했는데... 음복도 상화주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회관에서 해.”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잡아 제물을 올리던 산제였단다. 금년에는 돼지 한 마리를 도축장에서 잡아왔다. 그 중에서 돼지머리와 콩팥, 족, 피만 제상에 올린다. 나머지는 제를 지내기 전에 제의 비용을 낸 사람들에게 한 근 좀 더 되는 고기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제비는 2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더 내는 가구도 있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옛날 법이야.”

저녁 7시 30분에 다 같이 제장으로 올라갔다. 보통 13명 내외로 올라가는데 금년에는 그 정도 인원이다. 곧바로 깊이 묻어둔 조라 항아리를 꺼낸다. 중형 크기의 항아리를 비닐로 꼼꼼 싸두었다.

바가지로 퍼내서 망으로 짜고 채로 거르고 2리터짜리 물병에 담아두었다. 제주로 쓸 한 병을 미리 담아두고 나머지는 물과 소주를 타 희석시킨 다음 네 통을 만들어 두었다. 내일 회관에서 음복할 때 사용할 것이다. 항아리는 깨끗하게 물에 행구고 다시 잘 묻어둔다.

조라 술을 만든 다음에는 방앗간에서 빵아 온 쌀가루로 백설기를 찐다. 쌀 세 되 세 홉을 구이장이 직접 방앗간에 가서 빵아왔다. 조라 술은 닷 되를 했다.

백설기 위에 밥그릇을 두 개 같이 올려서 찌는데 하나는 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좁쌀이다. 예전에는 수수도 한 그릇 찌서 세 그릇을 메 대신 올렸단다. 언제부터 두 종류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떡을 찌는 사람도 어느새 주 담당이 생겼다.

한 쪽에서는 화톳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어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동네 얘기를 하고 있다. 오후 10시 경이다.



떡을 찌는 동안 진설을 마쳤다. 마을에서는 목제기와 제복 등 산제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진설장면이다.
육고기는 안쪽 첫줄에 돼지머리와 돼지 족 두 개, 콩팥, 선지를 올렸다. 돼지 족은 왼쪽 앞, 뒤 족만 사용하고 선지는 도살장에서 받아왔다. 북어포도 한 마리 제기에 담았다. 떡은 백설기 시루를 안쪽으로 올리고 술잔 두 잔, 시루에 얹어서 찐 기장, 조를 앞쪽에 놓았다.

제일 앞줄에 깐 밤, 위, 아래를 찐 배 다섯 개, 유과, 꽃감, 아래, 위를 찐 사과 다섯 개, 대추를 놓았다. 밤은 원래 통밤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장에 없어서 대신 깐 밤을 샀다. 삼색실과도 보통 세 개 정도씩 올리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씩 올렸다. 조청 한 종지도 꼭 올린다.
빈 대접에 수저도 담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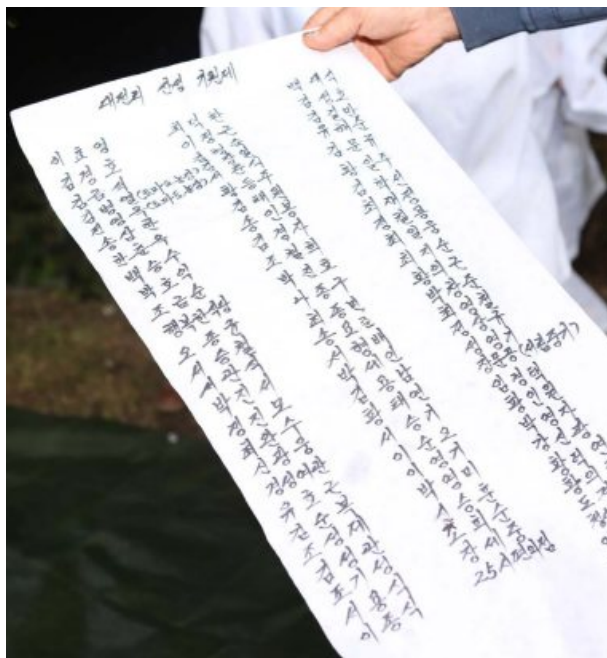
“여기는 생 거만 올려, 약과 같은 건 안올리고...”

진설을 마치고 제관들은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평상복 위에 바지와 두루마기를 입고 건을 썼다. 모두 여섯 사람이 제복을 입었다.

79명의 이름을 가지런히 적은 ‘대전리 산신 기원제’ 명단이다. 대동소지로 한 번에 올리기 위해 제비를 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

자정이 되기를 지루하게 기다린다. 구은 고기에 소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가 진지하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다. 바로 제를 올린다.



- 제관이 향을 켜고 술 한 잔 올리고 다 같이 절한다.
- 모두 부복하고 축관이 독축한다.
- 수저를 세 번 소리 내서 치고 다시 올려 두었다.
- 다 같이 절을 두 번 반 한다.
- 술잔을 물린다.
- 이장이 나와 향을 켜고 술을 두 잔 올린다.
- 수저를 세 번 소리 내서 친다.
- 두 번 반 절 하고 물러난다.
- 다 같이 부복하고 축관이 대동소지를 올린다.



138



“원래는 제관 소지하고 대동소지 하는 거야.”

소지를 올리자 “파기해”라는 소리에 수저를 세 번 소리 내서 친다.

· 다 같이 두 번 반 절 하고 끝난다.

12시 12분에 본 제사는 끝났다.

이어서 연천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절하고 헌작한다. 연천문화원에서 오신 분도 잔 올리라고 권하자 연천군문화원 왕윤식 사무국장이 나와서 헌작한다.

최고 어른신이 마지막으로 올리라고 권하자 상화주가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린 후 재배하고 물러난다.



모든 재배가 끝나고 난 후에 소지를 다시 올린다. 제관 이름부터 부르고 소지 먼저 올리고 마을 주민들의 이름을 불렀다. 입 축언 없이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듯 조용하다.

· 마지막으로 술잔에 세 번 첨잔하고
· 수저 세 번 치고 다 같이 재배하고 마쳤다.

최고 어른부터 음복 잔을 마신다.

“떼어버리고 음복 해야지~~”



139



전 이장 오종균 씨가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 제장 밖으로 버리고 촛불을 끄고 뒷정리를 한다.

“돼지 귀만 잘라서 던져요”

12시 25분경에 끝났다.
음복은 다음 날 아침에 대전 1리 마을회관에서 한다.



“조라 술 기다리는 분 들이 많아요~”

마을에 있는 종가 종손인 황덕연 이장은 다음날 아침,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 주었다.

140

이런저런 이야기들

“옛날에는 제를 지내고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을 나와서 지나가는데...
제물을 다 먹고 가서 하나도 못가지고 내려갔어.”

이 마을 산제는 지금도 밤 12시 정각에 지낸다. 첫 날, 부정이 타지 않은 시간을 택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금기 사항도 엄격했을까 분명하다. 그간 당연히 여자는 산제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 여자들은 마을회관에서 제물 준비만 하고, 남자들이 제를 지내고 내려오면 주민들을 위한 상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음복이나 할 수 있다.

홍춘옥 노인회장도 여성이라 제물 준비만 도와주고 산제 터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번에 여성인 기록자는 다행히 “금년에 맞는 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묵인되었다. 스스로도 조심했음은 물론이다. 산제 후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걸 보면 대전리 ‘성재산’ 산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민들의 정성을 잘 자셨나보다.



왼쪽부터 축관 박정호(58세) 씨, 상화주 서승철(79세) 씨, 중화주 현 이장 황덕연(54세) 씨, 제관 김길만(63세) 씨, 하화주 전 청년회장 서관식(52세) 씨 새마을지도자 김장일(50세) 씨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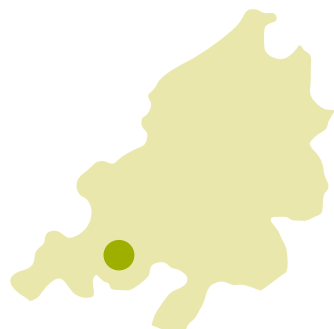
금년에 산제 일을 보는 사람들은 띠를 가려 선정하였다. 제물 준비를 맡은 상화주는 범띠, 돼지 잡고 하는 중화주는 토끼띠, 술잔 심부름 같은 일을 맡는 하화주는 뱀띠, 헌관은 말띠, 축관은 개띠가 맡았다. 축관이 제일 중요하단다.

상화주 서승철 씨는 15대 산소가 이곳에 있는 토박이다. 마을에서 태어나서 8.15해방 때 나가서 서울에서 살다가 휴전이 되고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이 마을 산제의 산증인답게 제를 지낼 때 이런저런 설명으로 진행을 하셨다. 이번에 제관에 선정되지 않아 사진에는 없지만 전 이장 오종균(67세) 씨는 떡 쌀을 찌어오고 조라 술을 거르고 고시례를 하는 등 꽤 오래전부터 산제 일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주민자치위원장 정상주, 청년회 총무 조철희, 김성호 씨 등 1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 제장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노인회 총무인 최덕환 씨도 주요 전승자 중 한 사람이다. 대전 1리 한밭마을 산제의 강한 전승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41

연천 노곡 2리 산단제사

연천군 백학면 노곡 2리



백학면은 연천군 서남쪽에 위치하며 9km의 휴전선과 임진강을 접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 주민이 민통선 남방에 거주하며 6개리 260여 가구가 민통선 북방 지역 내 출입 영농을 하고 있다. 면의 서쪽은 이북 지역에 속한 장단군,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

백학면의 21개 법정리 중에 주민이 입주해 있거나 영농이 가능한 지역은 백령·두일·노곡·전동·학곡·구마·석장·갈현·두현·통구 등 10개 법정리 뿐이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완충 지대 및 이북 지역에 속해 있다.

임진강변에 갈대가 무성히 우거져 있다는 의미의 "갈울" 또는 "노곡"이라 불리는 노곡리 마을은 1리, 2리가 2002년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다. 그 중 노곡 2리 전체 가구 수는 117호가 등록되어 있다. 실재로는 70호 정도가 거주 하고 있으며, 그 중 원주민은 22호 정도다. 제의에 참여하는 호수는 40여 호가 된다.

이 마을에서 지내는 산단제사는 연천 군수, 파주적성 향교, 주민,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큰 제의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축산업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단다. 노인회 회원도 40명 정도란다.

“우리 산단제사는 6.25때 3년간 못 지내고 그 외는 다 지냈어.
예전 산단제는 저 산 위에 있어서 군부대서 산에 불키면 안되는데
연대본부가 여겼는데, 연대장이 사단에 연락해서 밤에 들어가서
불 놓고 제사 지냈던 거여.”



“원유정최 사승”이 입향한
오랜 역사가 있는 마을

“이 부락은 고려조 부터였지. 벼슬들을 하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등극을 하다가 보니깐 임금을 둘을 섬기지 않는다고 낙향들 해서 여기 산에다 단을 모아 놓고, 단이라 그래야 아까 그 차돌 하나 놓고 거기다 잔 한잔 부어 놓고 망향제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단이 돼서 지사를 지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년 됐다고 보는 거지. 이 부락은 그 먼저 고려 적에도 여기 사셨다는 얘기지. 다만 조선조 산소가, 원주 원 씨네가 켈 먼저 들고, 문화 류 씨네가 두 번째 들고, 하동 정 씨네가 세 번째 들고 동주 최 씨네가 네 번째 들고, 순서대로 마을에 들고 남양 홍 씨는 고려 때부터 산소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원유정최 사승”하면 그 성 씨 순서대로 여기 들왔다는 걸 다 알어. 여기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 그래서 600년이 됐다는 거지. 역사가 짧다고 안 해준데. 우리 조상이 여기 있는데... 그 분이 일어나서 말만 해주면 되는데...”

최주연 전 노인회장의 설명이다. 2013년에 연천군에서 지어준 산단제당 앞에서 이 산단제의 역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가득이다.

오래전부터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려니까 그게 걸린다.

“단을 모아놓고 제를 지냈다고
산단제사라 그래”

노곡리 산단제는 매년 음력 8월 첫 정일을 택하여 지냈다. 그러나 산단각을 짓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력 8월 8일로 고정하였다. 2016년에는 양력 9월 8일에 지냈다. 지난해에도 밤 12시에 지냈던 것인데 금년부터 오전 11시에 지내기로 했다.

제는 산단각에서 지낸다. 원래는 산 위에서 맨 땅에 차돌을 놓고 지냈는데, 40~50년 전에 마을 아래로 옮겨왔다. 그 앞에 ‘선조위(先祖位) 차돌’, ‘산령지위(山靈之位)라고 새긴 작은 비석을 두 개 세웠다. 산단각을 짓기 전까지는 이 차돌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를 지낼 때 차돌에 제일 먼저 정한수를 떠놓고 시작한다.

“옛날에 단을 모아놓고 제를 지냈기 때문에
산단제사라고 그래. 노곡리 산단제사라 그래.
단을 모았다는 소리지, 단에서 산신령을 위해서
지내는 거지.”



“옛날 역사를 그대로 지켜야지
맞대로 바꾸면 안돼.”

마을 주부 세 사람이 두부를 큰 다라이에 직접 만들고 있다.

큰 소머리도 직접 삶고, 김치도 담고 제물과 음복음식 준비에 한참이다. 축문도 오늘 일시에 맞게 옮겨 적고 있다. 노곡 2리 마을회관에서의 일이다.

“옛날에는 화주가 음식도 하고 술도 담고, 산까지 제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화주집에서 다해. 일주일 전에 문 앞에 황토 뿌리고... 새우젓도 못 먹었어. 동네에서 깨끗한 집, 화주 한 분만 정해. 집에서 떡 찌고 삼색실과, 소머리 삶고, 아침 밥 해 먹여, 화주 집에서. 그리고 소머리 담는데 찢던 큰 다라이, 그거 하나 얻는거야. 화주하고.”

제관은 1년 12달이라 12명을 미리 정했다. 축관은 이장이 맡는다. 예전부터 12명을 정했는데 부정한 것을 보면 못 오기 때문에 제관은 7~8명이 지내게 된다. 오늘은 아침에 경로당에 와서 정했다. 미리 예고는 해준 상태였다.

제의절차는 여느 향교에서 지내는 향사를 보는 것과 같았다.

“예전부터 지내던 대로 지내는데 고대로 하는거지머. 절차가 다르다는 거는 먼저 할아버지들 제사 지내는 거는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 절하고 소지 올리는 거는 똑 같은데 홀기, 집례 같은 건 없었지. 수복 후에는 홀기하고, 집례도 하고 갖춰서 해요.”



제각 안에는 다섯 개의 비가 있다. 우측부터 찬조헌 금비, 산신령위 대축문, 홀기, 제상 차림에 관한 내용을 적은 비를 세우고 그 앞에 산신지위 위패를 비석으로 세웠다.

제각이며 제관복이며 제기, 상차림 등 모두 여느 향교의 향사 수준이다. 30년 전부터 제복을 갖추고 제를 지냈단다. 제각은 2013년에 건립하고 크게 제를 지냈다는 사진을 걸어 두었다.

제물은 비에 새겨둔 것과 같이 제수를 적어주면 마을운영회 총무가 장을 봐왔다. 제수를 구입할 때는 깎지 않고 크고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

소머리는 꼭 수소로 하고 두부는 전 노인회장이(올콩으로 같은) 햇콩으로 직접 만들어 썰지 않고 통으로 올린다. 백설기도 시루 채 올린다. 생무와 밥그릇에 생쌀과 생콩을 올리는 것도 특징이다. 예전에는 술도 전날 미리 담아놓는데 아주 맛있었던단다. 지금은 백화수복으로 사서 쓴다. 술잔은 세 개를 올린다. 삼헌관의 몫이며 강신 잔은 상 아래에 둔다.





집례는 사회자처럼 마이크를 들었다.

- 지금으로 부터 노곡 2리 산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 화주는 북쪽을 향해서 외우소 삼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주가 선조위(先祖位 / 차돌) 앞에 선다. 비석 앞에 작은 돌판 위에 정한수 물을 한 그릇 올려 두었다.

- 외우소~ 외우소~ 외우소~
- 화주가 큰 소리로 북쪽을 향해 외치고 인사한다.

이어서 제관들은 모두 산단각으로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 좌집사 두 분, 우집사 두 분 양쪽으로 해 주시고...
- 좌우집사 관수세손, 좌우집사는 손 닦고 들오세요. 밖에서 손을 닦고 들어온다.
- 초헌관 관수세수
- 향 꽃아요, 세 번 넣세요. 라이터로 세 번 불을 붙여 넣는다.
- 우집사 창호지를 들고 제관에게 주고 향에 돌려 북어 위에 올려요.



“집례가 보면서 설명을 잘해줘야지~”

- 좌집사는 술을 주전자에 따르세요.
- 초헌관 배~홍, ~ 배~홍, ~ 배~홍
- 우집사 봉작 수작
- 초헌관 이기작 강시

“첫잔을 따라서 좌 집사한테 주라는 소리야.”

· 초헌관 제관
“천천히 해, 너무 빨리 입지마.”

· 복홍~
“다들 부복하라는 소리야.”

- 배~홍, 배~홍, 배~홍
- 초헌관 봉작 수작

“술 따르고 내리란 소리야”

- 좌집사 수작~
- 일동부복~~
- 대축관 초헌관 배
- 소 축~

“유세차 병신 팔월 병술삭 초팔일 개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 2리 유학 유유일원 감소
고우 본양산천 도술령이.... 만사여의, 태평가무~
상향~”

한문 축문을 읽는 동안 다 같이 부복하고 있다.

- 평신
 - 초헌관 복읍기
 - 배~홍, 배~홍~ 배~홍, 배~홍
- “여길 보고해, 천천히~”

- 평신
- 초헌관은 세 번 배~홍
- 평신
- 아헌관 관수세수

아헌관이 밖으로 나가 손을 씻고 들어온다.



- 우집사 봉작
우집사가 주전자를 들어 술 따르고 좌
집사가 받아 올린다.
- 아헌관 배~흥, 배~ 흥, 배~ 흥
세 번 앉아서 절하고 물러난다.

초헌, 아헌, 종헌잔으로 세잔을 올렸다.
산신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신 것이다.

- 종헌관 관수세수
- 경계
- 우집사 봉작

종헌관이 술잔을 받아 향 위에 돌린 다음
좌 집사에게 전해준다.

- 종헌관 배~흥, 배~ 흥, 배~ 흥
- 평신

- 일동 복흥
- 배~ 흥, 배~ 흥, 배~ 흥
- 평신
- 대동소지효



“소지는 초헌관이 하는 거야.
소지중이 가지고 이리 나가요~”

초헌관은 밖으로 나가서 입 축언을 하면
서 소지를 올린다.

“노곡 2리 주민 전체 다 만수무강하시고
동네가 다 편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소지는 이따 올려, 거 축원 잘 해요~”
“이제 대동소지 다 올리고, 개인소지
올려요.”



- 네, 이것으로 산단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점 베어서 저쪽에도 놓고 해요. 거기
비석 있는데다가.”

제상을 치우기전에 부인 한 사람이 제물을 조금씩
작게 잘라서 비석 아래 놓았다.

“이 술 못 먹으면 바보야~”

햇 콩으로 만든 두부로 음복한다. 다른 참가자들도
간단히 음복하고 마을회관으로 내려간다.

마을회관에는 남자 방, 여자 방을 구분해서 한상
가득 푸짐하게 음복 상을 차렸다. 80~90명은 되는
것 같다. 부인회, 청년회 등 젊은 주민들이 많아서인
지 마을 분위기가 좀 색다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150

고양미 쌀에 내주는 표시

“지사 지내고 나면 고양미 쌀그릇 뚜껑 열어 보면 꼭 표시를 내주거든요.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그걸 열어봐요. 연년이 그걸 봐요. 표가 있으면 잘 지냈다는 거지.”

실재로 제를 지낸 후에 집례가 열어서 보여주는 쌀그릇 위에는 작은 흔적이 보였다. 잘 지냈다는 위로와 앞으로 또 일 년간 안심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

“감악산 산신령님은 할아버진데 할머니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절을 한 켄래만 나와요. 숯갈도 안 나와. 젓갈만 나와요. 할아버지니까 밤에 지내지... 삼신은 할머니고 산령은 할아버지고...”

“산신령은 호랑이라고 생각 해야 되요, 우리 제사 지내는데 감악산에서, 여기 임진강 있죠? 외우소~

하면 그 여울 건너서 철벽철벽 건너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옛말이 있어. 산신령이 강을 건너오는 소리야. ‘감박산’이 강 건너있어.”

“부정이 있는 사람이 감악산에 갔다 와서 눈이 먼 사람도 있었어요.”

여전히 신앙성이 살아있는 마을이라 다른 전통문화도 잘 전승되고 있는지 이것저것 질문이 길었다. 4월 초파일이면 정자 옆 큰 오리나무에 그네를 땀다. 단오날까지 그네를 뛰고는 끊었던 것인데 전쟁 중에 나무가 소실되었다. 5월 단오에 창포를 비어다가 머리 감고, 그전에는 단오 명절이 추석보다 더 컸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들었다.

또, 3월 3일, 4월 초파일, 10월이면 감악산에 있는 빗돌대왕당에 정성을 드리러 간다는 것과, 이때 남자들이 짐을 져다 쥐야한다는 것,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시월 말날이면 고사떡을 해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결국은 “부갯집 어병가리”를 보겠다고 이장택에도 갔다 왔다는 사실을 기록해 둔다.



전승의 주인공들

151

제관들의 기념촬영이다. 오른쪽 끝에 평상복 차림이 최주연(84세) 전 노인회장이다. 그는 해마다 산단 제사에 올릴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올콩을 심어서 직접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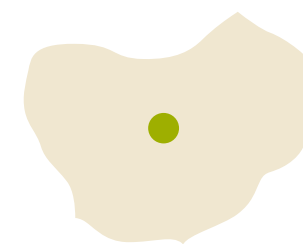
노곡 2리 산단제사에는

“아버님 하실 때부터 따라 다녔지. 조라 담그려 미리 가고. 난 한 땀세 동안 비린 거 쫓겨 다니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가리는게 많아. 오늘 아침에도 당에 가는데 고양이가 길가에 죽어있어서 내가 그걸 치우고... 그래서 오늘 제당에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였나? 제를 지내는 동안 내도록 당 밖에서 집례에게 이런저런 설명과 진행을 주도 했다. 이 산단제를 연천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애쓰고 있다. 적성향교 전교를 맡고 계신다.

“25~30년 전에 차를 대절해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제복을 구입해 왔어. 열의가 대단했어. 지금 80넘은 노인네들 열의가 대단했어. 봉고차 하나 이빠이 타고... 나도 80이 넘었는데 내가 50대에 갔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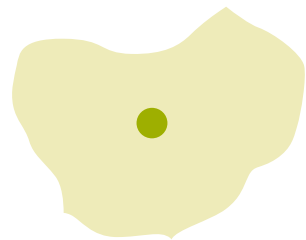
이 마을 어르신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대목이다.



8 의정부의 마을공동체 의례

8-1 하금오리 꽃동네 산치성

의정부 하금오리 꽃동네 산치성



의정부시 하금오동 꽃동네

산신각이 있는 하금오리 꽃동네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하금오로 들어서면 사거리 코너에 의정부시 하금로 33번길이라는 뜻말이 보인다. 그 바로 아래 건물이 하금오동 꽃동네 마을회관이다. 20통 부녀회, 청년회, 마을회관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원래 하금오리, 하소랭이라는 옛날 지명이 있었는데 30년 전 경에 꽃동네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 다시 하금오리로 이름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을은 큰 도로에서 골목길만 들어서면 오래된 옛집과 아파트, 빌라들이 섞여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을 바로 뒤에 얇은 산이 있고 그 산 초입에 정주당 묘소가 있다. 그 위에 산신각이 자리 잡고 있다.

산신각은 한 칸 반 정도 규격으로 아담하고 이쁘다.

현재 건물로 지은 지는 50년이 넘었다. 시멘트블록 벽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고 산신각(山神閣)이라고 쓴 작은 현판을 달았다. 안쪽 정면에는 허리 정도 오는 높이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쓴 조금은 큰 나무로 만든 신위를 세워두었다. 산신각 앞으로 작은 공간을 두고 나무들이 둘러쳐 있다. 산신각 뒤에는 작은 대리석 돌을 마련해 두고 산치성을 끝내고 고시례를 하는 장소로 쓴다.

이 사패산 산신각에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산치성을 올린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31일 월요일이었다. 음력 3월에는 정주당놀이보존회에서 정주당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다. 1년에 봄, 가을 두 번 제를 지내는 것이다.



2036년까지 뽕아둔 제관

마을에는 연세가 90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2036년까지 택일을 해 준걸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다. 매년 이것을 보고 제관을 선정하면 된단다. 금년에는 쥐띠, 용띠, 토끼띠가 좋은 띠로 선정되었다. 이병구 씨, 이선노 씨, 현창식 씨가 금년 제주다.

매년 산치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13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90명이 되기도 힘들단다. 지난해에는 92명이 참여했다. 금년에는 80명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156



아침부터 노인회장의 안내방송에 동네가
복산하다.

“주민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시월 초하루입니다.
매년 드리는 산치성 날입니다.
참여의 뜻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은 마을회관으로
쌀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마을 주민들이 쌀을 들고 회관으로 모
이기 시작한다. 오래도록 산치성 쌀 뒷박으로 사용
해온 노란 양은 대접에 한 대접씩 담아부어 놓고 명
단에 이름을 적고 돌아간다.

“저희는 해마다 매년 해요, 이 동네 한 30년
살았어요. 매년해요.”
제일 먼저 쌀을 내고 가는 중년부인의 말이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나는 이거 옛 저녁에 방아 짬어 온 거야.”
쌀을 양은 대접에 넘치도록 넉넉히 가지고 왔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받았는데,
지금은 가지고 와요.
집에서는 안 해요. 여기서 다 하지.”

젊은 부인들, 할머니들이 계속 쌀을 들고 온다.
청년회원임직 한 남자는 출근길에 쌀을 가지고 들렀
단다. 쌀을 바로 구입해서 봉투채로 가지고 온 할머
니도 있다.

쌀은 다들 넉넉하게 가지고 왔다.



“돈은 나중에 내세요.”
산치성을 마치고 떡을 가지러 올 때 경비가 모두 얼
마가 들었는지 계산해서 똑 같이 나누어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남자 주민 몇 사람이 소머리를 손질하고 삶고 있다.

노인회장은 10시까지만 쌀을 받겠다고 다시 방송을
한다.

마을회관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남자 세
사람은 제당에 올라갔다. 제당 주변 낙엽을 쓸어내고
제당 내부도 깨끗이 청소하고 내려온다.



157



산치성 준비에 제일 큰일은 소머리를 찌고 국을 끓이는 일

마을회관에서는 산치성을 지낸 후에 나누어 줄 소머리 국을 끓이는 중이다. 다른 한 사람은 산에 올라갈 떡을 찌고 있다. 작은 양은 찜기에 방앗간에서 빵아온 쌀가루를 올리고 백설기 떡을 찐다. 산에 올라가서 풀잎 미역국과 쌀도 씻어서 준비해 둔다.

예전에는 화주 집에서 하던 것인데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한다.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부인회원들이 일하고 있다.

남자들은 소머리 삶은 걸 건져내고 그 국물에 무와 파 썰은걸 넣고 국을 끓인다. 산치성이 끝나고 떡을 가져갈 때 냄비를 가지고와 이 국도 나눠간다.

오후 4시에 산신각에 올라간다.
제단 등 모두 여섯 사람이다.
아무나 올라가지 못한단다.

차에 준비물들을 모두 싣고 산 아래까지 가서 그곳에서 다 같이 나눠들고 제당까지 올라간다. 소머리가 무거워 보인다.

산신각 안에서는 제단 위에 상지(한지)부터 깔고 제물을 올릴 준비를 한다.

밖에서는 가스렌지 두 개에 밥과 미역국을 끓인다. 소금 간만 하고 맛도 보지 않는단다.

“물 적은 거 같은데?
아니야~ 햅쌀이라 물을 덜 먹어.”

“소머리 잘 맞춰보세요~”

오래도록 삶아서 큰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올라온 소머리를 모양을 잘 만들어서 제상에 올려보라는 소리다.



“이거부터 올려. 소머리부터 놓고 나머지 자리에 판거 놔.”

밤, 대추는 100개씩 구입한 걸 봉지 채 그대로 올린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야되니까. 오늘 쌀 낸 사람들, 이따가 하나씩 나눠 줘야 되거든. 과일, 사과, 배는 여기 제사지낸 사람들이 먹고… 개인들 떡 줄 적에 하나 씩 줘야돼.”

“사과는 여기 안 놓는데 왜 사왔어?”

“아니, 왜 안 놔 , 놓지 이 사람이, 전부터 놓는 건데… 자꾸 나 헛갈리게 만들래?”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야.”

“여기는 났어.”

“근데 놓면 좋지 머”

“밤이 여기, 원래 홍동백서로 놓는 거야.”

“조율이시 맞아요.”

“이 씨 집안 지내는 걸로 하냐?”

“여기는 여기 놓던 대로 해”

밥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가 화주? 라고 대답하고 노인회장은 ‘시다바리’라고 해서 모두들 웃었다. 토박이라 밥 짓는 일을 자주 한단다.

금년 대화주, 제관인 이병구 씨가 주로 맡아서 한다.





제상차림은 ‘산신지위’ 위패를 가운데 세우고 그 앞에 백설기 떡시루를 두었다. 그 오른쪽으로 소머리를 놓고 앞줄 왼쪽부터 대추, 생밤, 배, 감, 사과를 올렸다.

밥과 국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제상으로 옮긴다.

진설을 마치고 제를 시작 한다. 제관 세 사람은 제당 안으로 들어간다. 오후 4시 37분이다.

단잔에 절은 세 번하는 하금오리 산치성

- 제관이 막걸리 한 대접을 따라 다른 제주에게 주면서 밖에 버리고 오라고 한다. 제당 주변 곳곳에 버리고 들어온다. 새 막걸리를 찾아 준비해 놓고 제를 시작한다.

- 세 사람이 같이 절을 한다. 강신부터 하는 거란다.
- 제관이 가운데 앉아서 술을 한 잔 올리고 향을 피우고 왼쪽 사람이 저분을 제기 위에 올린다.
- 다 같이 절을 두 번 하고 수저를 세 번 소리 내서 친다.
- 잠시 가만히 서 있다.

- 제관의 신호에 따라 셋이 다시 두 번 절하고 가만히 서 있다.

“됐어~ 인제” 밖에서 누가 소리친다.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 시접을 세 번 두드리고 다 같이 재배하고 잠시 서 있다.
- 수저를 세 번 두드리고 다시 절을 한다.



제관은 제상위의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막걸리와 같이 들고 산신각 뒤로 간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돌 위에 얹어 놓고 그 위에 막걸리를 세 번에 나누어 붓는다. 남은 막걸리를 사방에 조금씩 버리고 노인 회장에게 주면서 음복하라고 한다.

“제관이 음복해야지, 왜~”

노인회장이 축원과 이름을 적은 명단을 들고 소지를 릴 준비를 한다. 노인회장이 독축부터 한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준비됐어?”

당집 앞에서 불을 가운데 놓고 제관 둘이 준비하고 있다.

단기 4349년 음력 10월 초하루 하금오리 꽃동네 마을 주민 뜻을 모아 산치성을 올리오니 정성의 뜻을 받으시고 산신령님께옵서는 마을주민의 안녕과 행운을 내려주시옵소서 소리를 대례로 받아주시옵고 마을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소지 올려.”

“이병구~”, “이선노~”, “현창식~”, “박종식~”

노인회장이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면 한 사람은 소지종이를 떼어주고 한 사람은 불을 붙여 개인소지를 올린다. 양은 대접에 재를 담고 있다. 제관 세 사람의 소지를 제일 먼저 올린다.

80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고 소지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제관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올리고 있다.

“이상으로 소지를 마치오니 마을에 무탈을 기원드립니다.”

“이거도 태워야지.”

큰 축문 명단에 불을 붙이고 제관이 당 옆자리에서 한참을 태우고 있다. 잘 올라간다고 한 마디씩 한다.

다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한다. 막걸리에 미역국과 소고기로 한 잔씩 한다.

“내려가면 또 고생이야.”



다들 짐을 정리해서 한 다라이씩 들고 회관으로 내려간다. 산신각의 문은 열쇠로 잠겼다. 오후 5시 20분이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미리 떡을 담아둔 비닐봉지에 밤, 대추 하나씩, 그리고 고기 세~네토막을 더 담았다. 제비를 낸 수만큼 비닐봉지를 준비한다.

산치성이 끝나고 마을회관에 내려와 통장이 하는 방송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산치성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은 마을회관에 오셔서 떡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현금 만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물가가 비싸 조금 부담이 되겠으나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비로 만원씩을 가지고 오라는 안내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4~5천원 씩 냈는데 인원이 적어져서 더

많이 내게 된다. 지난해에는 7천원 씩 냈다. 제의비용을 아침에 쌀을 낸 사람 수대로 나누어 받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쌀과 제비를 2~3몫씩 낸 집도 있다. 딸, 아들의 몫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누어 가는 것도 그 몫 만큼이다.

아침에 쌀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명단을 확인하고 떡 봉지와 국을 담아 간다. 모두들 냄비를 하나씩 들고 왔다. 뜨거운 소고기 국이 맛있어 보인다.

“고생하셨습니다.” 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전승의 주인공들

이 마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2036년까지
운에 맞는 제관의 띠를 미리 봐두었다는 것이다. 이
일은 지금까지 꽃동네 산치성이 전승되는데 일조하신
최성용(90세) 씨다.

“언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날 일진을 봐서,
생년월일 봐서 산치성 드릴 제관을 뽑는거예요. 생기
복덕을 가리는 건데, 육갑을 봐서 하는건데, 복덕일이
라고 있어요. 생기복덕을 가리는 법이 있어요. 만세
력을 보면 오늘 일진이 2016년 병신년이고 시월
초하루가 병술날이란 말이야. 병술날에는 생기
는 나이가 26, 34, 54... 복덕은 29, 37, 45,... 이
거든. 이거는 만세력이나 책력에서 나와요. 오늘은
병술이니까 술일에 찾아서... 개날에 젤 좋은 나이
가 요렇게 나와요. 나는 한학을 했어. 한학 선생님
한테 배웠고, 우리 선조님은 선조님대로 한학을 배
웠지... 후대들에게 가르쳐 줄라고 이걸 뽑아뒀는
데...”

목소리가 활기차시다. 한참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옛날에는 소를 한 마리 그냥 잡았어. 결국에는 동
네잔체가 나오는 거지. 전부 얼마씩 분배해주고 거기
서 끓여서 전부 먹고. 뽑는 거는 그 전날, 음력 9월
말일 날 뽑아. 왜 9월 말일 날 뽑느냐, 뽑혀진 사람이
혹시 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여를 못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 그 전날 뽑는다 말이지.”

“옛날에는 나 어릴 때는 뽑힌 사람 집 앞에 빨간 흙을
뿌려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못가. 지금은 그렇게
는 못하지만 어저께 뽑아 놓면 그 사람은 부정한데
가지 말고... 친척 초상에도 못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저께 뽑아...”

“치성에만 치중해, 기록으로 남고하는 게 없어.
동네사람은 다 경건한 마음으로 치성을 드려.”

“그 전에는 호원동도 있었고 송산도 있었고, 다 치성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호원동은
지금도 있을 걸? 다 없어졌어? 여기도 시방 아파트를
짓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외지
사람들도 동네풍습을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들은 참여해요.”

“이건 계속 계승을 해야지. 우리 말고 또 우리 후손,
후손들에게도 전해야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안녕과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으면 나쁘게 아니라고
생각해. 동네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성용 어르신은 다시 한 번 내년까지 좋은 제관 띠를
설명 해주고 집으로 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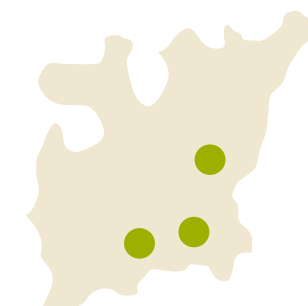
“그 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맨날,
니들이 해라~, 니들이 해라~ 그러셨어.”

“제주는 젤 기운이 좋은 사람이 간택이 되니까
그 사람은 좋지요 머, 동네를 위해 하는 거니까 머,
다들 만수무강하길 빌어야지”

“이렇게 뽑아놔도 직장 나가야되면 또 바뀌야 돼요.
직장 평일 날 빠지기 힘드니까. 저도 아침에는 사무
실에 좀 늦게 간다고 하고, 저녁에는 또 조퇴하고
와야 해서, 힘들어요.”

노인회장님과 이번에 제주로 뽑힌 분들이 한참 설명
하신다.

이 마을 산치성은 노인회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다. 왼쪽 뒤에 계신 허수영(20통 통장, 노인회장, 전
청년회장, 일복쌀슈퍼 운영) 씨다. 그 오른쪽이 금
년도 제관인 이선노(6통 통장, 용띠) 씨, 이병구(69
세, 쥐띠) 씨, 앞줄 오른쪽이 제관 현창식 씨. 가운
데가 박종식(65세, 20통 새마을지도자, 이중계 회
장, 창건철물점 운영) 씨, 그 왼쪽이 김철수(22통 통
장) 씨다. 산치성이 끝나고 산신각 앞에서 기념촬영
을 했다.



9 파주의 마을공동체 의례

9-1 금병산 산치성

9-2 진지동 진대고사

9-3 학령산 산신제

파주
금병산 산치성

파주시 광탄면 창만 5리

금병산은 파주시의 광탄면 북부에 위치한 산이다.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비단병풍을 둘러친 모양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란다. 294m 높이로 금병산 산림공원으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금병산(錦屏山) 줄기는 법원읍과 광탄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의 남사면 쪽에 창만리가 있다. 도마산초등학교가 있는 방향이다.

이 마을 중 창만 5리 마을회관이 이른 시간부터 북적거린다. 매년 음력 10월 1일 해가 뜰 때면 산치성을 올릴 날을 택하는데 금년에는 당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양력 10월 31일 자정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를 이유로 약 5년간 중단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단다.

산치성을 올리는 장소는 마을 안쪽으로 금병산을 오르는 길에 산치성 터를 마련하고 작은 제단을 준비해 두었다. 원래 당집은 금병산 정상부에 있었으나 1998년부터 산 아래로 제단을 옮겨 지내고 있다. 제단을 옮기기 전에는 3년동안 아래로 내려다 모시겠다고 산치성을 올릴 때마다 산신에 고했단다.

산치성을 올릴 제관도 당일 선정한다. 금년에 제관은 이선호 노인회장이, 당주는 윤재욱, 소임은 이준근 이장이 맡았다. 축관은 없다. 별도의 축문 대신 소지를 올릴 때 입 축언을 하는 방식이다.

산치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성 전에 목욕재개를 한다. 금줄을 치지는 않았으나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제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의비용은 마을회비를 먼저 사용한 후 총 비용을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똑 같이 나누어 걷는다. 참여자는 미리 봉제사 명단을 만들고 각자 개인
 소지를 올려준다.

드마산기영주영풍

이길길길정정미정길길길복길길이노복길길은길은이은이래산
호주시경재재수재상상상병상상병병정상상자근의준재선
노원원원준호봉환혈도덕관정윗준환재반우환택창근우호등신

竹 주 수 소 소 지 수 조 취 행 드 관 산 주
 아 전 처 수 주 지 사 기 강 주 바
 지 차 주 지 기 대 래

준비물과 같이 적은 산치성 봉제 명단

2016년 병신년 산치성 봉제명단이다.

산신소지를 제일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대동소지를 올린다는 명단이다. 이어서 제관과 당주, 소임의 소지를 올린다. 그 외 22명의 소지를 올린다. 끝부분에 도마산초등학교 이름이 눈에 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반드시 올린단다. 봉제 명단은 지난해와 대동소이 하다.

그 아래 적은 준비물도 색다르다.

삼, 칼, 도마, 행주, 취장대, 모사기, 수저, 소주, 소금, 술 채, 주전자, 박아지다. 모두 조라 술 향아리를 꺼내고 작은 제당을 꾸미고 음복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산치성 준하는 특별한 황소 한 마리를
주문하는 일부터”

이 마을 산치성 준비는 아마도 한 두 달 전에 특별한 소 제물을 주문하는 일부터 시작되지 싶다. 거세하지 않은 황소를 제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한 마리에서 소머리, 소족, 소꼬리, 소날, 소적 등 다섯 부위를 생으로 구입해야 한다.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올리는 것과 진배없단다. 마을회관에서 직접
손질 하고 삶아서 제장에 올라가기 까지 일이 크다.

소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몇 사람은 산치성 터를 준비하기 위해 올라간다. 제초기로 길을 만들면서 올라가서 제장 바닥의 풀을 베어 한 곳으로 모으고 나무 가지도 잘라서 정리한다. 풀을 베고 보니 꽤 너른 공터에 얇은 대리석 단이 있다. 소임은 조라 향아리와 짚주저리를 가지고 가서 제단 옆에 파인 부분에 묻고 주저리를 덮어두었다. 향아리 안에는 이미 익은 술이 담겨있다. 자정에 올라와 제를 지내기 전에 채에 걸러 제주로 쓸 요량이다. 제장을 깨끗이 준비해 두고 다시 마을로 내려 왔다.





늦은 밤에 지게에 지고, 경운기에 싣고 제를 지내러 올라가...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제물과 준비물들을 나누어 지게에 지고, 경운기에 싣고 제당으로 올라간다. 예전에는 집에서 다섯 사람이 지고서 제당까지 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 제물을 지고 가면서 쉬면 안 된다고 했단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사람도

170

산치성 터에 올라가서는 바로 제장을 설치하고 제상을 차린다. 한 쪽에서는 조라 술을 채에 거르고 마을회관에서 씻어서 준비해 준 쌀로 노구메를 짓는다. 나무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왔단다. 또 한쪽에서는 화톳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된다.



제장은 3면과 천장을 광목천으로 가려 제단 위에 차린 제상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 얇은 돌 제단 위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171

제상 가운데 삶은 소머리 한 다라이를 놓고 그 왼쪽에 삶은 고기 부위 한 다라이, 오른쪽에 팔 시루 떡 한 시루를 올렸다. 소머리 앞으로 노구메를 솔 채 올리고 왼쪽에 통 북어 한 마리를 올렸다. 제일 앞 줄 왼쪽부터 빈 그릇과 대추, 밤, 배를 올렸다. 조라 술도 준비했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노구메 술을 제일 마지막으로 상 가운데 올리고 바로 제를 시작한다.





172



- 제관이 앉아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앉는다.
- 술을 한 잔 받아서 왼쪽으로 세 번 돌리고 제상에 올린다.
- 밥 위에 숟가락을 꼽고 저분은 종지 위에 걸쳐둔다.
- 제관이 두 번 절하고 앉았다.
- 참으로 정성스럽다.

제관의 단잔단배로 끝났다.

이어서 소임을 맡은 이장이 옷 안쪽 주머니에서 봉제명단을 꺼내면서 제당에 오신 분들은 명단을 부르며 본인 소지는 직접 올리라고 한다. 소지종이를 반 접고 느슨하게 감아서 촛불에 붙여 올리라고 먼저 시범을 보인다.

첫 소지에 불을 붙여 제관에게 산신소지라고 하면서 전해 준다. 제관은 소지를 받아서 태우면서 입 축언을 한다.



173

“산신소지 올리시다. 산신님 제발 동네 모두 무사 태평하게 해주십사.”

“대동소지 올리시다. 대동이 모두 일년 내내 몸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도록 해주십사~”

이어서 각자 소지를 올린다.

“000소지 올리시다. 집안 무고하고 어린아이들 그저 몸 건강하고 별 탈 없이 해주십사~”

“000소지 올리시다. 몸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도록 해 주십사~”

“000야 일로와. 니꺼 올려~”

“000 소지 올리시다...”

“상만네 꺼도 올리고...”

“00야, 자~”

소지종이에 불을 붙여서 넘겨준다.

“000아버지, 이거 00꺼 올려주세요.”

제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같이 제상 앞에 모여들어 본인 소지부터 올리고 다른 사람들 소지도 올린다. 이장이 명단을 보면서 소지종이를 촛불로 불을 붙여서 넘겨준다.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봐 손으로 꼭꼭 잡고 있다.

“000 소지 올리시다. 집안 무고하고 몸 건강하게 도와주십사~”

“이건 000소지 올리시다~ 사업 번창하게 도와주 십사~”

집안 무고와 몸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입 축언을 하면서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다른 가족들 것도 더 올리라고 권한다.

소지가 다 끝나자 이장은 봉제명단을 태우지 않고 다시 보관한다.

당주가 제상에서 밥을 조금 떠서 제상 한 곁에 놓고 뚜껑을 덮는다.

제관은 마지막으로 재배한다.



당주는 소머리에서 고기를 조금 자르고 대추 하나, 밤 하나, 배도 조금 잘라서 한 지에 담았다. 떡도 조금 잘라 담고, 조금 떼어둔 밥도 같이 놓았다. 꼭 여미지 못하게 하더니 직접 짚 주저리 옆에 갖다 두었다. 고시레다.

제상의 잔을 내려 제관에게 음복 잔을 준다. 한 잔을 다 마신다. 고기와 소간을 잘라서 안주로 준다. 다들 모여 조라 술 한 잔에 고기 안주로 간단히 음복하고 내려간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 복받을려면 음복 한 잔은 해야지.”
 “한 잔씩 하는 거야, 이 술은~”
 “맛있는데? 좋아요.”
 “산 거보다 나아요.”
 “고기도 맛있는데요?”
 “이 고기는 특별히 부탁한거야. 식어도 맛있잖아.”
 해마다 좋은 부위로 한 두 달 전에 미리 주문한 거야.”

한 잔씩 권하느라 분분하다. 모두 정리해서 마을회관에 도착하면 음복상이 준비되어 있다. 다 같이 음복하고 고기와 떡 등 제물을 나누어 간다. 부녀회원들의 일이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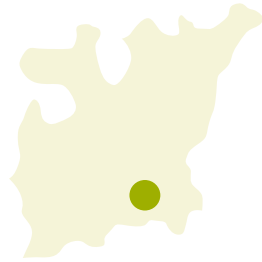
금병산 산치성은 창만 5리 마을회 주관으로 전승되고 있다. 1970년대에 몇 해동안 산치성을 지내지 않았을 때 마을에 번고가 생기고, 당시 마을 이장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산치성 제단을 아래 장소로 옮기기 위해 3년간 산신에 고했다는 사실도 신앙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특히 소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제관의 단잔단배, 서로들 입 축언을 하면서 본인 소지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 소지도 올리는 소지 장면에서 마을공동체 의례의 본모습을 본다.

그 중심에 소임 이준근 이장, 윤재욱 당주, 이선호 노인회장이 있다. 물론 부녀회와 청년회의 든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모두 금병산 산치성 전승의 주인공들이다.



파주 진지동 진대고사



파주 광탄면 용미 4리

마을고사라기에는 좀 크고, 굿이라기에는 작은 진지동 마을공동체 의례

파주 광탄면 용미리는 옛 국도 1호선인 의주로가 지나며, 벽제관에서 혜음령 고개를 넘어 고개 우측에 자리 잡은 농촌마을이다. 용미 4리는 진지동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나라 병사들이 적장의 목을 베어 진대에 매달아 두기도 했단다.

마을에는 실제로 2기의 진대가 있다. 용미 4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 장지산로를 지나 혜음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삼거리 코너에 가느다란 진대가 1기 서있다. 할아버지 진대다. 그 전에 용미초등학교 건너편에 할머니 진대가 있다. 잘 보이지는 않는다. 장대 위에는 새를 한 마리 나무로 깎아 엮어두었는데 그 앞은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재밌다.

이여송이 진을 쳤던 시절에 피난을 갔다 오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울 쪽의 재물을 이 마을에 물어오라고 새 주둥이를 서울로 향하게 놓았단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유래가 강력하게 작용해서일까? 진지동에서는 매년 단골무당을 청해서 진대굿을 전승하고 있다.

“이 마을은 삼거리 진대할아버지, 진대할머니, 산신, 서낭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에서 모시는 마을도당이 계세요.”

마을회관 앞으로 나지막한 산 위에는 산신을 위하는 나무와 서낭 터가 있다. 현 상태만으로 봐서는 마을 도당인 마을회관을 중심에 두고 앞쪽으로 세 방향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다섯 곳을 돌면서 다 치성을 드려요.”

“서낭은 그냥 서낭님이야. 산신 할아버지 있고,
진대 할매, 할아버지. 개인도 동네고사부터
지내야 하지 그전에는 못해.”

“진파백이야, 옛날부터 진파백이라 그랬어.”

할머니 진대가 서 있는 곳을 말한다.

“해마다 음력 시월 초사흘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예전엔 택일하여 음력 10월에 산치성과 진대굿을 했으며 초상이 나면 날을 물렸다. 1962년도부터 음력 10월 3일로 고정하고 고사 형식으로 간단하게 지냈더니 마을에 우환이 생겨 1988년 이래 다시 대동굿으로 하고 있단다.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제를 지낸다. 2016년에는 11월 2일 화요일이었다. 예전에는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늦은 시간에 끝났는데 금년에는 오전 12시 전에 시작해서 저녁 6시 전에 끝났다.

이 마을의 경우 별도로 제관이나 축관을 선정하지 않는다. 무당이 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 총무, 부녀회장이 중심이 되어 무당이 부르면 제상에 복비를 놓고 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진대할아버지 고사 때에는 주민들이 제상 앞에 많이 참여한다.

제의에는 용미 4리 6개 반이 동참하고 있다. 각 반에는 남자, 여자 각 한 명씩의 반장이 있다. 그래서 모두 12명의 반장이 있다. 용미 4리 전체로는 350가구 8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위치라 가구 공장 등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 중 원주민은 45~50% 정도로 보고 있으며 지금도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다. 원주민 중에서도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마을 제의에 참여한다.



용미 4리 마을회관이자
경로당이자, 부녀회관이자
청년회관을 마을도당으로 쓰고.

마을회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여성 노인 회원들과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제물과 음복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날 점심식사부터 저녁 음복까지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셨다. 주방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준비한다.

사무실 방에서는 용미 4리 윤보한 이장과 윤태한 총무가 반장들이 가지고 오는 제비를 접수받고 있다. 각 반장이 받아서 마을 운영회 총무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개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성의껏 낸다. 2015년에는 61명이 소지명단에 적혔다. 금년에는 58명이다.

아침 10시 경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제의 준비는 무당이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무당은 제물을 챙기면서 할머니들에게 소지종이를 맡겼다. 작은 방에 스무 명 남짓 둘러 앉아 소지종이를 접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다섯 뭇의 치성 상차림

진지동 마을공동체 의례는 모두 다섯 곳에서 진행된다. 마을 도당, 산신, 서낭, 진대할아버지, 진대할머니 순이다. 물론 상차림도 각각의 뭇으로 준비한다.

마을에서는 제물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가 무당이 와서 뭇별로 담는데, 무당이 여러 번 강조한다.



“삼거리를 잘 쳐야 되니까 양을 많이 해”

삼거리에 있는 진대할아버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제물상에 많이 배분하라는 소리다.

북어는 실타래를 묶어서 세 마리를 준비한다. 붉은 팔시루 떡도 세 시루다. 그 위에 작은 접시 크기로 세 개씩 흰백설기를 올려 찢다. 시루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마을도당과 산신, 진대 할아버지 뭇이다. 북어는 시루 위에 올리는 짝이 된다.

밤, 대추, 사과, 감, 배, 그리고 육적, 두부,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로 삼색 나물을 올린다. 두부는 전과 생 두부를 같이 올린다. 생 두부는 네 모서리를 잘라 낸다. 그제 옛 법이란다.

“서낭은 그냥 서낭님이야, 산신할아버지 있고, 진대 할매, 할아버지, 개인도 동네고사부터 지내야하지 아니면 못해.”

마을회관 → 산신 → 서낭 → 진대 순으로 이동하면서 지내는 동네고사다.

도당고사

다섯 뭇으로 제물을 모두 나누어 준비해두고, 무당은 제상 앞에 앉아 부정을 친다. 마을회관에서 도당을 모시는 절차다. 도당은 마을의 중심이고 마을 주민 모두를 의미하는 대동고사다. 가정으로 치면 성주에 해당된다. 12시 30분이다.

제상 앞에는 무당이 직접 한지에 적었다.

병신년 10월 3일 용미 4리 마을도당고사
경기도파주시 광탄면 상지산로 43번지
용미 4리 마을 도당고사임을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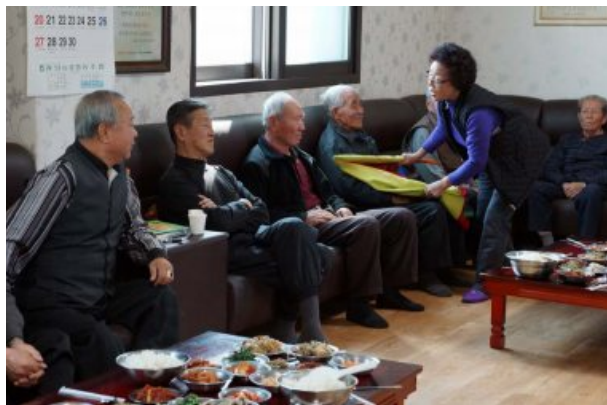
무당은 부정을 치면서 이장과 마을대표들에게 절을 하라고 권한다. 대표들은 소머리에 북비를 놓고 절을 한다. 무당은 오방기를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가 오방기로 방안을 휘휘 돌고 할아버지들을 기로 끌어내면서 부정을 치고 축언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가 기로 털어내고, 할머니방과 주방, 사무실 방을 모두 둘러 부정을 쓸어낸다. 할머니, 부녀들 몇몇은 오방기를 뽑고 부정을 물리고 공수를 받는다. 다시 제상 앞에 와서 춤을 추고 절하고 끝낸다.

다 같이 방마다 둘러 앉아 점심을 먹는다.
할아버지방 20여명, 할머니방 20여명, 주방 20여명.

할머니 한 분이 흰색 기를 뽑자 산신에서, 불사에서 지켜준다고 하면서 공수를 준다.



“도당 신령님이 거뒀주시고 밝혀주시고~
산신칠성님이 지켜주셔서 오래사시겠어~”

연두색 기를 뽑은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자손에게 조심하라고 전하란다. 삼 세 번을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뽑게 했는데 또 같은 기를 뽑았다. 세 번째도 같은 기를 뽑았다. 기를 뽑은 사람의 몸을 오방기로 쓸어내면서 10월에 관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란다.

할머니방, 부녀회원 방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방기 뽑기를 마무리하면서 조상님이 다 거뒀 가신다고, 제사 잘 지내라고 당부한다.



오방기를 벌리고 복비를 걷고 도당 상 앞에 와 앉았다.

“사업가는… 열어놓고 장사자는 영업문 열어놓고
공직자는 관운을 열어 놓고~”

무당은 마을 총부, 부녀회장을 불러 절하라고 시킨다.

“마을 편하게 도와주십사, 두루두루 마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사고 없이 편안하게 도와주마~ 명 많이 주고
복 많이 줘서 자손들 편안하고… 모두 도와 줄테니
걱정마라~ 각성마다 집집마다~”

“누가 산 받을 꺼야?”

“복 산으로 내리소사, 명 산으로 내리소사~”



제상 앞으로 돌아와 소머리와 떡 시루를 삼지창에 꽂고 사실세우기를 한다. 부인들은 사실이 잘 섰다고 한마디씩 한다. 도당에서 동민들의 정성을 잘 받았다는 의미란다.

사실을 세웠던 소머리와 시루는 장사하는 사람이 받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운이 좋다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불러, 무당이 밀어 넘어뜨리면 받게 했다. 마을 총무가 받았다.

무당은 막걸리 그릇에 대추, 떡 등 제상위의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고 회관 밖으로 나가 부정을 물린다. 사방에 돌더니 식칼을 밖으로 던진다. 칼끝이 밖을 향하자 마무리 하고 들어왔다.

‘진숙엄마’는 시루떡을 한 쪽씩 잘라 담아 방, 주방 등 곳곳에 가져다 두었다. 무당은 어르신 중에 누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도당고사를 끝낸다. 오후 1시경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났다. 바로 산신에 올라간다.





산신·서낭고사

산신은 마을회관 앞 낮은 산 중턱에 큰 소나무 한 기를 두고 조금 너른 터를 마련해 두었다. 서낭은 같은 장소 터 끝부분에 마을 쪽을 내려 다 보면서 고사를 드렸다.

이장과 총무, 네~다섯명의 남자 주민, 부녀회장, 부녀회 총무가 같이 올라와 제사를 준비하고 제에 참여했다. 무당은 제상 앞에 앉아 부정을 치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춤을 추고 사실을 세우고 오방기를 뽑고 공수를 내리고 액운을 물리고 축원을 하고 칼을 던지고 부정물을 버리고 마무리 한다. 절차와 방식은 도당고사와 동일하다.



무당은 비손을 하면서 지난 해 산제 터 주변 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잘 만들었으니 잘 봐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한다.

그런데 산신에서 떡 시루로 사실을 세우는데 잘 되지 않는다. 마을 대표들이 복비를 놓고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드리고, 소금을 뿌려 부정을 물리고 또 술 한 잔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쓴다.

“염탐하지 마시고 썩 받으시고 동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산신님.”

“시루, 할아버지가 안 받으시네, 누가 부정 탔는자... 통사술로 받으셔야 하는데, 염탐만 하셔~”

육 신령님 먼저 받으실라나 보다고 하면서 소머리로 바꾸어서 다시 시도한다.



이장과 마을대표들이 소머리에 복비를 물리고 절을 하고 한참을 애쓰고 나서야 사실을 세웠다. 떡시루도 다시 쉬이 세우고 오방기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기를 뽑게 한다.

누군가 연속으로 연두색 기를 뽑자 가지고 올라온 오색 천을 자르고 오방기로 몸을 쓸어내고 기를 그 사람 머리에 덮어씌우고 칼로 찌르고... 식칼을 던져 보더니 칼끝이 밖으로 나가자 끝낸다. 오방기를 다시 뽑게 하니 빨간색 기를 뽑았다.



“서낭에서 태우세요, 소지느.”

무당과 같이 온 박수가 혼자 산신 터 뒤쪽으로 서낭상 제물을 가지고 간다. 징을 두드리면서 경을 읽고, 무당이 소지종을 태웠다. 제물을 모두 잘라서 던져 버린다.

“여기가 서낭이야.”

오후 3시 30분이다. 산신과 서낭고사를 마쳤다. 삼거리에 있는 진대할아버지로 바로 내려왔다.





진대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사

진대 앞에 제상을 차리고 무당이 제상 앞에 앉았다. 절차와 방식은 도당, 산신고사와 같다. 다만 진대 할아버지 고사에는 한쪽에 화톳불을 피우고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 주민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무당의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소지를 올리는 데 이때 무당이 내리는 공수를 듣기 위함이었다.

“도당에서 니네 다 잘되고, 부자 되게 해 줬거늘 나는 요거만 주냐?”

어떻게 산신에 올렸던 제물을 진대 할아버지 제물로 또 쓰냐고... 소머리와 제물에 대해 진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란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마을 대표들이 나와서 대답한다.

무당은 이장, 총무, 부녀회장, 부녀회 총무 등 이번 에 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도 부자 되게 도와준다고 축원을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실 세운 거 받으라고 누군가를 부르는데 바로 오지 않아 넘어지고 말았다. 다시 세우려고 애쓴다.

부정물을 칼에 뿌리고 창에도 뿌리고 하면서 칼을 밖으로 던져본다. 칼끝이 밖을 향하자 다시 사실세우기를 시도한다. 바로 섰다. 이장이 나와서 받았다.



이어서 소머리도 사실세우기를 한다.

마지막 절차로 소지를 올린다. 4시 30분이다.

마을 총무가 제비를 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무당이 소지를 올린다. 1반부터 4반까지 순서대로 60여명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상 앞으로 나와 공수를 내리기도 하고, 액막이를 간단히 해주기도 한다. 아들의 이름을 적은 부모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무당이 개인 소지를 모두 올리고 물러나면서 소지명단은 이장이 태우라고 한다. 대동소지는 이장이 올린다는 의미다.

무당은 제상 앞으로 돌아와 칼을 던져보고 부정물을 여기저기 뿌리고 끝낸다.

일찌감치 준비해 두었던 부정물 바가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에 쓰였다. 산신고사에서 마지막에 사방으로 뿌렸다. 모든 잡귀, 잡신을 쫓아내는 의미다. 오후 6시가 좀 넘었다.

주민들은 모두 마을회관으로 돌아갔다. 회관에는 부녀회원들이 차려둔 음복상이 준비되어있다. 대동이 모두 모였다.

전승의 주인공들

“이걸 없애려고 해도 너무 열성적인 어머님들이
계셔서 못해요. 아주 열성적이세요.
수 백 년을 이어 온 건데… 안 지냈다가
마을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고…”

윤보한 이장(54세)의 말이다. 4년째 이장을 연임하고 있는 마을 토박이다. 고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관심거리는 무당을 청하는 일이다. 오래도록 이 마을 고사를 해주던 “광탄 사는 돼지엄마”가 4년 전에 사망한 후에는 마을에 맞는 무당을 청하는 일이 고민이다. 금년에 온 김익순(66세) 무당은 파주 법원리에 살면서 감악산, 북한산 등에서 주로 굿을 하고 충청도 등 재가 집굿이나 고사 일도 한다. 50세 때 선거리로 작두를 타고 내림을 받았단다. 마을의



"간단히 비손하고 돌아온 진대 할머니 고사"

진대고사가 끝날 무렵 부녀회 총무와 할머니 몇 분이 할머니 진대에 다녀왔다. 별도로 준비해 둔 제물을 가지고 가, 간단히 비손하고 절하고 왔단다. 가지고 간 제물은 모두 버리고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다.

진대 할아버지 고사를 마치고 무당은 진대 할머니 쪽을 바라보고 절하면서 비손한다.

“옛날에는 며칠씩 큰 굿을 하던 동네야, 여기가.
지금은 이래하지만…”

그래서 진대 굿이라고 하기에겐 소규모고 고사라고 하기 에는 좀 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가정으로 치면 무당을 청해서 하는 고사가 맞다. 무당이 진행하는 마을 대동고사인 것이다.

열성 할머니들과는 평소에 잘 아는 사이란다.

그 “열성적인 노인회 어머님들” 중에 ‘진숙엄마’ 이명순(78세) 씨와 노인회 여자 부회장 등 몇 분이 눈에 띈다. 이른 시간부터 마을회관에 나와 무당이 쓸 ‘부정 바가지’를 직접 만들었다. 부정한 잡귀를 물리칠 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1998년에 파주에 물난리가 났을 때만 고사를 못 지내고 다 지냈다는 얘기도 해주셨다. 이제 동네고사를 지냈으니 집고사도 날 잡아서 지낼 거라고 하면서.

“옛말에 새 법 내지 말고 옛것 잘 지키랬다고…”
무당에게도 몇 번이나 강조하시는 ‘진숙엄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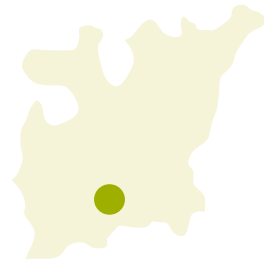
이명순 씨의 남편인 신창순(81세, 전 노인회장) 씨도 열성적인 어르신 중 한 분이시다. 산신 터를 미리 청소할 때도 올라가시고, 당일 날 진대 주변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도맡아 하고 계셨다. 진대를 만들어 세우고 관리하는 일도 오래도록 해 오셨나보다.

그리고 제사상에서 하루 종일 복비를 내고 절하고 무당을 상대하는 일은 이장, 총무, 부녀회장, 부녀회 총무 등 마을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무당이 하는 걸 조용히 지켜본 “열성적인 노인회” 회원 모두가 주요 전승자들이지 싶다.



파주 학령산 산신제

파주 금촌 1동 아동동



파주시 금촌은 시청소재지로 변화가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학령산이 자리해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금촌 시내 뒤쪽에 있는 금산이 머리가 되고 양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학모양이라 붙은 이름이다. 해발 195m로 학령산 산림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주변에서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 학령산 밑자락에서 있는 아동동에서는 매년 학령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금촌 1동, 아동 1통 마을회에 속하는 건너말, 안산말, 돌운말, 아랫말이 번갈아 가면서 지낸다. 파주시청과 이어진 학령산을 넘어가면 반대쪽에 아동1통 경로당이 있다. 마을에서는 앞골 길로 산과 연결된다.

매년 음력 10월 14일 자정에 산신제를 지낸다. 2016년에는 11월 13일, 일요일 밤 10시에 지냈는데 음력 10월 14일이었다. 자정이면 음력 15일이 되는 첫 시간이었다. 제의 일시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날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산신제는 지냈단다. 만일 제관 중에 집에 초상이 나도 그 사람은 초상에 참여할 수 없다. 가정사 보다 마을 일이 우선 됐던 것이다. 제의비용은 약 100만원 이내로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산신제는 제관과 축관, 소임을 미리 선정한다. 금년에는 제관 우종수(74세, 노인회장) 씨, 축관 최창영(65세, 노인회 총무) 씨, 소임 이영신(81세, 노인회원) 씨, 이청환(80세, 노인회원) 씨, 정동원(81세, 노인회원) 씨가 맡았다. 산신제에는 이들만 참여한다. 제의 당일 제당에는 외부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제의 참석자들은 새우젓 등 비린 음식을 먹지 않는 등 금기가 남아 있다.

산신제 장소는 1988년에 추가였던 것을 기와를 얹어 개축한 제당이 있다. 마을회관의 남쪽에 위치한 학령산으로 오르는 길에 마련해 두었다. 제사(祭舍)와 산제당 터, 돼지 도축 장소, 노구메 짓는 곳 등이 구분되어 있다. 제사 건물에는 ‘학령산제사(鶴嶺山祭舍)’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제사 왼편 위쪽에 산제당 터가 있다. 삼단으로 시멘트 단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학령산 산신은 할아버지 신령이다.

주요제물은 통돼지 한 마리와 메를 흰쌀밥, 기장밥, 잡곡밥으로 세 가지를 올린다는 것이다. 통돼지는 제당 옆 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하여 제상에 올린다. 그 외 삼색과일과 포를 쓴다. 마을에는 제물목록과 산제사 진설도가 전한다. 늘 이대로 맞춰서 하고 있다.

제물기록에 적힌 준비물들이다.

백미 1되 3홉, 청정미 3홉, 기장쌀 3홉, 술 3잔, 돛 1수, 저 1개, 과실 삼색, 황초 1쌍, 소지 1장, 통후추, 모사, 물수건(버 1자), 대구포(북어포), 무나물 두 그릇, 양주 1병, 소금 1되

제의절차는 통돼지를 도축하고 제장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으로 제장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 제관의 헌작과 축관의 독축, 소지, 음복으로 진행한다. 음복은 당일 제장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다음날 아침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음복한다. 밤 늦은 시간에 산신제가 끝나기 때문이다.

금년에 산신제 일을 보기로 한 소임들은 오전에 이런저런 준비물을 챙겨서 제당에 올라왔다.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가 눈에 띈다. 230근 정도 되는 숯 돼지란다.

제사(祭舍)에 보관해 두었던 제기와 그릇도 꺼내 씻어 두고 불도 지폈다. 학령산신비와 제단에 딱 맞게 세 면과 천장을 천막으로 가려 제물을 진설할 공간을 마련하였다.





돼지를 도축하고 깨끗이 손질하는 데 시간과 공이 많이 든다. 낮은 시멘트 단을 만들어 두었는데 돼지를 손질하는 자리였다. 물이 빠지게 얹어두고 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는다.

“이제 다 했어. 할 거 없어. 이거 하고서 내장 다려서 놓고 그릇이나 부셔서 얹어놓고 그러면 고만이야. 쌀 씻어서 놓으면, 할 거 없어.”
 “날이 좋아서 이따가 돼지 해체도 여기서 하면돼. 불을 여기다 하나 달아서 하면돼”
 “노인네들이 잘 잡춰야 돼. 어서 오세요~”

불 피울 나뭇가지도 한쪽에 준비해뒀다. 제사는 가마솥에 불을 때서 따뜻하단다.



물이 빠진 돼지를 제단에 옮기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천막을 쳐두었던 제단 위에 흰 종이를 깔고 돼지를 엮는다.

“돼지는 앞다리가 무거워. 영감 이거 들을 수 있어?”
 “안돼, 나이는 못 속여~”

“젊은이가 와야지, 우린 뒤에 들어, 너하고 나하고 앞다리 들자고.”

네 사람이 다리를 하나씩 잡고 들어 옮긴다. 제단이 낮지만 두 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알겠다. 윗 단에 돼지를 얹드려 놓고 비닐을 덮어둔다.

“옛날에는 조그만 거 잡아서 지게에 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도 없어서...”

아랫단에도 흰 종이를 씌우고, 촛대로 향로는 미리 자리에 준비해 두었다. 다른 제물을 진설할 단이다.

메를 지을 준비도 마쳤다. 여섯 사람이 제장을 지키고 제물준비를 하고 있다. 제사에 딸린 부엌에서 두 솥은 부뚜막 불에 올리고 하나는 부르스터에 올려 세가지 메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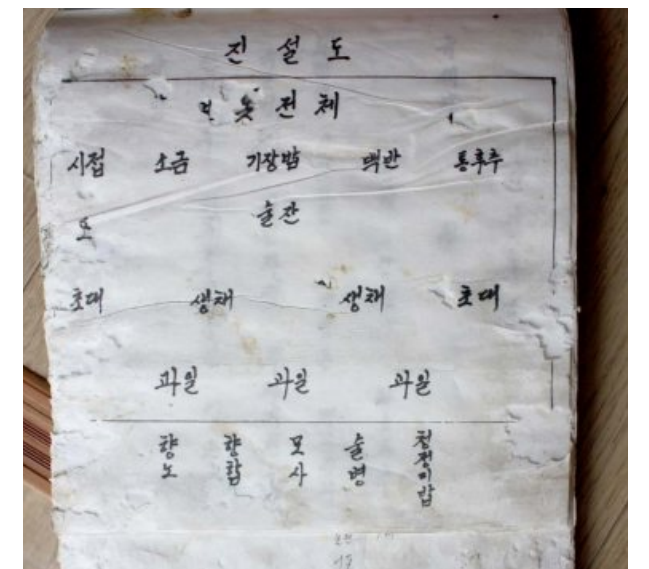
제물준비를 하는 일에 분야마다 오래도록 맡아온 역할이 있나보다. 세 솥의 메를 소임 한 분이 나뭇가지를 꺾어 불을 때면서 아주 정갈하게 짓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중이다.

“아니 그 나이에 담배도 못 배우고 뭐 했어?”
 “담배 피는 사람이 문화인이야”
 “내가 담배 골초였어. 예전에 들에 나갔다가 소 땀 데가 없어서 소를 다시 집까지 끌고 와서 담배 피고 다시 나갔다니까...”

담배 피는 얘기가 그전에 누구누구 얘기로 이어져 끝날 줄을 모른다.

밖에서는 이제 제상 차릴 준비를 한다. 돼지 비닐을 벗겼다. 진설도를 다시 적은 종이를 펴두고 그대로 올린다.

제일 안쪽 줄 왼쪽부터 제기 위에 올린 수저 한 벌을 두었다. 그 옆으로 소금도 제기에 담아 올리고 통후추도 제기에 담아 제일 오른쪽에 두었다. 그 줄 가운데 차조메를 놓고 흰쌀밥을 우측으로 올린다. 기장메는 제일 앞줄 우측에 두었다. 모두 술 채 올린다. 왼쪽 가운데 줄 양쪽에 초를 세우고 그 옆에 통



북어 포 한 마리를 제기에 담아 올렸다. 그 옆에 좀 두껍게 채친 생 무를 한 대접 담았다. 그 줄 가운데 술잔 하나를 두었다. 그리고 제일 앞줄에 배, 사과 한 개씩을 아래 위를 쳐내고 각각 제기에 담았다. 대추도 제기에 담고 소지종이도 한 장 꺼내 놓았다. 제상 아래 향과 술을 두고 돛자리도 깔았다. 진설도와 제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한다. 깔끔하다.



다른 제관이 와서 보고는 북어 대가리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놓는다.

“원래는 대구포를 썼는데, 대구가 짜고 비싸기만 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산신령님도 짜서 못 자실 테니까 안 해도 돼.”

진설을 마치고도 한참 더 10시가 되기를 기다린다.
“땡! 해야 지내나?”

“네, 땡! 방에 들어가서 앉았다 나오세요.”



“시간 됐어요, 어서들 오세요.”

다섯 사람이 제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제관이 무릎 꿇고 향을 피운다.

“한 명은 거기 술 올리고 내여야 하니까 거기 서고...”

“지금으로부터 2016년도 학령산 산신제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마을에 안녕과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내년에도 무탈하게 풍년과 함께 마을이
편안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를 올립니다.”

“먼저, 제관님 절 먼저 하세요.”

“술은 안 따르고 절부터 해?”

제관이 절을 두 번 하고 앉는다.

제관이 잔에 술을 한 잔 받아서 올리는데 제관이
직접 잔을 들고 술을 따르자 축관이 웃으면서 말린다.

“어떻게 제관이 술을 따르고...”

술잔을 받아 상에 올린다.

“이제 다 함께 절 하세요~”

다 같이 절 두 번하고 일어난다.

“수저 세 번 두드리세요.”

“어디다 두드려?”

“아무데나 뭐...”



수저를 올렸던 제기에 세 번 소리 내 두드리고
수저를 밥술에 얹으면서 “밥이나 많이 잡수세요.”
한다. 다시 다 같이 절을 두 번한다.

“끝.”

“이게 끝이야?”

“고만이야?”

안쪽에 서서 사회를 보던 축관이 축문을 집어 들면서
“자, 이제 부복 하세요.” 한다.

“아, 축문. 축문 읽어야지.”

“유세차 병신년 10월 경자삭 15일 병신
유학 우종수 감소고우 학령산신령 지천
시계맹동 정인시의 극근성에...”

산제당축(山祭堂祝)을 한글로 옮겨 적어와
독축한다. 모두 부복하고 있다.

축관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내려 간다.

“상~ 향~”

잠시 멈추어 있다.

“됐습니다.”

“저기 저분 치우시고...”



다시 제기 위에 올려둔다.

“이제 다함께 절 하세요.”

재배하고 일어난다.

“저기 소지 태우세요.”

촛불에 붙여서 밖으로 나가 소지를 올린다.

입 축언 없이 조용하다.

“잘 태웠어?”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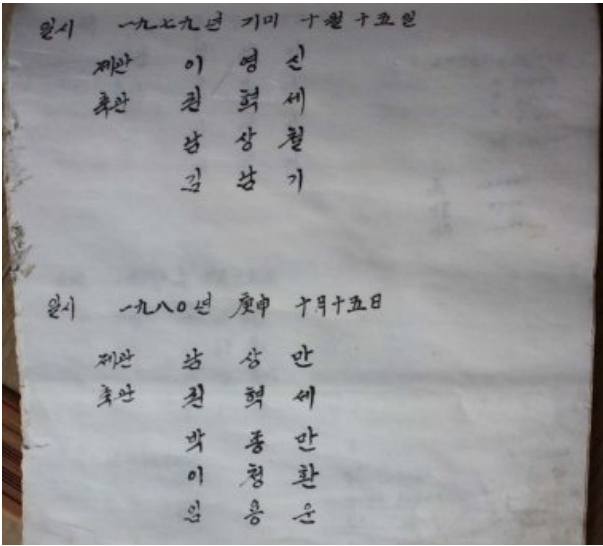
“한 잔 음복하세요.”

“철상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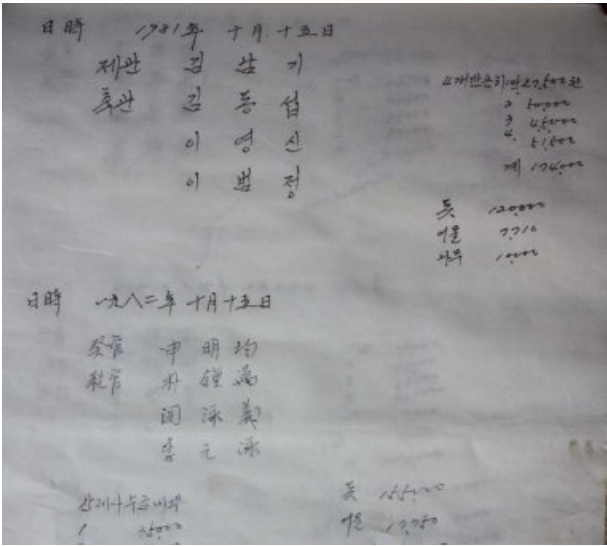
다들 신발을 신고 돛자리를 걷는다.

메부터 내리고 과일도 비닐봉지에 다시 붓는다.
철상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후 돼지를 해체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
음복은 다음 날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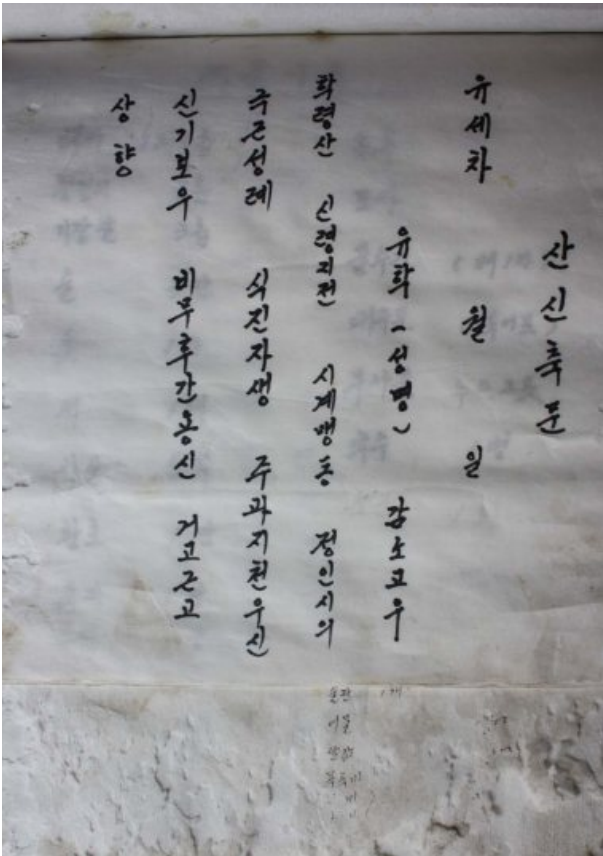


산신제 향약이 전하는 마을

이 마을에는 1905년도에 작성된 산신제향약문이 전해지고 있다. 동민의 안녕과 재해환란을 면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신제 향약을 정한다고 했다.

1. 산신제단은 학령산록에 설함
2.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14일 자정에 시행함
3. 산신제에는 산신축 제물품목 진설도에 의함
4. 산신제에는 제관 2인 소임 4인을 제일 전일에 정함
5. 산신제 기간중에는 제관 및 동민이 일체의 부정과 살생을 금하고 치성에 전력함
6. 산신제에 소요경비는 동민이 분담함

111년 전에 적은 향약문이다. 대부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요경비는 동네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만 달라졌나보다. 3세대가 훨씬 넘게 지켜오고 있는 셈이다. 마을에는 또 산신축문, 진설도, 제물기록, 제관 명단 등을 기록한 장부가 전한다.



왼쪽부터 축관 최창영 씨, 제관 우종수 씨

전승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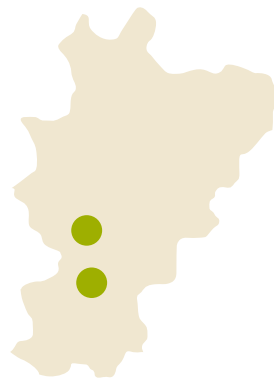
이 마을 산신제는 생 돼지 한 마리를 직접 제장에서 잡아 올리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일이 많다. 돼지를 잡아 손질하고 제상에 올리고, 또 제를 지낸 후에 돼지를 율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230근의 무게다. 산을 내려가기 전에는 큰 탁자 위에 돼지를 올리고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작파’한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다.

미리 제장에 올라와 청소를 하고 제단에 천막을 치고, 그릇을 닦고 메도 짓고, 산제사를 지내고, 끝난 후에 다시 천막을 걷고, 치우고 정리하는 일이 여느 마을과는 다르다. 제관, 축관, 소임으로 선정된 5~6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로 알아서들 하는 모습이 오래도록 이 일을 같이 해 본 사이인 듯하다. 노인회 주관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마을 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내가 그때 서른 살부터 여길 올라와서 했으니... 장가 간 사람 외에는 여길 못 올라와요. 내가 스물 아홉에 장가를 갔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거 걸린거야. 이거는 노인네들하고만 하는 건 데 그때 참 새파란 놈이... 그 노인네들 다 돌아가셨는데 머.”

금년에 축관을 맡은 최창영(65세, 노인회 총무) 씨 얘기다. 그래선가? 산신제를 지낼 때 마치 사회를 보듯이 제를 진행했다. 그 만해도 35년째 마을 산신제를 모시고 있는게다.

돼지를 해체하는 작업은 밤 늦도록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산제사를 준비하고 지내고, 마무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음복하는 내일 아침까지 이들의 노고는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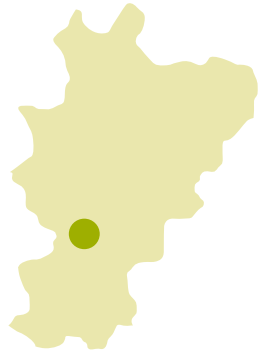
10

포천의
마을공동체 의례

10-1 깊이울 왕방산 육산제

10-2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

포천 깊이울 왕방산 육산제



포천시 신북면 심곡 2리

신북면은 포천시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으며 임야가 75%를 차지한다. 서쪽에 종현산(鐘懸山), 왕방산(王方山), 국사봉의 연봉이 뻗어있고 그 여맥이 면내로 내려와 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이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 계곡 주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유원지 마을이 심곡리(深谷里), 깊이울이다. 계곡물로 채워진 깊이울 저수지가 유명하다.

“18대 조부가 마을에 들어와 멬빵을 벗어논 곳”

“저희 마을이 생긴 역사가, 제가 알기로 우리 문중 병조판사 되신 18대 조부님이 여기 와서 멬빵을 벗어 논 게 기화가 됐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손이 지금 40살이 넘었어요. 18대면 1대를 30년을 치니까, 54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 기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옛 어른들한테 전달해 들어서 오늘까지 이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 거리에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는 올해 일흔 아홉 된 김명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신제를 시작하기 전에 18세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을 이 제의에서 바뀌지 않고 축관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수(79세) 씨가 마을과 제의에 대해 설명한다.



이 마을에는 일년에 두 곳에서 두 차례 제를 올리고 있다. 왕방산제, 옛날에는 육산치성이라 했단다. 약 20년 전에 왕방산제 및 추수감사제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추수하는 시기인 음력 8월 초에 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육산은 고기를 제물로 올리는 제사다. 왕방산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제를 합친 이유는, 일 년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할 때라 따로 하는 거 보다는 전통 예가 있으니 여기에 같이 하기로 한 것이란다. 전 동민들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하고 다 같이 음복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다.

다른 한 번은 소산치성, 국사봉 할머니 산신제다. 왕방산 할아버지에 대한 육산제 제단과 마주 보는 국사봉에 제당이 있다. 작은 절골로 올라가다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옆에 나무를 하나 좋은 걸로 지정해 놓고 밤중에 가서 지내느라 고생했던 곳이다. 지금은 마을 형편이 좋아져서 제당을 지어 두고 매년 3월 삼짇날 치성을 올린다.

할머니 산신이라 소머리나 포 같은 육류는 절대로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흰 백설기와 두부, 과일만 올린다. 그래서 흰 소자를 써서 소산치성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9월 9일에도 제를 지냈다. 한 번을 줄인 것이다. 이 소산치성도 지금은 저녁 5~6시 경에 제를 올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왕방산 육산제, 육산 치성제

금년에는 가을에 행하는 왕방산 육산제를 현장 기록한다.

왕방산 육산제는 매년 음력 8월 12~13일 중에서 좋은 날을 택한다. 원래는 화주, 주관의 생기를 봐서 맞춰서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지금은 이장을 제관으로 정했다.

2016년에는 음력 8월 12일, 양력 9월 12일 오후 5시 경에 지냈다. 제관은 김윤기 이장, 박경수 운영위원회 총무, 이홍락, 김선철 그리고 축관은 김명수 씨가 맡았다.

제관으로 마을 이장을 선임하면 이장은 산제일 택일 이후에는 닭도 잡지 않고 비린 것도 먹지 않고 부부 관계도 하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일체 금하고 필요 없는 출입을 삼간다. 예전에는 금기가 아주 심했고 여자들은 절대로 올라올 수 없었다. 제의비용도



호당 거두었는데 지금은 동네 돈에서 한다.
 “옛날에는 소금장수가 마을에 들어오면 다 맥여
 주고 끝난 다음에 나가게 했어. 화주 집에는
 송침으로 금기하고, 하주 심했지.”

왕방산에 아래 마련한 ‘왕방산 제단’

제장은 심곡 2리 깊이울 유원지 안쪽으로 왕방산을 조금 올라간다. ‘왕방산 제단’을 마련해 두었다. 1998년도에 현재 자리로 옮기고 제단을 만들었다. 원래는 산 너머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곳이 개인 산이라 옮길 수 밖에 없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리를 다시 봐서 지금의 자리를 잡은 것이다. 원래 자리에도 개울이 옆에 흐르고 바위가 있었다.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 했단다. 큰 바위 아래 제단을 두고 제법 넓은 터에 잔디를 깔고 철망을 쳐 정갈히 해두었다.

“통 소를 한 마리를 잡았던 건데, 지금은
 소머리만 올려요. 그래서 육산치성”

오후 3시경부터 심곡 2리 마을회관에서 산제를 지내러 올라갈 준비를 한다. 이장이 미리 제수를

준비하여 마을회관에 가져다 두었다.

그 전에는 통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처리가 힘들어 소머리로 바꾸었다. 금년에는 누가 돼지 한 마리를 희생해서 음복에 쓴다.

흰 백설기와 두부도 직접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비용을 더 주고 특별히 맞추었다. 소머리는 피만 없앨 정도로 손질하여 생으로 올린다. 과일은 다섯 가지가 기본이다. 사과, 배, 감은 일곱 개씩 높이 고인다. 밤, 대추도 가득 담는다. 식혜, 포, 조라 술을 올린다. 조라 술은 지금도 직접 담근다.

제관들과 주민 몇 사람이 먼저 제장으로 올라가 제물을 진설한다.

“오늘 새벽에 밥을 지어서 누룩하고 버무려서
 새벽에 묻어 둔건데, 저녁에 제를 지낼 때 보면
 익었어요. 희한하게 익어요.”

제단 위에 흰 창호지 세장을 깔고 진설한다.
 여기는 ‘홍동백서’로 차린다고 누군가 설명한다.



“포가 있는데 식혜가 없으면 안되지.”

“옛날부터 과일은 무조건 다섯 가지야. 밤,
 대추는 기본, 사과, 배, 감 이렇게. 제사도
 그래, 가는 곳 마다 다 틀려요. 홍동백서
 로 하는 데가 있고 조율이 시로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전부 홍동백서로 해요.…
 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방식
 으로 하는 거지.”

제관들은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한지로 예단도 미리 접어둔다.



“본인들이 잔 한 잔 올리고 싶다 하는 분은 누구든지 나와서 올리세요.”

5시가 조금 못되어 강신례를 시작한다.
화주가 술을 한 잔 받아 상 아래에 버리고 다시 한 잔 받아 향 위에 돌리고 상에 올린다.
시점을 세 번 소리 내어 치고 다 같이 부복한다.

“유세차~ 병신팔월 병신삭~”

축관의 축문 독축이다.
제관들 외에 젊은 남자 주민들도 여럿이 참석하였다.
독축이 끝나자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아헌관이 나와 술 한 잔 받아 올리고 시점 세 번 치고 절 두 번하고 물러 난다. 종헌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마치는 거니까 다 같이 재배 하세요~”

모두 다같이 절하고 제관들은 물러난다.

“본인들이 잔 한 잔 올리고싶다 하는 분은 누구든지 나와서 올리세요~”

주민이 나와 복비를 소머리 입에 끼우고 술 한 잔 올리고 절한다. 몇 사람이 이어서 복비를 올리고 절하고 물러난다.
김병수 씨와 주변에서 축원을 해주느라 부산하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와서 한 잔 올리세요.”

이장은 준비해온 봉투를 올리고 다시 절을 한다. 농협조합장이 준거라 그 몫으로 대신 잔을 올리는 거란다. 주민들의 헌작이 계속 이어진다.

이제 더 헌작 하는 사람이 없자 축관이 한 마디 한다.

“막판에 올린 잔은 옛날 어른들이 축 올린 사람이 목마르다고 마시라 그러던데, 어떠세요~?”



여기저기서 “인정.”이라고 하자 입술을 축인다고 하면서 한 잔 마신다.

음복은 제복 입은 사람들이 먼저하고 나서 다 같이 하시라고 권한다.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이장은 마을 대동 소지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개인 소지 올려요. 여기 오신 분들도 모두 소지 올리세요”
“예단 걸어야지.”

제단 뒤에 있는 나무 가지에 준비해둔 한지를 묶었다. 산신께 드리는 예단이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지에 과일, 떡을 세 조각씩 담아서 바위 위에 올려 둔다. 김병수 씨는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데 없어지는 걸 보면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그 자리에서 떡과 조라 술로 간단히 음복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쉼터에 음복상이 차려져 있다. 추수 감사제 마을 잔치 겸 당일 음복을 하고 내일은 생으로 제상에 올린 소머리를 삶아서 마을 잔치를 다시하기로 했단다.

204

“제사는 집집이 다르고...”

제물 진설을 하면서 제사는 집집이 다르고 마을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주거나 받거나 한참들 한다. 여기는 ‘홍동백서’로 진설한단다.



“옛날부터요, 남의 제사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 어디에나 있단 말이죠. 그건 왜냐! 문중마다, 같은 포천군이라 해도 옆에 마을이 다르고, 이 씨네 다르고 김 씨네 다르고, 제례법이 자기 문중 나름대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남의 제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야.”

“장모님이 돌아갔는데 처남이 아무것도 몰라, 그래 매제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했는데, 아, 조카라는 녀미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야. 사위가 어디 남의 분재를 사위가 하느냐고 된통... 그래서 아, 옛말이 하나 안 틀리는구나... 했지요.”



왼쪽 부터 김성겸 노인회장, 김윤기 이장, 김병수 전 노인회장이다.

전승의 주인공들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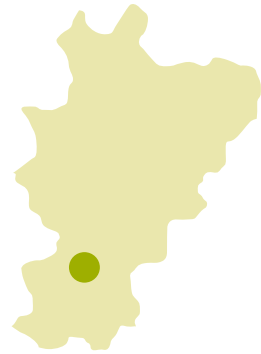
조부로부터 이어온 산제 축문과 절차

현재 국사봉 소산제와 왕방산 육산제의 절차와 축문은 김병수(79세) 씨의 조부이신 고 김원배(金元培)옹이 제관, 축관이 되어 시행해 오다 부친이신 고 김석준(金錫俊) 씨께 넘겨주었고 그 후 문중의 종손(宗孫)인 김상옥(金相玉) 씨를 거쳐 김병수 씨가 이어받았다. 그가 이어 받아서 한지만 60년이 되었다. 그는 18세 때부터 지금까지 깊이올 산치성의 고정 축관이다. 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의 역사와 산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다.

“만약에 이런 걸 무시한다면 문화재를 지키고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난.”

포천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

포천시 선단동 왕방산



206

포천 선단동은 4개의 법정동과 16개의 행정동, 66개 반, 1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산에 큰 바위가 있어 주민들이 이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선이 내려온다고 믿어 이 산을 선단산이라 칭했다. 그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선단(仙壇)동이라고 했다.

2003년 포천군이 시(市)로 승격되어 포천읍이 포천동(抱川洞)과 선단동(仙壇洞)으로 분동되면서 선단동(仙壇洞)이 되었고 행정동인 선단동(仙壇洞)관할이 되었다. 마을의 지명을 보니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지 싶다.

이번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는 포천 대진대학교 뒤에 크게 지은 선단동체육센터 잔디에서 지낸 터라 옛 모습을 볼 수 가 없었다.

왕방산은 광주산맥 서쪽 지맥인 천보산맥 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다. 신라 헌강왕 3년(872년)경 도선국사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하여 격려하였다하여 왕방산이라 불렀고 도선국사가 기거했던 절을 왕방사라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제일 편리하고 신식인 곳에 자리 잡은 산제터

이번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는 45년간 중단되었던 왕방산 산신제를 복원하여 봉행한 것이다. 선단동장과 노인회장이 주관하여 각 통장과 부녀회장의 협조를 받아 전통 방식에 의한 추수감사제를 겸해서 추진한 것이란다. 7개통 통장들이 참여하였다.

6~7년 전 선단동유도회가 발족되면서 선단동유도회에서 산신제를 주관하기 시작하였는데 잘 이어지지 않았단다.

300년을 지내오던 제단인 대진대학교 총장 공관 뒤 왕방산 등산로 옆의 노송 아래 있던 제단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를 지내오던 소나무가 죽어버린 데다가 그 산이 개인 사유지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소도 편리한 곳으로 정했다. 선단동 체육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앞 잔디를 확보했다. 시의원이 큰 소나무를 기증하여 왕방산을 바라보고 심었다. 이곳에서 3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다.

207

산신제는 매년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2016년에는 양력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지냈다. 음력 3월 3일은 만물이 살아나고 9월 9일은 만물이 들어가는 때라 이때 제를 올린단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생으로 올렸다. 팔 시루떡을 시루 채로 올리고 통북어 다섯 마리를 제기에 담았다. 육포도 돼지머리 옆에 두었다. 앞줄 양 끝으로 대추와 통밤을 놓고 가운데에 감, 사과, 배를 다섯 개씩 올렸다. 제주는 막걸리를 쓴다.

산신제는 원래 생과라 국과 찬 등 모두 익혀서 올리는 숙찬과는 다른 상차림이다. 모두 생과를 써야하기 때문에 숙찬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떡도 생쌀로 올려야 맞는 거라고 홍광표 고문이 한참 설명한다.



"정성이 원칙이라는 산지사"

제의절차는 강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월례, 사신례, 소지, 음복 순으로 진행한다. 관세위까지 옆에 준비한 모양이 여느 향사 수준이다. 그러나 이미 팔시루 떡이 올라갔다. 소지는 원래 대동소지로 한 장을 올리는 것인데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개인소지를 올리라고 한다. 제의절차도 홍광표 고문이 사회자로 소개 인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모로 또 다른 모습이 보여 흥미롭다.

- 헌관들은 모두 제상 옆에 마련해둔 곳에서 관세위를 한다.
- 초헌관이 나와 강신례를 올린다.
- 초헌관이 술을 한 잔 올리고 재배하고 물러난다.



- 이어서 참석자 모두 부복하고 축관의 독축이 이어 진다.
- 아헌관, 종헌관이 헌작 하고 물러난다.
- 축관이 축문을 소지한다.
- 통장, 부녀회장들이 다 같이 헌작하고 물러난다.
- 헌관 세 사람은 제상 앞에 앉는다.



- 참석자 모두 자기 소원을 빌면서 개인 소지를 올린다.

山神祭祝文

단군기원(檀君紀元)4349년 병신(丙申)
9월 병진(丙辰) 삭(朔) 초 9일 갑자(甲子)
선단동장(김재완)은 왕방산 산신령(王方山 山神靈)님께 고(告) 하나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왕방산 산신령(王方山 山神靈)이시여 금일(今日) 우리는 선현(先賢)의 발자취가 은은히 느껴지는 이곳 왕방산에서 한 해를 감사(感謝)하고 반성(反省)하며 내일(來日)의 번영(繁榮)과 도약(跳躍)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一念)으로 선단동 주민 전체의 뜻을 모아 성스러운 제(祭)를 올리나이다.

거듭 비옵건데
병신(丙申)년 한해도 우리 선단동 주민의 안녕(安寧)과 산업의 발전(發展)을 기원(祈願)하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이루고자 고(告) 하오니 왕방산 산신령(王方山 山神靈)이시여 삼가 술과 음식을 마련하였사오니 음향(飮饗)하여 주옵소서.



- 모두 끝난 후 편한 자세로 둘러 앉아 제관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하고 박수치고 마무리 한다.

- 그 자리에 둘러 앉아 간단히 음복하고 선단동 중심가 식당에서 본격적인 음복자리가 이어졌다. 이번 산신제 복원의 중요한 목적이 마을의 대동단결에 있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명유래에서 보는 마을의 옛 모습

철종의 부친인 전계대원군의 묘가 있는 마을이라 묘소말, 전계대원군 묘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능안골,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하여 장승거리, 전계대원군 묘자리에 원래 있던 서 씨묘에 석함이 묻혀 있었다 하여 석함터,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어서 정자동, 마을에서 산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하여 산제당터, 바위에서 멀리 있는 들이 다 보인다고 하여 들 바위, 돌을 던져 이 바위를 맞추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아들바위, 장승거리에서 전계대원군 묘소까지 철종 임금님이 다녔던 길이라고 어로길, 말 주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말이 주인의 목을 물고 와서 죽었기 때문에 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여 말무덤이라는 등 그 지명유래에서 마을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산치성”, “산지사”, “산제사 지낸다.”고 말하고
산신제라 쓴다.

새로 조성한 산제터는 바로 앞이 도로라 차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럽다. 여전히 쇠줄로 지탱하고 있는 당나무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려면 세월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여기가 왕방산이고 철종, 강화도령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 묘소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였으니 계속이어 가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이다.

“산치성”, “산지사”, “산제사” 지낸다고 말하고 축문에는 산신제라고 쓰는 이 마을공동체 의례의 복원 후가 주목된다.



전승의 주인공들

금년 제관은 초헌관 김재완 선단동장, 아헌관 최창근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종헌관 최수정 선단동 통장협의회회장, 뒤 왼쪽이 축관 류재수 선단 3통 노인회 총무이자 문화 류 씨 종손, 집례 강신태 선단동 유도 회장이 맡았다. 제의 절차는 홍광표(84세) 씨가 진행했다.

홍광표 씨는 전 유도회 회장이자 현 유도회 고문, 포천문화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원 고향은 양주다. 15세에 일가친척이 있는 이 마을에 와서 혼례도 여기서 했다. 남양 홍 씨 집안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다.

6~7년 전에 첫 포천유도회 회장을 하면서 9월 9일, 3월 3일에 산제사 지내는 것을 복원하였다. 유도회에서 주관하면서 예식을 유도회 식으로 맞춘 것이다.

“원래는 다 생 거로 해야 돼. 숙찬하고 겸해 진거야. 원래 생쌀을 놔야 원칙이야. 날걸로 놔야해. 우두를 해야 해. 이거는 돼지머린데...”

이번에 통장과 노인회에서 주관하면서 오히려 예전 산치성으로 제물차림이 바뀐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쨌거나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마을의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중요한 날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한다. 축문에서 그 뜻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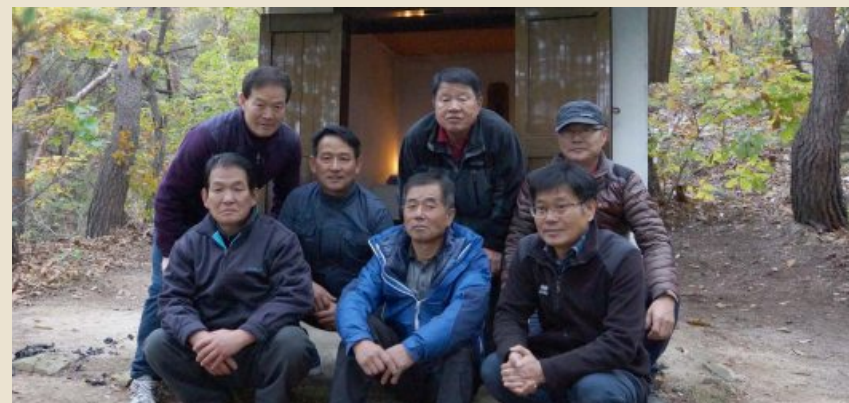


III 전승의 주역들















| | |
|-------|--|
| 사업명 | 2016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주제별 콘텐츠 기획발굴지원 - 마을공동체 의례 |
| 주최 |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
| 기획·진행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문화원 지역문화 연구소·마을운영회 |
| 참여 | 경기북부 해당마을 주민 |

| | |
|-------|---|
| 事業名 | 2016京畿北部伝統文化活性化事業 テーマ別のコンテンツ企画 発掘支援一町共同体儀礼 |
| 主催 | 京畿道・京畿文化財団 |
| 企画・進行 | 京畿文化財団北部文化事業団 京畿道北部の10か所の市・郡文化院、 地域文化研究所、町運営会 |
| 参加 | 京畿北部の町の住民 |

| | |
|---|--|
| PROJECT NAME | 2016 Traditional Culture Activation Project of Northern Gyeonggi-do Communal Ritual |
| HOSTED BY | Gyeonggi-do Gyeonggi Culture Foundation |
| PLANNING, DISCOVERING AND SUPPORTING OF CONTENTS BY THEME ORGANIZED BY | Northern Culture Project Agent under Gyeonggi Culture Foundation 10 Si-Gun's Culture Center of Northen Gyeonggi-do & Local Cultural Research Center & Village Community Center |
| PARTICIPATED BY | Participated by village people residing in the Northern Gyeonggi-do |

2016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주제별 콘텐츠 기획발굴지원 - 마을공동체 의례

마을공동체 의례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를
전송하는 방식

우리 마을 산신제

| | |
|--------|---|
| 기획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 북부 10개 시 · 군 문화원 |
| 진행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가평문화원 / 고양문화원 / 구리문화원 남양주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양주문화원 연천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포천문화원 파주지역문화연구소 / 사)가평작협회 고양 성석동 고봉 7동 마을운영회 |
| 지원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북부문화사업단 허윤형(단장·총괄지원) / 한창규(행정지원) |
| 글 | 김지옥(북부문화사업단 수석연구관) |
| 사진 | 진행기관·김지옥 |
| 도움주신 분 | 경기북부 해당마을 주민 |

| | |
|-------------------------------------|---------|
| 발행일 | 2016.12 |
| 발행 | 경기문화재단 |
| 디자인 | 파인트그래픽스 |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해당지역 문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주제별 콘텐츠 기획발굴 지원-마을공동체 의례

